

전략연구 2018-0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충남 관광정책 대응방안

김경태 · 이인배 · 권미정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2. 연구 범위와 주요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 방법	6
3) 연구수행체계	6
제2장 이론적 고찰	7
1. 국제사회 발전규범 및 실천의제의 출현	8
1) 지속가능한 발전의 출현과 변화과정	8
2)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채택	9
2. 새천년개발목표(MDGs) 실천규범의 채택과 이행	11
1)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채택과 기본가치	11
2)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이행을 위한 목표와 세부목표	13
3.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 채택과정과 내용적 특징	15
1) Post-2015 논의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채택	15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내용과 관광정책과 연계성	17
3)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간 비교	22
제3장 SDGs와 연계한 관광 분야의 지표분석과 및 충남의 관련 정책분석	42
1. 관광분야 지표 및 정책과제 선정방법	42
1) 관광분야 지표 선정방향	42

2) 관광 관련 지표 및 정책과제 선정 방법	43
2. 관광분야 지속가능 지표와 국제 지속가능 관광지 기준	44
1) 국제적 지속가능한 관광의 추진	44
2)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 국제 지속가능 관광지 기준	51
3)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관광 국제 해(International Year of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	57
3.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관련 국내 정책추진 동향	61
1) 중앙정부의 정책동향	61
2) 학술연구에 의한 관광지표의 동향	67
3) 국내외의 지속가능한 관광지표 비교분석	71
4.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정책동향	79
1) 추진체계와 성과	79
2) 관련 정책동향	84

제4장 SDGs에 대응한 관광 분야의 정책과제 87

1. 접근 틀과 기본방향	87
2. SDGs과 연계한 충남 관광정책 대응방안	89
1) 충남 관광 연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개발	89
2) 지속가능발전형 충남의 관광정책목표와 시책의 추진	92
3) 지역 콘텐츠 중심 관광도시와 관광상품의 발굴 및 운영	95
4) 향토특산물과 일자리 창출형 지연관광산업의 육성	98
5) 충남 관광지와 관광자원개발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도입	100
①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	100
② 아산온천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101
③ 삽교호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101
④ 금강하구둑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102
⑤ 보령머드기반시설 조성	103
⑥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103
⑦ 성주산 남포오석 테마거리 조성	104
⑧ 수리치골 둘레길 조성	104
⑨ 중장천변 산책로 조성	105

10	백제고도 르네상스 프로젝트	106
11	강경 문화공간(공원) 조성사업	106
12	몽산포해수욕장 국민휴양서비스공간 조성사업	107
13	당진우강 솔피곶 명소화	107
14	구드래 관광자원화사업	108
15	보령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	108
16	고대도 해양문화관광 개발사업	109
17	무성산 탐방로 조성	109
18	한산모시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사업	110
19	봉수산 주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	111
20	탐정호 노을물빛 관광자원화 사업	111
21	이상재선생 나라사랑 체험공간 조성사업	112
22	창조지역마을만들기(지붕없는 해미읍성)	112
23	호반의 도시 휴양·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113
24	칠갑산 휴양랜드 보완사업	113
2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콘텐츠 강화사업	11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5

1. 요약 및 정책제언	115
1) 요약 및 종합정리	115
2) 정책제언	119
2. 향후 연구과제	121

참고문헌 123

1. 국내 문헌 및 자료	123
2. 국외 문헌 및 자료	124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125

표 목 차

〈표 2-1〉 밀레니엄 선언(The Millennium Declaration)의 기본가치	12
〈표 2-2〉 MDGs의 8대 목표와 세부목표·대상	13
〈표 2-3〉 MDGs의 달성 전망과 대표적 지표의 변화	15
〈표 2-4〉 Post-2015 아젠다의 핵심가치	16
〈표 2-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요소	17
〈표 2-6〉 2030아젠다의 내용 구조	18
〈표 2-7〉 2030 아젠다에 제시된 미래 세계의 비전	19
〈표 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내용	21
〈표 2-9〉 MDGs와 SDG간 비교	24
〈표 2-10〉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연혁	29
〈표 2-11〉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관광분야	37
〈표 2-12〉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관광관련 유사 분야 지표	37
〈표 2-13〉 UN SDGs와 인천의제21 연계	39
〈표 2-14〉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관광분야	40
〈표 2-15〉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관광분야	41
〈표 3-1〉 마라케시 프로세스 주요 내용	47
〈표 3-2〉 마라케시 프로세스 참여 국가별 담당 TF 분과	48
〈표 3-3〉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 경과	49
〈표 3-4〉 국제지속가능관광 관광지 기준	53
〈표 3-5〉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권고 활동 모음 내역	59
〈표 3-6〉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권고 활동 모음 내역(계속)	60
〈표 3-7〉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 주요 추진 경과	62
〈표 3-8〉 지속가능발전 제도 및 추진체계	63
〈표 3-9〉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원칙	65
〈표 3-10〉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표 관련 연구	70
〈표 3-11〉 국내외 사례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지표	71

〈표 3-12〉 국제규범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지표	73
〈표 3-13〉 국내 정책검토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지표	75
〈표 3-14〉 학술 연구 검토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지표	77
〈표 3-15〉 부문별 검토를 통합 지속가능한 관광지표	78
〈표 3-16〉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1단계 이행계획 관광관련 추진계획	82
〈표 3-17〉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1단계 이행계획 관광관련 성과지표	83
〈표 3-18〉 UN SDGs와 푸른충남의제21 연계	84
〈표 4-1〉 기본방향	88
〈표 4-2〉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전략과 추진과제	93
〈표 4-3〉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세부사업	94
〈표 4-4〉 충남의 기존관광자원개발사업 현황	96
〈표 4-5〉 국가지원 관광자원개발으로 계획 구상중인 사업	97
〈표 4-6〉 충남의 지역특산품 현황	98

그림 목 차

〈그림 1-1〉 분야별 주요 연구 내용	5
〈그림 1-2〉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7
〈그림 2-1〉 인간안보를 저해하는 제원인	10
〈그림 2-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35
〈그림 2-3〉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내 관광관련 과제	36
〈그림 2-4〉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내 수레바퀴 모델	38
〈그림 3-1〉 제3차 지속가능발전계획(2016-2035) 비전체계도	64
〈그림 3-2〉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8대 핵심 전략	67
〈그림 3-3〉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 경과	80
〈그림 3-4〉 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체계도	81
〈그림 4-1〉 접근 틀	87
〈그림 4-2〉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	91
〈그림 4-3〉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92

요 약

1) 요약 및 종합정리

(1) 연구의 배경

2015년 10월 국제연합(United Nation, UN) 총회에서는 2015년 말 종료된 유엔의 새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 이어 새로운 국제사회 실천의제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다.

SDGs는 관련 분야의 전 세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working group)이 다년간에 걸쳐 연구·토의한 초안을 토대로 주요 이해당사자(국가, 지역, 시민단체 등)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190여 개 이행당사국들은 SDGs의 주요 의제를 이행함과 동시에 국가경영의 핵심가치와 전략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를 비롯한 한국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관광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관리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특히, 유엔은 SDGs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을 “International Year of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 로 정하고 관광분야에서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지속가능한 개념에 대해 대한 이해부족과 함께 관련 지식이 창출되고 전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할 거버넌스 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단위에서의 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실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충청남도에서도 지속가능 관광목표 설정으로 모범적 역할과 함께 충남지역을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으로 유도할 수 있는 관광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와 실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대응방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

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2) 이론적 고찰

① 국제사회 발전규범 및 실천의제의 출현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제사회에 의제로 떠오른 「인류 환경에 관한 최초의 UN 총회」가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지 46년이 되었다. 하지만, 세계는 아직도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2012년에는 Rio+20 정상회의를 통하여 UN 지속가능한 발전 회의를 개최하여, 새천년 개발의제 (MDGs)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SDGs)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하였다.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인간안보의 결정적 위협요인인 빈곤감소가 더 이상 추상적 논의와 담론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이의 해결을 위한 국제규범 및 목표 설정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2000년에 새천년개발목표(MDGs), 15년이 지난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총 17개 목표 169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SDGs의 17개 목표는 사회발전, 경제개발, 환경의 영역에 걸쳐있으며 SDG 16과 SDG 17은 이행기제에 해당하는 목표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는 부문별로는 17가지의 목표(goal)속에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다.

② 관광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와 의미

그 동안 관광산업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와 다양화를 경험하며, 기타 산업에 비해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또한 관광은 관광산업 자체는 물론 농업 및 건설, 더 나아가 수공업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산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후방 산업으로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은 일반적으로 타 분야에 비해 물, 에너지, 토지와 해양 및 해안개발 등 환경적 요인에 의존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는 온실가스 증대에 따른 기후변화는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광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유형으로써 생태관광 및 녹색관광 개

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표방하면서 생태 및 녹색 관광정책과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3) SDGs와 연계한 관광 분야의 지표분석과 충남의 관련 정책분석

① 관광분야 지표 및 정책과제 선정방법

SDGs에 대응하는 관광 분야 정책 지표와 관련 정책과제 제안 목적은 SDGs의 목표에 비추어 관광 관련 정책적 행위를 유도·평가·관리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방차원의 구체적인 지침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지표 및 정책과정 선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SDGs와 관광 분야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SDGs의 17개 목표 범주에 입각해 관광정책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하고 세부 분야를 설정한다. 둘째, 지표와 과제는 문화·관광과 같은 문화체육관광의 소관 정책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관광 관련 정책 행위까지 포괄한다. 셋째, 체계적·객관적 방법을 통해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관광분야 지표와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따라서 관광과 지속가능에 관한 국제규범과 우리나라 관광정책 관련 연구보고서를 종합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지표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안하였다.

② 관광분야 지속가능 지표와 국제 지속가능 관광지 기준

국제지속가능관광기준은 지속 가능한 관광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관광관리기관이 도달하기 위해 지향해야 하는 최소한의 일들을 의미한다.

지속 가능한 관광의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표를 포함하는 학제적이며 거시적이고도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관광지 관리증명, 둘째, 관광지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셋째, 지역사회와 방문자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편익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넷째, 환경에 대한 편익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등이다. 이러한 기준은 모든 유형 및 규모의 관광지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국제지속가능관광 관광지 기준이 적용이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제공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준을 최대한 실용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지역의 규제사항, 환경적·사회적·경제적 또는 문화적 상황에 따라 이 기준이 특정 관광지나 관광지 관리기관에 적용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관광지는 서로 다른 많은 기업과 기관과 개인들로 구성되므로 이들 기준의 적용은 누적된 활동효과들을 철저하게 고려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관광지 수준 규모에서의 평가는 대개 개별적인 규모에서의 누적 효과들의 최종결과를 담아낸다. 그러나 영향모니터링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닌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③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관련 국내 정책추진 동향

지속가능발전' 이 비단 SDGs에서 새롭게 제기된 것이 아닌 만큼 국내에서 또한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 확산과 실효적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의제21'을 채택한 계기로 1996년에는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이행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 방안 연구(2015)”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서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성이 순환을 이루면서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국내 정책 검토에 따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지표는 지역주민의 관광 참여를 통한 지역 관광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많았으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관광의 지속가능성 부분과 지역자원의 재생산을 통한 관광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정책동향

충남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한 체제의 여러 분야에 대해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해주는 수단이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2013년 지속가능발전지표 106개를 개발했으며, 2015년 보완을 거쳐 100개(경제23, 사회24, 환경25, 행정제도21, 배경7)로 확정하였다. 100개 지표 중 중요한 지표 25개 대표지표로 선정하게 특별관리 하였으며, 관광과 관련된 지표는 여가생활 만족도 1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자 관련기관과 협력하기도 하고 권역별 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 실시, 지속가능발전 이해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지표 분석 및 피드백, 지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지표 개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미세먼지, 로컬 파트너십, 국제협력, 인권, 성(gender) 문제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고, 내포신도시와 같은 새로운 계획도시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 검토, 천안 200인 원탁토론회를 통한 도시의 미래 계획 수립, 공주시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시범사업 참여를 통한 구도심 재생 및 도시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문화 활동 증진 사례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2) 정책제언

(1) 기본방향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충남의 관광정책 대응방안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동향과 관련 지표와 SDGs와 연계한 관광분야와 충남의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관광지표의 분석 및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2) SDGs와 연계한 충남 관광정책 대응방안

① 충남 관광 연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개발

세계적 차원에서의 관광트렌드 및 전망에 의하면, 환경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증가, 관광산업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 확대, 국내 관광수요 증대를 위한 국가들의 노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미래 관광 트렌드의 패러다임 및 형태는 문화, 예술, 의료, 생태, 어드벤처, 엔터테인먼트 등이 다각화 되고 각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뉴 투어리즘(New Tourism)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및 국내동향에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들이 국가 및 지역관광과 연계하여 개발되고 있고, 실제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으므로 충남에서도 관광과 연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의 충청남도(2017), 제6차 충청남도 관광개발계획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법정계획으로 수립되어 시행될 제7차 충청남도 관광개발계획에도 관광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형 충남의 관광정책목표와 시책의 추진

지속가능발전형 충남의 관광정책목표와 시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지표와 연계한 관광정책의 관련 목표와 지표를 개발하여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단계로 충남의 관광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목표와 지표를 개발하여 법정계획 수립 및 개별 관광자원 개발사업 수립시 적용토록 해야 한다. 2단계는 충남의 관광정책목표와 시책의 추진을 위한 관광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적용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한다. 3단계는 각각의 매뉴얼에 의하여 충청남도 및 각 시·군의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개별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진흥, 관광상품, 관광특산물의 개발 및 판매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활용한다.

③ 지역 콘텐츠 중심 관광도시와 관광상품의 발굴 및 운영

중앙정부에서는 관광자원의 유형에 따라 추진해 왔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성과 콘텐츠에 맞는 국가자원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다른 국가지원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어서 도출된 사업의 분류는 다음의 4개 유형, 17개 정책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충남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관광사업으로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④ 향토특산물과 일자리 창출형 지연관광산업의 육성

충남의 향토특산물과 일자리 창출형 지연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관광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화해 개발하고, 지역관광객을 위하여 지역특산물 상품판매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충남을 대표하는 우수한 특산물은 지역의 전통 특산물로 품질면에서의 명품 상품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남의 전통 특산물과 명품 관광상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관광상품 전문가와 쇼핑관광 등의 자문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충남의 관광기념품, 특산물, 향토음식물 등에 대한 전략 상품의 개발과 홍보마

케팅 실시 및 다각적인 유통 및 판매촉진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전통산업의 관광 특산물과 명품 관광상품의 개발은 공공에서 주도로 하고, 홍보마케팅과 유통 및 판촉은 민간기업체와 주민, 관련단체의 주도로 실시토록 한다.

⑤ 충남 관광지와 관광자원개발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도입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의 개발사업은 덕산온천관광지, 아산온천관광지, 삼교호관광지, 금강하구둑관광지,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등이 있다.

그리고,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는 보령머드기반시설 조성, 보령머드기반시설 조성, 성주산 남포오석 테마거리 조성, 수리치골 둘레길 조성, 등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하 사업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채택

2015년 10월 국제연합(United Nation, UN) 총회에서는 2015년 말 종료된 유엔의 새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 이어 새로운 국제사회 실천의제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다. 그 이후 2015년에 마감한 MDGs 목표 가운데 여전히 달성되지 않은 빈곤 퇴치, 여권 신장, 성평등 축진을 포함한 “유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세웠으며, 17개 목표와 구체적인 세부 목표로 168개가 있다.

이 중 MDGs가 빈곤 퇴치를 가장 중심적 과제로 설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정해진 17개 목표들은 지구적 경제성장, 사회적 포용,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3가지 요소 모두를 포괄하고 있으면서, 인간과 환경조화, 존엄성과 평등 지향성과 같은 인간 중심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볼 때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아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리우 환경정상회담과 2002년 요하네스버그의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성,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 간의 조화로 지속가능발전이 이해되고 있지만, 그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고 선언적이어서 개념의 구체화와 계획의 실천력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이용우 외, 2003).

그 당시에 채택된 UN SDGs는 지속가능발전의 매우 구체적인 지표와 실천방안 담고 있다는 점, 환경 중심에서 환경·사회·경제 분야의 실천의제가 균형을 이루어 포괄적·총체적인 ‘발전(development)’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점과 그리고 국제사회의 의무적 이행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전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MDGs

가 선진국=공여국(供與國, Donor), 개발도상국=수원국(受援國, Recipient)이라는 이분법 하에 개발도상국의 혁신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SDGs는 국제사회 전체의 인권, 환경,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면서 개발목표의 대상을 선진국 까지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국제 개발협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규범의 방향성을 제시(김숙진, 2016:820)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SDGs는 관련 분야의 전 세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working group)이 다년간에 걸쳐 연구·토의한 초안을 토대로 주요 이해당사자(국가, 지역, 시민단체 등)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90여 개 이행당사국들은 SDGs의 주요 의제를 이행함과 동시에 국가경영의 핵심가치와 전략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를 비롯한 한국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설정과 관광정책 방향 마련이 필요

관광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관리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실천적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비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프리 삭스(2015)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도전이라고 말하였다. 기후변화 하나만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도시화, 인구 증가, 과도한 자원 추출, 무자비한 불법 거래 등의 이런 현상들은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 엄청난 불확실성 이슈들이라고 예기되고 있다.

이에 따른 현상은 관광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관광부문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개발과 성장이라는 목표에 치중하여 오히려 관광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관광의 발전 목표에 패러다임 변화를 외치면서 환경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관광을 경제활동 핵심 영역으로 주로 생각하고 양적 성장위주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오늘날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이 시대가 표출하는 중심 개념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인 동시에 글로벌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삭스, 2015).

특히, 유엔은 SDGs를 실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을 “International Year of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 로 정하고 관광분야에서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

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명제를 국제·국내·지역에서 실천적 과제로 전환시키는 실천적 집중 노력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지속가능한 개념에 대해 대한 이해부족과 함께 관련 지식이 창출되고 전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할 거버넌스 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단위에서의 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실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충청남도에서도 지속가능 관광목표 설정으로 모범적 역할과 함께 충남지역을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으로 유도할 수 있는 관광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 충남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설정과 관광정책의 대응 방안마련 필요

국내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당사국으로써 그 목표의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추진과정 및 성과와 한계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UN에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07년 7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을 제정하고 5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중앙정부의 범부처가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경제·사회·환경 등 국가 정책의 전 영역에 걸쳐 적용되어야 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다소간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관광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2016년 1월에 수립하여 공표된 ‘지속가능한 발전 기본계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는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속가능 관광발전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편이다.

이에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와 실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대응방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UN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실천의제들과 ‘관광정책’ 간의 관계가 충남의 관광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가치와 주요 과제에 부합하고 이의 이행에 기여하는 충남의 관광정책의 가치와 목표, 정책지표 및 과제를 제안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충남 관광발전 구상과 직간접적으로 결합되는 관광정책의 중장기 실천방향과 의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다음의 세 가지 연구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관광’과 ‘지속가능한발전’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2015년에 채택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우리 사회와 충남의 연계성과 의미, 특히 관광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둘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가치 및 목표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의 지향가치(intended value)는 무엇인가?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관광정책의 도전적 상황과 정책목표는 무엇이며, 관련 실천과제는 어떻게 이행·관리할 것인가? 등 이다.

2. 연구 범위와 주요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으로 정한다.

내용적 범위는 지속가능 발전의제와 관광의 관계·의미 도출, 관광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계에 관한 지표의 국내외 정책동향과 지표의 관련성 비교분석,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하는 충남 관광의 지향가치, 지표 및 정책방안 제시, 종합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등이다.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전지역 15개 시·군

(2) 시간적 범위

- 분석기준연도 : 2017년
- 목표년도 : 2030년

(3) 내용적 범위

○ UN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국내의 정책동향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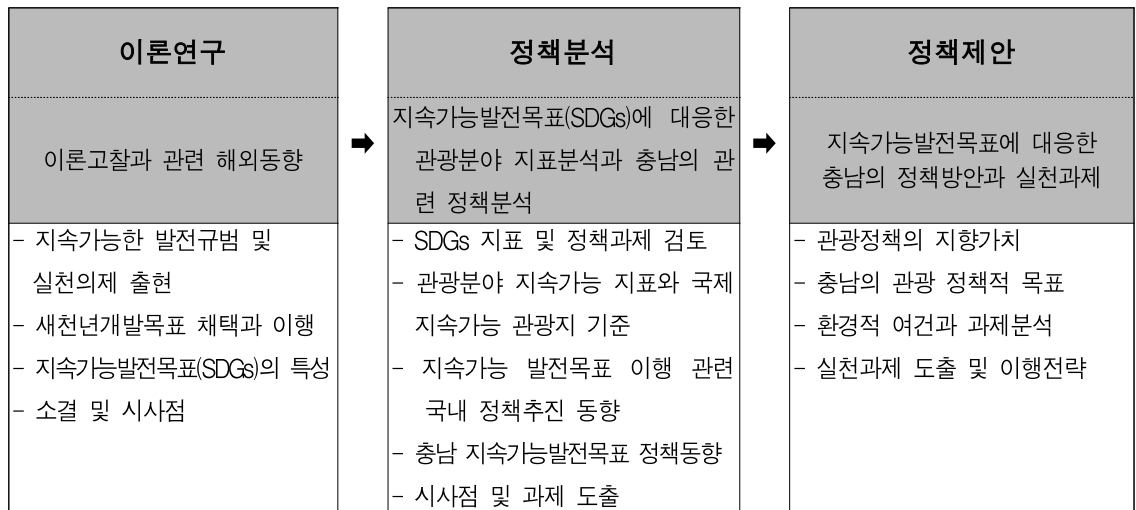
-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발생과정 및 주요 내용, 이들 의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충남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국내 중앙정부의 각 분야별 대응전략 및 관련 정책 분석 : 지속가능한 발전 기본 계획 주요내용, 관련 정부정책 등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광 간의 관계 및 그간 충남 지역 관광 분야의 대응 분석

○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관광 정책간 지표와 실천과제의 관련성 분석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관광정책
-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각 목표과제가 관련 관광정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
-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연관된 관광 분야의 주요 지표와 지역관광정책 분석
- 지속가능 발전목표 및 관광분야 지표와 관련된 지역관광정책의 관리 및 이행방안 사례분석

○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한 지역관광 정책의 지향가치와 지표, 동향의 분석

-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대응한 지역관광 정책의 지향가치(intended value) 도출
-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연계한 지역관광 정책의 지향가치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
-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연계한 지역관광 정책의 주요 환경적 여건과 동향 분석
- 지속가능 목표와 연계한 충남관광정책의 실천방안 도출 및 이행전략 제시



〈그림 1-1〉 분야별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및 정책동향 분석

문헌고찰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U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의 대응 및 조치에 관한 내용, 국가 간 협정, SDGs 등 국제사회의제의 시대사적 의미 혹은 한계, 실천과제 및 개선점 등에 관한 한계를 분석한다.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관광부분의 대응을 상호 관련성으로 정리하고, 국내외의 주요 사례를 분석한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관광 분야 정책지표 및 정책과 관련된 주요 통계 및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2) 전문가 자문회의

관광정책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방향설정’, ‘연구결과 검토’ 등을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6~8월, 총 3회), 국토계획·환경 등 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 공유 및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2018년 10월, 1회)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으로서의 시사점을 갖도록 하였다.

3) 연구수행체계

○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광정책동향

- 문헌조사 :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논문 및 정책보고서
- 통계 및 정책자료 : 통계자료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정책보고서, 조사연구보고서 등

(※ 자문회의 및 연구진 워크숍 : 관광수용태세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선정)

○ 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 관광 정책과 추진사업 분석

- 통계와 행정내부자료 : 충남의 지속가능발전 관광 정책 및 사업 현황분석
- 담당자 면접조사 : 충남 지속가능한 발전 관광 시책 현황과 과제

○ 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관광전문가 자문

- 연구진 워크숍 : 분석내용 비교 및 결과분석의 종합정리

○ 충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제 도출

- 전문가 자문 및 담당자면접 :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결과분석을 종합한 과제도출
- 충남 관광수용태세 개선방안
-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워크숍 : 지속가능발전 핵심과제와 세부추진 시책

연구내용	연구방법
SDGs 목표와 지속가능발전 관광개발 이론 고찰과 정책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논문과 정책보고서 등 문헌조사 - 통계자료, 조사연구보고서 등 정책자료 - 연구진 워크숍
지속가능발전지표 관광 정책과 추진사업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자료 및 행정내부자료 분석 - 담당자 면접조사/정책자료 수집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련 관광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전문가 자문 - 연구진 워크숍
충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제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 개최 - 관광수용태세 관련 담당자 인터뷰
충남 지속가능발전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워크숍으로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반영

〈그림 1-2〉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1. 국제사회 발전규범 및 실천의제의 출현

1) 지속가능한 발전의 출현과 변화과정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제사회에 의제로 떠오른 「인류 환경에 관한 최초의 UN 총회」가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지 46년이 다 되었다. 하지만, 세계는 아직도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이렇게 리우 정상회의 개최로 UN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UN 사막화방지협약이 체결되었고, 2012년에는 Rio+20 정상회의를 통하여 UN 지속가능한 발전 회의를 개최하여, 새천년 개발의제(MDGs)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하였다.

2015년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목표 아래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시작된 역사적인 해이기도 하다. 유엔은 지난 2000년부터 15년 동안 국제사회의 개발 노력에 있어 나침반 역할을 해 온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에 이어 2016년부터 향후 15년간 추진할 새로운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를 제시하였다(황세영 외, 2016:3).

사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근래에 들어 주목받는 개념이 아니다. 1980년대부터 등장한 지속가능발전은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론화되기 시작한 개념이다¹⁾. 20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형태로 전 지구적인 발전목표와 규범으로 재등장 하였다. 이것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사회발전과 경제발전 및 환경보존을 고려한 ‘공평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전 인류의 열망이자 실천의지가 반영된 것이다(이태주, 2016).

1)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주창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1992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or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주제로 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통해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2년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21세기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전략을 함축하는 핵심개념을 정착하게 된다(조을생 외, 2014:1).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가 종료되는 2015년 이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가져가야 할 새로운 개발 목표, 즉 ‘Post-2015 개발의제’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목표이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문제해결이 추상적이며 거시적 담론 수준이었던 것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 실천과제가 제시된 국제사회 공동의 발전 규범(Development Norm)²⁾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국제규범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현실주의’, 상호 이익의 성취를 위해 규범과 레짐(regime)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유주의’,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ity) 관계 속에 국제규범의 변화와 국제개발개념의 재정립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등 국제규범에 관한 논의와 분석은 국제정치이론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손혁상 외, 2014).

MDGs나 SDGs는 그 한계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강제성의 미비라는 국제규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과 발전도상국, 시민사회, 민간 부분, 학계, 의회 등 다양한 주체의 정체성과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의 규범을 만들고 내재화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즉,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했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 비판론, 자유주의적 이익론을 넘어선 긍정적 시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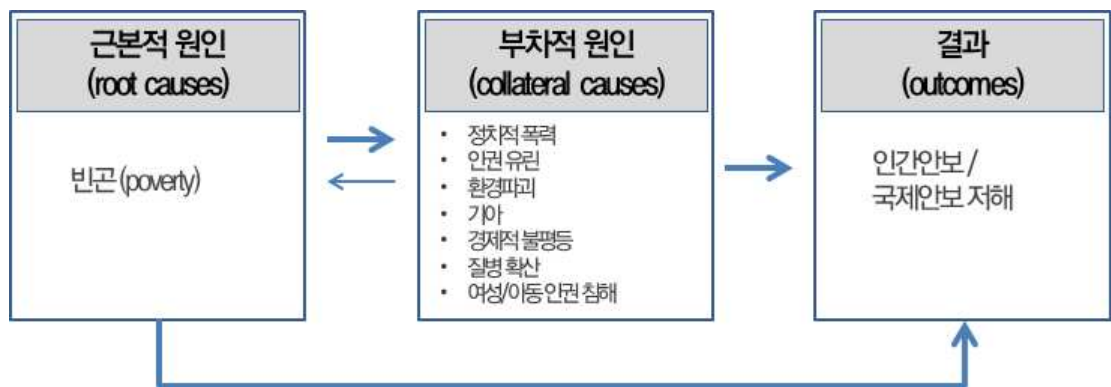
MDGs 및 SDGs와 같은 전 지구적이고 포괄적 분야를 다룬 국제규범이 등장한 것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구적 위기의식에서 기인하고 있다. 인간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빈곤, 기아, 경제적 불평등, 인권유린, 환경파괴, 질병 등 다양한 비전통적인 위협들로부터 개인과 인간집단으로서의 인간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박한규, 2008:223)과 말하고 있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1994년에 제시된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

2) 핀모어와 시킨크(1998;손혁상 외, 2014:240-250 재인용)는 국제규범의 역동성과 주기를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1단계의 규범 출현은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어젠다에 대해 조직적 기반을 갖춘 규범 주창자(norm entrepreneurs)가 중심이 되어 규범 논의가 시작되면서 규범이 생성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두 번째 규범 확산단계는 국제적 커뮤니티에 의해 규범이 확산되는 것이며, 주요 행위자는 국가, 국제기구가 중심이 된다. 세 번째 규범의 내재화 단계는 규범을 통해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Human Development Report: HDR)]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³⁾. 이 보고서에서는 그 동안의 안보개념들이 인간 개인의 안전보다는 국가안보와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서 ‘공포로부터 자유(freedom from fear)’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poverty)’로 정의되는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박홍서, 2012:57)고 주장하였다.

박한규(2008:224-225)는 인간안보의 저해 요인을 ① 근본원인(root causes) ② 부차적 원인(collateral causes) ③ 결과(outcomes)로 구분하면서, 인간안보의 근본원인으로 ‘빈곤(poverty)’을 제시하였다. “빈곤은 인간안보를 저해하는 다른 위협들, 즉, 정치적 폭력, 인권유린, 기아, 질병, 여성/아동 인권 침해 등 다양한 부차적인 인간안보 위협요인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이고 핵심적인 위협요인 “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간안보를 저해하는 부차적인 원인, 즉 정치적 폭력, 인권유린, 환경파괴, 질병 등은 다시 빈곤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인간안보’와 ‘국제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 : 박한규(2008), 인간안보와 글로벌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 유엔의 새천년 개발목표(MDGs)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내학술회의, pp.222-238, p225를 연구자 재구성

〈그림 2-1〉 인간안보를 저해하는 제원인

인간안보의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실천의제를 채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3) ‘인간안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던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는 기존 안보연구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인간안보’의 개념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안보의 개념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영토를 보전하는 것, 외교 정책을 통해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 또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전 세계의 안보를 지키는 것 등 좁은 의미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안보를 추구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정당한 관심은 무시되었다.”(전웅, 2004,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44(1), p.33 재인용)

일이 아니다. 그 이유로 첫째는, 인간안보의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 그 범위가 너무 넓어 UN기구나 관련 국가들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실천과제의 개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안보와 국가안보간의 충돌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을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반면, 인간안보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외형상으로는 모순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국가안보의 명목 하에 타 국민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안보의 노력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전웅, 2004:40~41)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MDGs 및 SDGs 등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공동규범 채택이 매우 힘들고,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인간안보의 결정적 위협요인인 빈곤감소가 더 이상 추상적 논의와 담론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이의 해결을 위한 국제 규범 및 목표 설정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2000년에 새천년개발목표(MDGs), 15년이 지난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새천년개발목표(MDGs) 실천규범의 채택과 이행

1)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채택과 기본가치

국제규범의 제정과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실천되기 시작한 것은 냉전 체제가 종식된 199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이념 대립에 의한 안보위협은 일정 해소되었지만,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the South)을 중심으로 빈곤과 기아, 질병 등 소위 ‘인간안보’의 문제가 전 세계적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이 이루어졌다.

1994년에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개념과 인간 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가 제시된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가 발간되었다. 1996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DAC)는 21세기개발협력 전략 국제개발목표(IDGs;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를 제시하였고, 유엔은 1997

년 ‘UN Development Assistant Framework’ 를 발표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다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국제사회 실천규범인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빈곤퇴치를 비롯한 여러 지구적 발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주도의 개발의제였다. 1998년에 UN의 주도 하에 밀레니엄포럼(Millennium Forum)이 조직되어 10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천여 개의 각종 조직 대표들이 참가하여 2년여 동안의 연구 끝에 세계의 빈곤퇴치, 환경보호, 인권보호 등의 이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2000년 3월 유엔 사무총장 Kofi Annan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엔의 역할을 제시한 보고서 ‘We the Peoples :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21st Century’ (일명 밀레니엄보고서(the Millennium Report))를 발표하였다(김호석 외, 2016). 이후 그 해 9월에 개최된 ‘새천년 정상회의’에서는 이러한 유엔과 회원국들의 의지가 담긴 ‘밀레니엄선언(the Millennium Declaration)이 채택된 것이다.

밀레니엄선언(the Millennium Declaration)은 21세기 국제관계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본가치로, ① 자유(Freedom) ② 평등(Equality) ③ 연대(Solidarity) ④ 관용(Tolerance) ⑤ 자연존중(Respect for nature) ⑥ 나누어진 책임(Shared responsibility)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김호석 외, ibid. :2-3)고 말하였다.

〈표 2-1〉 밀레니엄 선언(The Millennium Declaration)의 기본가치

가치	주요 내용
자유(Freedom)	빈곤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평등(Equality)	발전 편익의 고른 분배, 양성 평등
연대(Solidarity)	지구적 도전의 해결을 위한 비용의 공평한 분담
관용(Solidarity)	인간 상호 존중, 문화적 차이 존중
자연존중(Respect for nature)	생명과 자연자원의 현명한 관리
나누어진 책임(Shared responsibility)	전 세계 사회, 경제발전 책임 공유

자료 : 김호석 외(2016), Post-2015 개발의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 p.2-3 내용을 연구자 정리

MDGs는 세계 여러 국가들을 발전지역(developed regions)과 개발도상지역(developing regions)로 구분하고 개발도상지역을 다시 9개의 하부 지역으로 나누어 목표 적용과 성취도 측정을 하였다.

2)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이행을 위한 목표와 세부목표

MDGs는 ①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퇴치 (To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② 초등 교육 보편화(To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③ 성 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To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④ 아동 사망률 감소(To reduce child mortality) ⑤ 임산부 건강 개선 (To improve maternal health) ⑥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 퇴치(To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⑦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To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⑧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증진(To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등 8대 목표와 18개 세부 대상으로 구성되고 있다.

〈표 2-2〉 MDGs의 8대 목표와 세부목표·대상

구분	8대 목표	세부목표/대상
경제 복지	a)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1A. 1990~2015년간 1일 소득 1.25달러 미만 인구 비율 반감 1B.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일다운 일자리 제공 1C. 1990~2015년간 기아인구 비율 반감
사회 발전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2.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에게 초등 교육의 기회 제공
	3. 양성평등 및 여성 지위 향상	3. 교육에서 성별 간 차이 초·중등 교육 2005년까지, 모든 교육 2015년까지 제거
	4. 아동사망률 감소	4. 1990~2015년간 5세미만 아동사망률 2/3 감소
	5. 모성보건 증진	5A. 1990~2015년간 산모사망률 3/4 감소 5B. 2015년까지 출산보건에 대한 보편적 접근 확대
	6. 에이즈, 말라리아, 기타 각종 질병 퇴치	6A. 2015년까지 에이즈 확산 저지 및 감소 6B. 2010년까지 필요한 사람에게 에이즈 치료의 보편적 보급 6C.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 저지 및 감소
환경 보전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7A. 지속가능개발 원칙을 국가정책으로 통합 및 환경자원 손실 복원 7B.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억제 및 감소율의 현저한 저하 7C.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 비율 반감 7D. 2020년까지 최소 1억 명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여건 현저한 향상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8A.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 발전 8B. 저개발국의 특수한 문제 해결 8C. 내륙국 및 소규모 도서지역 개발도상국에 특수한 문제 해결 8D.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외채 수준 유지를 위한 개발도상국 외채문제의 포괄적 해결 8E. 민간 제약회사와 협력하여 필수약품의 개발도상국 제공 8F.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정보통신 등 신기술 혜택 확산

자료 : 권상철·박경환(2017),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의 이행 - 그 기회와 한계. p.66
〈표 1〉을 연구자 재구성

이중 1번부터 7번 목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측정 가능한 계량목표를 가지며 저개발국가 또는 개발도상국가에 적용되었으며, 하지만 8번째 목표는 질적 목표이고 선진 국가에 적용되었다. MDGs의 8개 목표와 18개 대상은 이전까지 개별적 문제로 취급되어왔던 각각의 개발분야(빈곤퇴치, 교육, 여성, 보건, 환경, 파트너십 강화) 목표가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의 수행을 추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권상철·박경환, 2017:74)고 말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MDGs은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의 후생증진, 평화와 안보, 인권과 민주주의, 환경 등 인류가 당면한 포괄적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한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즉, MDGs에 대한 낙관론자들은 이 목표가 인간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충분히 광범위하고 결과 지향적이며 간결하고 미래 지향적인 특성을 가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손혁상 외, 2014).

실제 2015년 목표이행 여부를 살펴보면, 8개의 목표 중 2개(1. 절대빈곤 및 기아종식,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은 목표달성, 4개 목표(3.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 6. 에이즈·말라리아·기타 질병퇴치, 7. 지속가능한 환경보장, 8. 전 지구적 개발 파트너십 구축)는 부분 달성에 도달했으나 4.영아사망률 감소와 5. 모성보건증진은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진단되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정정도의 성과를 확인하기도 하였다(<표 2-3> 참조).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성과획득에도 불구하고 MDGs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상존하였다. MDGs의 범위는 개도국의 빈곤 문제에서 한정되었고, 더구나 빈곤을 좁은 의미의 사회개발 의제로만 다루고 있어 빈곤 문제에 영향을 주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제 및 환경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데 한계가 있었다고(UN SG, 2013;황세영 외, 2016:3) 비판받기도 하였다. 즉 MDGs는 지형, 기후, 정치, 사회, 문화 등에 따른 빈곤의 다양한 양상을 구려하지 않은 채 소득 수준의 개선과 같은 획일적으로 단순한 차원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다루지 못했다(SDG MUN, 2015:5-6)는 것이다.

Antrobus, Eyden 및 Saith Pogge와 같은 급진주의 학자들은 “MDGs가 실질적인 이슈-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으며, 빈곤국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손혁상 외, ibid:249)고 주장하였다.

〈표 2-3〉 MDGs의 달성 전망과 대표적 지표의 변화

목표	달성전망	대표적 지표
1. 절대 빈곤 및 기아 종식	달성가능	1일 1.25달러 미만 생활 인구 비율 36\$(1990) → 12% (2015)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달성가능	초등학교 등록률 78.8%(1991년) → 90.5%(2015년)
3.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부분달성	초등학교 등록 성비 (여/남) 0.74(1990년) → 1.03(2015)
4. 영아사망률 감소	달성미달	최빈국 5세 이하 영아사망률 90/1000출생(1990년) → 43/1000(2015년)
5. 모성보건 증진	달성미달	산모 사망자수(10만명 출산 기준) 380명(1990년) → 330(2000년) → 210(2015년)
6. 에이즈, 말라리아, 기타 질병 퇴치	부분달성	인구 100명 당 에이즈발병률(새로 발병한 확률) 0.1(1990년) → 0.06(2010년)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부분달성	1인당 CO2 배출량(톤) 1.66(1990년) → 2.03(2000년) → 3.16(2010년)
8. 전 지구적 개발 파트너십 구축	부분달성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 12%(2000년) → 3.1%(2013년)

자료: UN (2015) ;김수진(2016); 권상철,박경환(2017),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의 이행 - 그 기회와 한계 p.67 재인용

나아가 MDGs는 수립 단계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부 관료와 전문가들에 의해 하향적이고 획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지적은 주로 NGO 측에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유엔은 NGO와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NGO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접근을 크게 제한(오경택, 2001;박한규, 2008:8)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 채택과정과 내용적 특징

1) Post-2015 논의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채택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MDGs에 대한 반성과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이른바 Post-MDGs 또는 Post-2015 논의는 2000년 세계 정상들의 열띤 호응 속

에서 탄생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종료 시한인 2015년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를 도출하는 과정을 일컫는다(김유진, 2012)는 것이다.

SDGs의 출발은 1992년 리우 지속가능발전회의의 20주년을 기념하여 2012년 6월에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The Rio+20회의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Post-MDGs를 겨냥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한데서 비롯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post-2015 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개발을 요청하였다. Rio+20회의에서는 이 문서를 토대로 국가 정상들이 모여 지금까지의 국제사회 의제를 어떻게 보다 발전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였다.

SDGs는 The Rio+회의 이후 3년간 국제 협력과정을 통해 개발되었는데, 17개 목표와 169개 타겟에 대한 공개 워킹그룹(Open Working Group)이 구성되었고 이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을 계속해왔다. UN은 2013년 5월 고위급 패널보고서인 「A New Global Partnership :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c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를 통해 Post-2015 아젠다의 핵심가치로 (1) 누구도 뒤쳐져서는 안 됨 (2) 지속가능한 발전이 핵심임 (3) 일자리 창출과 다함께 성장하는 경제로의 전환 (4)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구축과 효과적이고 개방적이며 책임감 있는 제도의 마련 (5) 새로운 글로벌파트너십의 형성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표 2-4〉 Post-2015 아젠다의 핵심가치

핵심가치	주요 내용
누구도 뒤쳐져서는 안 됨	민족집단, 젠더, 지리, 장애, 인종 등의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경제적 기회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핵심임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를 늦추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으로써 생산과 소비 패턴을 지속가능하게 변혁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다함께 성장하는 경제로의 전환	혁신, 기술, 기업의 잠재력을 동원하여 빈곤 근절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적 전환을 이룩해야 하며, 특히 청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환경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 구축과 효과적이고 개방적이며 책임감 있는 제도 마련	평화와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폭력, 갈등,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안녕해야 한다.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	인류의 공유와 호혜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대, 협력, 상호책임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자료 : 권상철박경환(2017),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의 이행 - 그 기회와 한계. p.70 내용을 연구자 재정리

2014년 12월 유엔 총회에 제출된 종합보고서 ‘The Road to Dignity by 2030 :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에서는 ‘지속가능하고 존엄한 미래를 위한 변혁’을 시대의 소명으로 제시하고, 존엄(Dignity)·사람(People)·번영(Prosperity)·환경(Planet)·정의(Justice)·파트너십(Partnership) 등의 6가지를 SDGs를 위한 필수요소로 제안하면서 SDGs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였다(UN SG, 2014; 황세영 외, 2016)는 것이다.

〈표 2-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요소

필수요소	주요 내용
존엄(Dignity)	빈곤의 퇴치와 불평등과의 전쟁
사람(People)	건강한 사람, 지식,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의 포용 추구
번영(Prosperity)	강력하고, 포용적이며, 혁신적인 경제성장
지구(Planet)	모든 사회와 어린이를 위한 생태계 보호
정의(Justice)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촉진과 강력한 제도
파트너십(Partnership)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연대 구축

자료 : UN, 2014 내용을 연구자 정리

마침내 2015년 7월 Post-2015 개발의제 채택을 위한 결과보고서 최종안 「Transforming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 작성·보고되었고, 같은 해 9월 25일 UN 총회에서 160여 개국 정상들을 포함해 193개 회원국 대표들은 만장일치로, 전 세계의 빈곤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승인되었다. 이 목표는 2016년 1월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내용과 관광정책과 연계성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최종보고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크게 <서문>, <선언>,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중점 사항>, <실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그리고 <후속 조치와 검토>의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권상철·박경환, 2017:73-75)는 것이다.

〈표 2-6〉 2030아젠다의 내용 구조

주요영역	주제	조항	주요 내용
서문			2030 아젠다가 사람, 지구, 번영, 평화를 위한 행동 계획임을 명시 (파트너십을 포함한 5P의 당위성 설명)
	서론	1-6	SDGs의 공식적 선언, 빈곤 퇴치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관계 명시
	비전	7-9	SDGs가 지향하는 미래 세계에 대한 비전 제시
	공유된 원리와 책임	10-13	2030아젠다가 UN을 비롯한 일련의 국제적 노력과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접근은 빈곤, 불평등, 환경,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적 포용의 상호의존성 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함을 명시
	오늘날의 세계	14-17	빈곤과 기아, 불평등 등 세계의 개발 문제 제시, MDGs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로운 목표 달성의 필요성 명시
	새로운 아젠다	18-38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17개의 지속가능개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의 당위성을 개별적으로 설명
	실행 수단	39-46	SDGs 달성을 위한 재원으로 ODA를 비롯한 공적자금의 확대와 아울러 다양한 민간 자원을 동원할 것임을 명시
	후속 조치와 검토	47-48	세부 지표 마련을 위한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확인
	세계를 바꾸는 행동에의 동참	49-53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전 인류의 동참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선언하고 독려
SDGs와 중점사항 (17개 목표와 169개 지표 시)		54-59	개별 국가의 현실과 정책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SDGs의 통합성, 보편성, 불가분성을 명시하고 세부 목표의 진척을 위해 회원국의 데이터 수집과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 지구의 생태계가 ‘어머니 지구’임을 명시
실행 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60-71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과 개별 목표의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국제적 지표 프레임워크, <아디아아바바 행동아젠다>를 구현하기 위한 매커니즘 구축을 명시
후속 조치와 검토	후속 조치와 검토	72-77	후속 조치와 검토에 대한 7가지 원칙 제시 ; ① 개별국가의 자발성 ② 이행사항 추적 ③ 장기적 관점의 필요성 및 개방성 ④ 우선 순위의 유연성 ⑤ 실행 증거에 대한 엄밀성 ⑥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 ⑦ UN 및 다자기구로부터의 지원 보장
	국가적 수준	78-79	SDGs를 국가 정책의 토대로 삼고 국가 하위 단위에서 진척을 지원, 포괄할 것을 제안
	지역적 수준	80-81	대륙 및 지역 간 토론과 상호 학습을 통한 지역간 협력의 필요성 제시
	글로벌 수준	82-91	고위급정치포럼을 통한 지속적인 후속 조치와 검토가 계속될 것임을 명시

자료 : 권상철·박경환(2017),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의 이행 - 그 기회와 한계. p.74

이 보고서의 <서문>에서는 2030 아젠다가 사람(People)·지구(Planet)·번영(Prosperity)·평화(Peace)·파트너십(Partnership) 등 이른바 ‘5Ps’를 위한 행동계획임을 명시하고 있다.

<선언>은 크게 서론, 비전, 공유된 원리와 책임, 오늘날의 세계, 실행 수단, 후속 조치와 검토, 그리고 세계를 바꾸는 행동에의 동참이라는 8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특히 <비전(vision)>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확보, 사회·경제·환경적 차원에서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모습과 2030 아젠다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

<표 2-7> 2030 아젠다에 제시된 미래 세계의 비전

주요 영역	바람직한 미래 세계의 모습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조건	공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
	문맹이 없는 세계
	양질의 교육, 의료, 사회적 보호에 대해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보장되는 세계
	깨끗한 식수, 상·하수도, 위생 설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세계
	안전하고, 값비싸지 않으며, 영양가가 있는 충분한 음식이 보장되는 세계
	안전하고, 값비싸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이 보편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세계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 영역	법, 정의, 평등, 무차별의 원리가 보장되는 세계
	인종, 민족 집단, 무차별의 원리가 보장되는 세계
	인간으로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고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기회 균등의 세계
	폭력과 착취가 없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세계
	모든 여성들이 어떠한 법적, 사회적, 경제적 장벽 없이 완전한 성 평등을 누리는 세계
	정의롭고 공평하며 관용적, 개발적, 포용적이어서 취약집단의 필요가 충족되는 세계
환경적 지속가능성 영역	모든 국가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누구나 일자리가 있는 세계
	공기, 토지에서부터 하천, 호수에 이르는 자연자원의 소비와 생산이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유지와 빈곤 및 기아 퇴치에 필수적인 민주주의, 좋은 거버넌스, 법률 등의 여건이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잘 갖추어진 세계
	개발·기술 적용의 적용이 기후에 민간하고, 생물종을 고려하며 회복력을 갖추고 있는 세계
	인간 존엄성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야생 및 기타 생명체들이 보호받는 세계

자료 : 권상철·박경환(2017),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의 이행 - 그 기회와 한계. p.75

이러한 비전을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총 17개 목표 169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SDGs의 17개 목표는 사회발전, 경제개발, 환경의 영역에 걸쳐있으며 SDG 16과 SDG 17은 이행 기제에 해당하는 목표이다. 목표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 목표이자 인간의 존엄성(Dignity)을 회복하는 방안은 MDGs와 마찬가지로 ‘빈곤의 극복’이다. 하지만 MDGs가 절대적인 빈곤 완화와 기아 퇴치에 초점을 두었다면 SDGs는 절대빈곤은 물론 상대적 빈곤을 포괄하는 ‘모든 형태의 빈곤퇴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사회발전 영역은 식량/농업, 보건, 교육, 젠더 및 주거 등 인간을 둘러싼 거의 모든 사회적 환경을 포괄하고 있다. 경제부분은 저성장과 실업, 경제적 불평등 등 개발도상국만이 아닌 전 지구적인 경제현안 해결을 위한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은 MDGs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에너지, 기후변화, 산림, 사막화, 토지황폐화, 해양자원 및 오염 문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행 기제인 목표 16과 17은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적 환경 및 거버넌스 구축, 지속적인 국제사회 파트너십의 재활성화가 주요 내용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는 부문별로는 17가지의 목표(goal)속에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다(부록 참조). 이들 목표와 세부지표들 중에서 관광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oal 8. 모두를 위한 지속적 · 포용적 ·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8.9 2030년까지 지역의 고유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진흥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Goal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11.4 세계의 문화 ·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Goal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12.b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표 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내용

SDGs	부문	목표	주체
총괄		(목표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빈곤
부문별	사회발전	(목표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 가능 농업 증진	식량/농업
		(목표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증진	보건/건강
		(목표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보장	교육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젠더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 조성	주거
		(목표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물/위생
	환경	(목표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에너지
		(목표 13)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기후변화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해양
		(목표 15) 육지 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 황폐화 중단과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환경
		(목표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노동
	경제발전 목표(1,2,17 도 관련)	(목표 9) 건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경제
		(목표 10)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완화	불평등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소비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 책무성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거버넌스
이행 기제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이행수단, 글로벌 파트너십



자료 : 황세영 외(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20을 연구자 재구성

Goal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

14.7 2030년까지 어업, 양식업, 관광업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통해 해양자원을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사용함으로써 군소도서개도국 및 최빈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한다.

비록 UNESCO 등 다자기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SDGs의 17개 세부목표에 ‘관광’ 부분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17개 목표 중에서 목표 8, 목표 11, 목표 12, 그리고 목표 14는 관광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었다. 목표 8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문화와 상품을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고안하고 실행하여, 2030년까지 달성토록하고 있다. 목표 12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양식을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영향을 감시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목표이며, 목표 14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 관광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하여 경제적 혜택을 증가시키는 내용이다. 목표 8, 12와 14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의 목표이외에도 14개 목표들이 관광과 불가분한 관계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유엔은 2017년을 지속가능한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해로 선포하였다.

3)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간 비교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개발협력의 목표와 지형 및 주제와 방법 모든 측면에서 대전을 요구하고 있다(이태주, 2016). 이에 새천년개발목표(MDGs)와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앞서서도 일부 언급되긴 했지만 MDGs와 SDGs의 차이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I-9>와 같다.

첫째, 목표의 보편성(Universal)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기존의 개발목표와 달리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이 MDGs와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즉 SDGs는 낡은 ‘North-South’ 시선에서 벗어나 모든 수준의 발전에 있어 국가들에 관련된 보편타당한 의제를 담고 있다(OECD, 2016). 일례로, MDGs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SDGs에 새롭게 포함된 ‘불평등 해소(Goal 10)’와 평화로운 사회 증진 및 제도 구축(Goal16)’의 경우는 범세계적인 남-북간 불평등

과 폭력 및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평화 유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적 빈부격차 및 폭력방지 등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도 실천해야만 하는 목표이다(안해정 외, 2016:35).

둘째, 목표의 종합성(Comprehensive)을 들 수 있다. 최종적으로 채택된 SDGs는 17개 목표(Goal)에 169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절대빈곤 퇴치를 중심으로 한 MDGs의 8개 목표에 비해 훨씬 넓은 영역에서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표 II-10 참조). 특히 MDGs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산업화, 일자리 창출, 국가 내·외의 불평등 해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SDGs의 주요한 특징이다.

셋째, 목표의 포용성(Inclusive)이다. SDGs의 핵심 기조가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인 것처럼 목표 설정의 논의 과정에서 전 세계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였다. MDGs의 경우 주로 선진국 중심의 소수 전문가 집단에 의한 탑다운(Top-Down) 형식의 결정이었으나, SDGs의 경우 193개국의 유엔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유엔기구,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 그리고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졌다(Honniball et al., 2014; 안해정 외, 2016:34 재인용). 특히 전 세계의 주요 시민사회단체(CSO)들은 2010년부터 ‘Beyond 2015’라는 캠페인을 통해 포스트-2015에 대한 자체적인 비전을 갖고 방향을 제시해 왔다(권상철·박경환, 2017:79)는 것이다.

〈표 2-9〉 MDGs와 SDGs간 비교

SDGs	MDGs	비교
Goal 1. 모든 지역에서 빈곤퇴치 Goal 2. 기아 해소, 식량안정성 확보 및 지속가 능 농업	Goal 1. 절대빈곤과 기 아퇴치	기아(hunger)와 식량문제, 양양상태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 함(왜냐하면 이 상황은 각기 다르고 지표 또한 다르기 때문임)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속가 능한 농업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포 함됨
Goal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과 웰빙 보장	Goal 4. 유아사망율 감소 Goal 5. 모성보건 증 진 Goal 6. HIV/AIDS, 말 라리아 등 질병퇴치	기존목표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몇몇의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 었다면 여기서는 포괄적인 내용이 포 함됨 그러나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한 어 려움이 발생함 (how의 문제)
Goal 4. 포괄적이고 공평한 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교육의 기회 촉진	Goal 2. 보편적 초등 교육 달성	초등교육을 넘어 모든 계층의 포용적 이고 공평한 교육을 언급
Goal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역량 강화	Goal 3. 양성평등 및 여성 능력 교양	내용 변화 거의 없음
Goal 6. 수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지속가능한 관 리 및 위생 관리 보장 Goal 7. 적절한 가격의 믿을 수 있고 지속 가 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Goal 11.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 속가능한 도시와 생활 환경 조성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보장 Goal 13.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조치(UNFCCC) Goal 1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해양 자 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 Goal 15. 생태계 보호, 복구 및 지속가능한 형태 의 활용 촉진, 삼림의 지속가능 한 관리, 사막 화 방지, 토지 황폐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의 중 단	Goal 7. 지속가능한 환경보장	아젠다 21, 코펜하겐 협약을 바탕으로 Rio+20에서 논의된 환경이슈가 대거 등장하고 세분화되었음 지속가능한 환경논의가 포함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Rio+20에서 살피본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등과 관련된 선 진국의 참여가 불확실한
Goal 8. 일관되고 포괄적인 지속가능한 경제성 장, 생산적인 완전고용 및 모두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 촉진 Goal 9. 회복력 있는 인프라 조성,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육성 Goal 10. 국가 내부와 국가 간의 불평등 감소	기존의 MDG에 포함 되지 않았던 부분	경제, 사회발전 및 통합부분이 추가로 포함됨, 즉 불평등을 감소하고, 단순한 일자리 양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함
Goal 16.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 괄적인 사회의 촉진, 모두에게 정의에의 접근 제공, 모든 레벨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이 있고 포괄적인 기관 설립 Goal 17.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실행도 구의 강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Goal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MDGs 실천 과정에서 파트너십이 성 공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으며, 이 를 반영한 목표

자료 : 지속가능발전포털(ncsd.go.kr/app/sub02/20_tab3.do)

2. 관광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와 의미

1) 관광과 지속가능발전간의 관계 : 개념적 접근

그 동안 관광산업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와 다양화를 경험하며, 기타 산업에 비해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고, 현재 세계 수출의 6% 및 세계 GDP의 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관광은 관광산업 자체는 물론 농업 및 건설, 더 나아가 수공업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산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후방 산업으로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은 일반적으로 타 분야에 비해 물, 에너지, 토지와 해양 및 해안개발 등 환경적 요인에 의존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는 온실가스 증대에 따른 기후변화는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관광개발에 의한 환경오염 및 동식물 서식지 파괴, 교통운송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 호텔 및 식음료점에서의 오페수 및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문제 등을 동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관광부문의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⁴⁾ 따라서 기존의 녹색성장 및 생태관광 활성화 등과 같은 추상적 개념에서 관광산업의 자원소비 감소, 대체에너지 사용, 에너지 고효율 장비 및 기기사용 등과 같은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이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은 미래세대의 관광기회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의 보전, 필수적인 생태적 과정, 생물다양성, 나아가 생물지원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심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지역사회 개발의 양식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3가지의 목표가 있다. 첫째는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둘째, 방문자 또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셋째는 지역사회와 관광객이 공히 의존하는 환경(생물·물리적, 사회·문화적)의 질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세계관광기구(WTO, 1993)⁵⁾에서 정의하고 있다.

WTO(1998)는 다시 지속가능한 관광은 지역사회에는 편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관광지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관광산업에 경제적 지속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10YFP 지속가능한 관광프로그램 관련 국제적 동향분석 및 아젠다 개발 연구.

5) WTO(1993),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Guide for Local Planners*

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관광과 관광지의 지역사회, 자연환경, 관광산업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관광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관광은 지역의 자연환경·역사·문화유산과 관련된 관광매력물에 크게 의존하므로, 이들 관광자원들이 훼손되거나 파괴되면 관광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김대관, 2001)⁶⁾. 2000년 모호크협약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은 “지역주민들과 해당국가에 경제적인 혜택을 주면서도, 생태 및 사회 문화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관광”으로 정의하였으며, 김성일·박석희(2001)⁷⁾는 지속가능한 관광은 다양한 요구의 균형점을 찾아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개념에는 환경적 의미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물론,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환경보전(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자원의 적극적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보전과 지역문화를 고려한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관광자원 이용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목표는 관광자원의 유지, 지역사회의 참여 그리고 관광객의 체험 등 3가지 요소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달성될 수 있으며, 질 높은 자연자원과 질 높은 관광경험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수익이 보장된다⁸⁾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하나의 분야가 아닌, 경제, 사회, 문화적 목적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며, 관광이 타산업과의 융복합되는 장점을 활용하고 적극적 개발보다는 적절한 개발을 통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6) 김대관(200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표연구, 한국관광연구원

7) 김성일, 박석희(200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일신사

8) 강신겸(2004), 지속가능한 관광실태 및 성공조건, 국토연구원

2) 관광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논의과정과 내용

국제사회가 관광분야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1960년대 전후로 국제 정부관광기구연맹(IUOTD)의 제15차 총회에서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은 지속적인 관광 발전을 위한 미래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촉구하고 자연관광자원의 파괴행위에 대하여 모든 회원국들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하였다(변혜원, 2015)⁹⁾

이후 UN세계관광기구(WTO)는 1980년 마닐라에서 세계관광회의를 개최하고 환경보전을 포함하는 마닐라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국제회의를 통해 관광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하는 당위성에 합의하였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서비스 및 제품의 수명주기(life cycle) 전체에 있어서 천연자원 사용량 감축과 폐기물 배출 절감을 의미하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SCP) 개념’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관광분야가 독립적인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이는 관광이 여러 산업과 많은 연관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김성일, 2011).

1995년 스페인 란자로메에서 개최된 국제관광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헌장(Charter for Sustainable Tourism)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1996년 세계관광기구(WTO)는 관광이 지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치로 보아 관광자원인 자연환경에 대한 이용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관광분야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감은 매우 크다고 언급하여 관광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원칙과 행동지침을 제시하였다(김동렬, 2000).

1999년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의 제7차 회의에서는 특별과제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원칙과 행동지침을 제정하고 각 정부가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다. 2003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및 유엔경제사회국(UNDESA)은 요하네스버그 실행계획의 후속 조치로 10년간 이행해야할 마라케시 프로세스를 추진하였다. 이 조치의 프로세스 중 지속가능한 관광개발(ITF-SDT)에 관한 국제 테크스포스(TF)는 2009년에 추진된 7개 분과 중 한 분야로서, 프랑스 정부가 담당하여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0년 5월 12일에는 전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을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가

9) 변혜원(2015),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표 연구 : 수용력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능하게 만들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미국 뉴욕에서 발족되었다. 뉴욕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회담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성공적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관광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해결도구와 프로젝트를 개발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리오(Rio)+20으로도 알려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Confere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는 지난 2012년 6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에 대한 10개년 계획(10YFP)’을 채택하였다. 이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가속하려는 범지구적 차원의 실천계획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11월, 관광 부문에서는 ‘10개년 계획의 지속 가능 관광 프로그램(10 YFP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 10 YFP STP)’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 하에 관광부문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글로벌 프로그램’이 수립되었으며, 각 사업별 추진방향 및 방식에 대해 국제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리오(Rio)+20정상회의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제안한 기여도를 평가하며 ‘전 세계 지속가능한 관광 10개년 계획’을 견인할 주도국으로 선정하였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및 유엔환경계획(UNEP)주관으로 ‘10YFP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국제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프로그램(STP)’의 공동의장국으로서 모범정책 사례 전파와 실효적 아젠다 제시 등 주도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 * 10YFP on SCP(10 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사업의 10개년 계획)이란?
- 선진국과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제협력 증진 범세계적 행동계획
 - 핵심 5대 사업:
 - ①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관광 포함) ② 지속 가능한 생활방식 및 교육
 - ③ 지속 가능한 정부 조달 ④ 지속 가능한 건설 ⑤ 소비자 정보

또한 UN은 2017년을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세계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로 선언하고 관광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할 등을 알리고 관광산업의 성장을 통해 국가, 지역사회, 민간의 협력을 구축하여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고자 하였다.

〈표 2-10〉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연혁

연도	내용
1960	IUOTO 15차 총회 ‘오염되지않은 자연환경은 지속적인 관광발전을 위한 미래의 자산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합의문 채택
1972	스톡홀름,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개최 인간환경선언 제정·선포, ‘생태적 개발(eco-development)’개념 등장 유엔환경계획(UNEP) 창설 결의
1980	마닐라선언,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시작
1987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브룬트란트 보고서 발간, 지속가능발전의 “미래세대의 욕구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
1990	Globe’90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실천전략 채택
1992	리우지구정상회의, 유엔환경개발회의 ‘지속가능발전’선언, 의제21작성 합의
1993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정의
1995	스페인 란자로데, 국제관광회의, 지속가능한 관광헌장 채택
1996	WTO, 여행과 관광산업을 위한 의제21채택, 원칙과 행동지침 제시, 포괄적 수준의 지표 제시
1999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UNCSD) 제7차회의, 특별과제로 지속가능한 관광 선정, 원칙과 행동지침을 제정, 각정부가 실행하도록 함
2002	요하네스버그 지구 정상회담(리우 +10) RTD(Responsible Tourism in Destinations)에서는 책임관광의 필요성 역설 유엔 ‘생태관광의 해’, ‘산악의해’로 지정
2003	제1차 기후변화와 관광에 관한 국제회의 ‘제브라선언(Djerbra Declaration)’
2005	지속가능성 추구하는 관광밀레니엄 개발목표에 관한 선언 : 정책수립을 위한 지침서(UN 환경프로그램- 세계관광기구 2005) 12가지 목표
2007	제2차 기후변화와 관광에 관한 국제회의 다보스 선언(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온실가스 배출 완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관광산업 및 관광목적지에 대한 적응과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 및 기존 기술을 적용한 내용 명시). 발리선언
2008	이비사선언(세계유산, 관광과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생태적, 문화적 다양성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무책임한 관광활동 대응 등)
201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뉴욕) 5월 12일 글로벌 이니셔티브 발족 요하네스버그 T20장관회의
2012	제90차 OECD 관광위원회, 리우+20 정상회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에 관한 10개년 프레임워크 권고
2013	UNEP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리우+20결과문서에 포함시킨 대한민국의 기여를 인정하고 후속사 업에 대한 공동추진을 요청함
2014	문화체육관광부와 UNEP가 향후 10년 관광의 청사진 ‘지속가능관광에 관한 글로벌 프로그램’ 마련을 공동추진하는 내용의 MOU체결 UNEP는 ‘10 YEP지속가능한 관광사업 관련 아태지역 컨설팅회의’ 개최(부산) : 제4차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에 관한 국제파트너십 컨퍼런스 및 연석회의

자료 : 변혜원(2015),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표 연구 : 수용력을 중심으로, 재인용

3) 관광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논의와 한계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광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유형으로써 생태관광 및 녹색관광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표방하면서 생태 및 녹색 관광정책과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이미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논의에 머무르고 있으며, 여전히 도입가능성이나 개념 자체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다. 또한, 정책이나 제도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표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를 갖추지 못하거나 미흡한 실정이다.¹⁰⁾ 그리고, 지속가능한 관광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공통적인 목표를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환경보전과 지역발전, 그리고 나아가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 지역사회, 환경단체의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되지 못해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의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타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의 이행노력은 감히 경쟁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치열하게 정책 의제로 삼고 있다. 관광분야도 세계관광기구(UNWTO)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목표 및 지표가 단순히 양적성장을 대변하는 관광객의 인바운드 수에 한정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10) 국토연구원(2004), 지속가능한 관광실태 및 성공조건.

3. 국내외 관광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사례

1) 국외 사례¹¹⁾

(1) 모로코

□ 추진배경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의 10YFP 완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회의가 2003년에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바 있듯이, 모로코는 오래 전부터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모로코에서는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0년이 되면 모로코 수자원의 10~15%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 나아가 모로코는 자연환경 및 기후의 영향으로 인해 영토의 87.4%가 사막화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환경파괴에 의해 사막화가 확산될 경우 모로코 경제와 고용시장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 부문 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모로코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의 10YFP 완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회의가 2003년에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바 있듯이, 모로코는 오래 전부터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또한 한국 및 프랑스와 함께 10YFP 지속가능한 관광프로그램의 공동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모로코 정부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한 환경헌정을 제정하고 사막화 방지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수자원 보호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지속가능프로그램 정책 추진 동향

모로코는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는 에너지의 공급을 해외 수입으로 해결하는 문제

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YFP 지속가능한 관광프로그램 관련 국제적 동향 분석 및 아젠다 개발 연구, 2015에서 재정리

때문에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등 에너지 문제가 국가의 중대한 사안으로 대두되자, 정부는 재생 에너지 개발을 핵심 과제로 채택하였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자원의 희소성,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 지구 온난화 문제와 같이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절감 정책도 동시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관광지 개발 시 친환경성 제고는 물론, 개발에 따른 국토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숲 가꾸기 등 환경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10개 국립공원 건설을 통해 친환경적 도시 조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클린 비치(Clean Beach) 캠페인을 통해 해변 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욱 주목할 만 한 점은 모로코 친환경 관광개발 사업의 특징은 대부분 정부 주도 하에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2) 프랑스

□ 추진배경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자원 고갈 등의 위기에 직면한 심각한 상황은 아니나 유럽과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 절감과 탄소배출량 감축과 관련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독자적으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5% 감축하는 신규 목표를 수립하고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사회 건설을 위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프랑스에서 에너지 절감 정책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며, 유럽연합(EU)과는 별개로 프랑스 독자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 한 상태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지속가능프로그램 정책 추진 동향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계획을 설정한 법률 제2005-781호(The energy law of 2005, no 2005-781)’의 도입에 따라 프랑스는 에너지 국가전략, 에너지 절감의 추진, 재생에너지의 도입 촉진, 에너지 배송 네트워크의 정비 및 향상 등을 포함한 종합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생물다양성 보존

및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운송 및 교통 분야에서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의 20%를 감소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교통수단 중에 기차의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철도운송 개선사업에 연간 4억 유로를 투입하며, 2020년까지 2,000km의 고속전철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EU)과 함께 에너지 사용량 절감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및 가전 등 에너지 소비기기 등에 대한 에너지 라벨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풍력발전시설의 개발은 장려하지만 자연경관 보호 차원에서 풍력발전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지구를 지정해주고 있으며, 풍력의 잠재력, 전력망 연결가능성, 자연경관, 문화재 보호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지정하고 있다.

(3) 캐리비안

□ 추진배경

캐리비안 지역의 관광산업은 국내총생산(GDP) 비중의 14%를 차지하고 일자리 창출은 11.3%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의 전망에 따르면 2024년에는 12.2%로 증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캐리비안의 2,300개 호텔들은 대부분 중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약 3백만 톤의 카본을 배출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지속가능프로그램 정책 추진 동향

캐리비안 지역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 및 여건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시행한 결과 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5% 감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바하마 및 바라도스는 캐리비안 관광의 현대화를 목표로 에너지 효율성제고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및 관광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해양관광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캐리비안 지역은 지구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의한 기후변화 시 관광사업은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인 바, 10YFP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시행 전부터 에너지 및 폐기물 배출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또한 캐리비안 지역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 및 여건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시행한 결과 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5% 감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국내사례

(1) 서울시

□ 추진배경

2012년 리우+20 이후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새천년발전목표(MDGs)를 이어받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논의 진행됨에 따라 글로벌 국제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는 시정주요정책을 환경·경제·사회 등 통합적 관전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였다.

이에 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발전을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의 핵심운영 원칙으로 확립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의 사전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설치 조례를 2013년 5월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3년 9월 총 40명의 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지속가능발전 현황분석, 비전·목표·전략 및 정책방향 설정, 시정전반의 체계적 평가 관리를 위한 지표개발, 실행력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30개 지표, 2030년까지의 목표를 수록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2017년 1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4월 수립하였고, 11월 서울형 목표와 세부목표인 서울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을 발표하였다.

이 중 서울 SDGs 2030은 첫째, UN SDGs 방향성을 준용하면서 서울의 특성 살리기, 둘째, 시스템구축 등 거시적 목표 중심 설정, 셋째, 정량적, 정성적 목표로 작성, 넷째, 국가적 목표는 서울시 이행수단을 고려하여 재정립, 다섯째, 유사한 세부목표는 통합 조정 등을 원칙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5년)

2015년에 수립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성을 서울시정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각 분야별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통합적 시각에서 각 분야의 상호연계성을 인식·조정하고 거시적 시각에서 시정 목표 달성을 강조한 중장기 계획이다.

이 계획의 역할은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서울시

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본계획의 수립과정 및 추진상황 공유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에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비전은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로 설정하고 환경분야, 사회문화분야, 경제분야 등 총 3개 분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계획은 총 12개 전략 2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비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환경	사회문화	경제
목표	회복력 증대와 쾌적한 환경 조성	사회적 형평성 및 문화적 활력 제고	창조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전략 (12)	01. 세계적인 기후보호 선도도시로 도약 0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조성 03.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푸른도시 조성 04.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01. 양극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02.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 03.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04.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	01. 창조경제 중심도시 조성 0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03. 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 04. 사회적 경제 확대와 산업 다양화

〈그림 2-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내 관광전략 및 과제

서울시는 관광과 관련하여 환경, 사회문화, 경제부문 등에서 세부과제를 통해 관광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서 관광에 대한 전략 및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제부문 전략 3에서는 글로벌 경제도시 조성 중 ‘서울형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라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방향으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한류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활성화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는 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명소화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의 개발, MICE 중심도시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 조성, K-pop 및 K-drama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류관광의 활성화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전략 03	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
과 제 6	서울형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한류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
사업	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명소화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
	MICE 중심도시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한다.
	K-pop, K-drama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여 한류관광을 활성화한다.

〈그림 2-3〉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내 관광관련 과제

환경부문에서는 전략 03에서는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푸른도시 조성에서 관광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과제7로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와 과제8로 도시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문화부문에서는 전략 04에서는 문화생태계조성 및 활동기획의 과제 9로 다양한 문화활성화를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과 과제10으로 생활주변의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평가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사회·환경·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통계적 방법으로서 지속가능성 달성 현황 및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지표는 환경, 경제, 사회 등 각 지표가 상호연계성을 중시하며, 상이한 분야간 의사소통 촉진 및 정보제공수단으로 활용하며, 서로 다른 발전요소간 상호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 수단으로 필요성을 갖고 있다.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관광 분야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면, 외국인 관광객수를 주요 지표로 삼아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2020년, 2030년까지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표 2-11〉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관광분야

분야	키워드	지표	산출방법	기준 연도 (2010)	현황 (2013)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경제	글로벌 도시	외국인 관광객 수	연간 방한 외국인 관광객수 × 서울방문율(연도에 따라 조정)	707만명	985만명	2,000만 명	3,000만 명

또한, 서울시에서 관광분야와 유사 및 관련성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살펴보면 환경분야에서 한강방문시민수와 사회문화 부문의 문화환경 만족도, 마을형 문화공간수 등을 꼽을 수 있다.

〈표 2-12〉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관광관련 유사 분야 지표

분야	키워드	지표	산출방법	기준 연도 (2010)	현황 (2013)	목표치 (2020)	목표치 (2030)
환경	쾌적한 도시환경	한강방문 시민 수	문화 스포츠 행사, 체험 프로그램 참여, 시민공원 방문 시민수	684만명(12)	944만명	1,150만명	2,000만명
사회문화	문화생활	문화환경 만족도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비용 등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조사	5.93점	6.41점	7.10점	8.0점
		마을형 문화공간 수	마을예술창작소, 우리동네 북카페, 미디어센터 등의 수	11개소(11)	135개소	375개소	1000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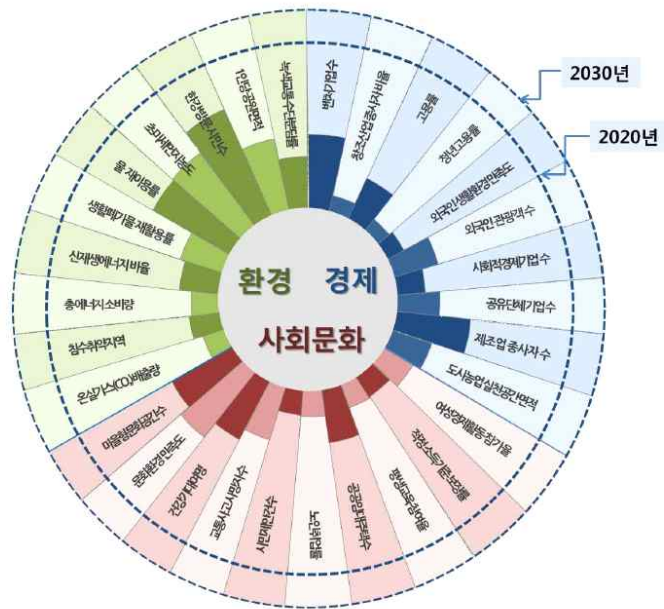
서울시는 서울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시만의 독창적인 평가모델로서 수레바퀴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수레바퀴모델은 지표의 목표달성도를 통해 구체성을 강화하고 정책적용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레바퀴모델은 지속가능발전의 지표가 각각 목표치를 달성하여, 원 모양에 접근할수록 지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환경·사회문화·경제의 통합적 관점에

서 어떤 지표가 목표치에 얼마나 접근하였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 원둘레 점선 : 각 지표의 2020년, 2030년 목표치
- 바퀴살 끝부분 : 목표치(2020년) 대비 현재 달성도(2013년 현황)

※ 달성도 = {(현황-기준연도)/(목표연도-기준연도)}*100



〈그림 2-4〉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내 수레바퀴 모델

2018년 기준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발표하고,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SDGs의 지표와 이행점검 및 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30 지표 선정 및 평가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지표선정은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와 UN의 SDGs의 목표 및 지표에 부합하는 지표와 평가방안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인천시

□ 추진배경

인천시에서 도시발전을 위하여 교통, 문화, 복지, 지역경제, 도시공간구조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범실천사업을 통해 인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작성된 인천의제21은 문화, 자원순환, 물·생태, 지속소비분야 실천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UN SDGs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지표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 인천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내 관광전략 및 과제

인천시는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교육, 홍보 등) 및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및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자 문화, 사회복지, 산업·노동, 주민자치, 성평등, 도시계획, 대기, 자원순환, 물·생태, 지속소비분야 실천계획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관광과 관련한 주요지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문화, 하천, 해양 등에서 관광과 관련된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2-13〉 UN SDGs와 인천의제21 연계

UN SDGs	분야	의제명	주요지표
교육	문화	시민이 만들어 가는 열린 문화 공동체 인천	- 시민의 문화 관심 및 접근도 - 개인의 문화역능 발현 정도 - 타자에 대한 나눔과 소통의 정도
물	하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 복원하천(굴포천, 승기천) 여종 - 습지조성(신설) -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
해양생태/자원	해양	아름다운 섬과 되살아나는 갯벌	- 습지보호지역 지정

□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의 발전 지표

인천시 부평구는 2014년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57개를 개발하였다. 이 지표는 2012년 지표연구 이후 후속연구를 통해 분야별 지표 논의 및 수정·보완하여 지표를 최종 선정하였다.

관광과 관련해서는 전략1에서 문화가 함께하는 부평 중 문화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광활성화를 단위과제로 하여 문화행사 수 및 관람인원 증가율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표 2-14〉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관광분야

전략	단위과제	지표
전략1. 문화가 함께하는 부평	1-2. 문화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광 활성화	문화행사 수 및 관람인원증가율
	1.3 다함께 흥겨운 품물도시	지역축제 참여도 및 만족도

(3) 광주시

□ 추진배경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1세기 세계적문제의 국가단위대응을 위한 핵심전략이며, 국제협력, 소통 및 합의이행의 공통적인 필수 정책 및 평가도구이다. 이 계획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및 경제·산업계획을 통합하여 지속 가능발전의 비전과 체계를 제시하는 상위의 종합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비전 및 전략, 이행계획 및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으로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광주시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내 관광전략 및 과제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지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형평성,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통합, 그리고 지구촌구성원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정책 목표들을 ‘100년 광주’를 위해 환경·경제·사회를 토대로 하여 SDGs 실행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따라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 형평성(경제

적 형평성)과 복지(대상별: 어린이, 여성, 장애인, 노인), 건강, 문화적 향유, 교육, 안전 등을 제시하였다. 세부영역(분야)으로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강화(지속가능성 + 빈곤 + 형평성 + 자립)’, ‘건강·안전기반녹색복지 실현(지속가능성 + 복지 + 에너지 + 건강 + 안전)’,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지속가능성 + 다양성+ 삶의 질 + 공동체)’, ‘지속가능한 교육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지속가능성 + 평생교육 + 불평등 완화)’ 등 사회적 지속가능성 정책범주로 선정하였다.

이 중 관광지표와 관련하여 공동체회복 및 삶의 질 향상 중 대표축제를 통한 공동체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의 이행평가를 위한 지표는 문화예술 동아리 재능기부자 수,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참여율, 생활체육프로그램 수와 참여자 수로 제시하고 있다.

〈표 2-15〉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관광분야

전략	단위과제	지표
3-3.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	3-3-1 대표축제를 통한 공동체 강화	문화예술 동아리 재능기부자 수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참여율 생활체육프로그램 수와 참여자 수

제3장 SDGs과 연계한 관광 분야의 지표분석 및 충남의 관련 정책분석

1. 관광분야 지표 및 정책과제 선정방법

1) 관광분야 지표 선정방향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에 비록 관광 분야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저성장의 국면과 포용적 성장의 대두라는 ‘시대적 환경’ 과 인간안보의 보장이라는 ‘국제사회의 과제’를 비추어 보았을 때 ‘문화’와 ‘관광’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관광분야 또한 국가 및 글로벌 사회 발전, 특히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관광 정책의 나아가할 방향, 경제적 효율성·환경보전·사회적 안정 등 지속가능발전 기초의 반영과 성취를 측정할 수 있는 관광 분야 지표의 개발, 그리고 관련 정책과제의 도출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SDGs에 대응하는 관광 분야 정책 지표와 관련 정책과제 제안 목적은 SDGs의 목표에 비추어 관광 관련 정책적 행위를 유도·평가·관리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방차원의 구체적인 지침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때 지표 및 정책과정 선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SDGs와 관광 분야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SDGs의 17개 목표 범주에 입각해 관광정책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하고 세부 분야를 설정한다. 제1목표인 ‘빈곤’부터 제17목표인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이르기까지 SDGs의 모든 목표들은 문화 분야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물 환경’, ‘대기’ 등 관광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분야의 목표들은 범주에서 제외한다.

둘째, 지표와 과제는 문화·관광과 같은 문화체육관광의 소관 정책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관광 관련 정책 행위까지 포괄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관광’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는 매우 복잡적이다. 우선 관광은 그 자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단이자 동력(driver)이 될 수 있다. 관광과 같은 창조적인 활동 자체가 지속가능발전

을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서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유 영역이 상당부분 포함된다 할 수 있다. 다음은 가능자(enabler)로서 관광으로 타 분야 정책에 ‘관광적 요소’를 수용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의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체계적·객관적 방법을 통해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관광분야 지표와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관광 관련 국내연구논문 혹은 정책보고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관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규범과 관련 자료집의 경우 매우 추상적·포괄적·선언적인 수준의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표나 정책과제에 대한 언급은 미흡하다.

따라서 관광과 지속가능에 관한 국제규범과 우리나라 관광정책 관련 연구보고서를 종합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지표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관광 관련 지표 및 정책과제 선정 방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지표 및 정책과제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은 얼마나 합리적·객관적으로 지표를 선정하느냐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지표설정 방법은 없으며, 다만 객관성을 어떻게 최대한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이용우 외, 2003)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의 정책적 환경, 특히 관광 분야 정책 환경에 부합되고 시의적절하며 중장기적으로 관리 및 추진되어야 할 지표와 정책과제 선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관광 관련 지표 및 정책과제 선정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회의와 규범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과 정부 정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관련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를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2. 관광분야 지속가능 지표와 국제 지속가능 관광지 기준

1) 국제적 지속가능한 관광의 추진¹²⁾

(1) 국제적 배경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정상회담에서는 2015년 이후에 추진할 포스트 2015 개발 의제(Post-2015 Development Agenda)를 채택하도록 촉구하였다. 2015년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획기적인 시점으로 포스트 2015 개발의제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적 협약을 통해 수립된 것이므로 지속가능한 미래의 실현을 위한 강력하고 인간 중심의 주제로 평가되었다.

UN정상회의에서는 새로운 개발 의제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에 대한 정부 간 공개작업그룹(Open Working Group ; OWG)에서는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포함하는 안건을 제시하였다.

관광부문에서는 물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의 확대,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사용 등이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지난 60년 동안 국제관광 교류의 점진적 활성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은 성장과 다양화를 경험하며, 기타 산업에 비해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현재 세계 수출의 6% 및 세계 GDP의 9%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UNWTO) 분석 결과, 국제관광 도착객수는 1950년 2,500만 명에서 2014년 11억 3,50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30년까지 18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관광은 관광산업 자체는 물론 농업 및 건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수공업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연관 산업에 대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는 관광산업의 1개 일자리가 기타 산업의 1.5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노동력의 60~70%는 25세 미만 연령의 여성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12) 본 절의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 배경 부문’은 유엔환경계획(UNEP) 산업 및 경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부(Industry and Economics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Branch) 정책 담당자인 Helena Rey가 작성한 것을 재인용

이와 같은 관광산업 및 투자의 가파른 성장세와 높은 경제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때문에 관광은 저개발국가와 도서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경제 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관광은 저개발국가의 제 1 혹은 제 2 수출 소득원이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가장 큰 외화수입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광의 경제파급효과는 경제피라미드 최하층에 위치하는 소상공인들의 소득 창출과 국가 빈곤퇴치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경제적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다만 관광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성장의 이면에는 물, 에너지, 토지 등 천연자원 고갈, 물 및 공기의 오염, 해양 및 해안 개발 등으로 인한 물리적 영향도 발생하므로 관광분야는 자연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빈곤퇴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책임도 동반된다¹³⁾는 점을 알아야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현재의 관광산업 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는 154%, 온실가스 배출은 131%, 물소비는 152%, 고형폐기물은 25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이 관광은 대부분 자연환경에 기반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광개발이 진행되고 관광산업이 성장할수록 천연자원에 대한 소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결과적으로는 자연 및 문화유산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¹⁴⁾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자연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관광산업이 성장할수록 난개발과 에너지 사용과 탄소배출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는 관광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관광산업이 성장할수록 난개발과 에너지 사용량 및 폐기물 배출이 증가함으로써 천연자원 및 수자원 고갈과 자연환경 파괴가 연쇄 발생하여 관광산업이 후퇴하는 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발달을 통한 국제관광 교류 활성화, 세계 경제성장, 저개발국 및 도서 개발도상국의 소득 증대, 빈곤퇴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에너지 사용

13) 유엔환경계획(UNEP)은 ①물, 에너지, 토지자원 소비와 관련된 천연자원 고갈, ②물, 공기 및 고형폐기물 오염, ③건설 및 개간, 해양 및 해안 개발, 선박 정박 및 관광객 활동에 따른 물리적 영향 등을 관광지 개발의 3대 핵심 영향으로 제시함

14) 관광은 전 세계 탄소배출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지구온난화에도 일조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관광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분야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관광지가 기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후변화는 관광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절감 및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의 실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녹색성장 및 생태관광 활성화 등과 같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관광산업의 천연자원 소비 감소, 대체에너지 사용, 에너지 고효율 장비 및 기기 사용 등과 같은 구체적 이행 방안 수립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카리브해 지역에서 운영 중인 2,200개 관광호텔이 에너지 고효율의 냉장고, 에어컨, 조명 등을 사용할 때 전기 사용은 11%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310만 톤 감축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카리브해 지역 관광호텔들이 전기에너지 사용을 절감할 경우 연간 7억 달러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목표와 지표를 선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2)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논의 경과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서비스 및 제품의 수명주기(life cycle) 전체에 있어서 천연자원 사용량 감축과 폐기물 배출 절감을 의미하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 SCP) 개념’이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본 회의 결과로 채택된 ‘Agenda 21’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비패턴의 변화’가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지구환경의 악화를 방지하는 방안은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의 정착이라는 점에 각국 정상들이 합의하였다.

1994년 오슬로 심포지엄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전 세계인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위기로부터의 미래세대 보호를 위해서는 서비스 및 제품의 수명주기 전반에서 자원사용 및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천연자원과 독성물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002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 정상회의

(WSSD, Rio+10)에서 세계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10YFP 수립에 합의하고 ‘요하네스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¹⁵⁾ 이 회의의 주요내용은 사회의 소비 및 생산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필수적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 이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요하네스버그 실행계획(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JPOI)은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과 국제적 형평성 확립을 위해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을 포함¹⁶⁾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및 유엔경제사회국(UNDESA)은 요하네스버그 실행계획의 후속조치로서 10년 간 이행해야 할 ‘마라케시 프로세스’ 수립을 추진하였다.

마라케시 프로세스에서는 주요 의제별로 정부, 기업,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인식제고 및 정책정보 공유,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마라케시 프로세스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위한 구체적 정책 실행 방안 등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으나, 유럽지역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어서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저조했던 한계가 존재하였다.

〈표 3-1〉 마라케시 프로세스 주요 내용

[공공정책 프레임워크]

1. 생산성 및 비즈니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 환경, 사회의 통합 발전
2. 사전 예방의 원칙, 오염자 부담원칙 등의 환경원칙 수립
3. 업종별로 특화된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을 위한 정책 수립
4. 환경비용 및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 방안 마련

[정책 수단]

1.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 제거 및 환경친화적 보조금 촉진
2.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에 관한 모니터링과 평가
3. 환경관리회계 촉진
4. 에코라벨링 및 에너지 라벨링 보급
5. 지속가능한 제품 디자인 촉진
6. 통합제품정책 촉진
7. 청정생산 강화 등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Global Environmental Policy」제98호 내용 인용

15) 10YFP 실행계획을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며, 경제발전과 환경을 연계한 고려를 통해 생태계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함

16)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서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에 대한 실행 계획이 처음으로 포함됨

마라케시 프로세스 중 지속가능한 관광개발(ITF-SDT)에 관한 국제 테크스포스(TF)는 2009년에 추진된 7개 분과 중 한 분야로서, 프랑스 정부가 담당하여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마라케시 프로세스 참여 국가별 담당 TF분야는 아프리카 협력, 제품, 생활, 관광, 건축, 소비 및 교육, 조달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표 3-2〉 마라케시 프로세스 참여 국가별 담당 TF 분과

국가	독일	영국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담당 TF 분야	아프리카 협력	제품	생활	관광	건축	소비, 교육	조달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Global Environmental Policy」제98호 내용 인용

2010년 5월 12일에는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을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미국 뉴욕에서 발족되었다. 뉴욕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회담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성공적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본 국제적 협력은 정책적 권고 사항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해결도구와 프로젝트를 개발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Tourism)은 초기에는 프랑스 정부가 주도했으며, 이후에는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주관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코스타리카(Costa Rica)에서 개최된 1차 연례회의 전까지는 프랑스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후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UNEP 기술 산업 및 경제부(DITE: Division of Technology, Industry and Economics)가 담당하였다.

글로벌 파트너십에는 유엔 산하 기구를 비롯해 각 국가의 정부, 관광협회 및 환경단체 등 다양한 관련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파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 및 유엔세계관광기구(UN World Tourism Organization)를 비롯하여 35개 국가와 기관, 유엔 산하 기구, 그리고 전문가 등 다양한 파트너들이 참여하였다. 본 국제협력의 목표와 활동 세부사항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테크스포스(International Task Force o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에서 수립된 내용에 기

반하고 있다. 지속가능 관광산업을 위한 국제 태스크포스(International Task Force o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는 프랑스 정부의 주도 하에 3년간 운영하였다.

태스크포스에서는 정부와 현지 코디네이터, 금융기관 및 관광산업 종사자들에게 자연과 문화, 사회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모범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이끌고자 일련의 정책 권고사항들을 개발하였다.

전 세계의 4,500개의 각 산업별 모범사례에서 관광산업 부문에 적용 가능하도록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글로벌 규범(Global Sustainable Tourism Criteria)을 수립하였다.

〈표 3-3〉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 경과

회의명	연도	장소	회의 의제
UN 환경개발 회의	1992	리우데자네이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오슬로 심포지엄	1994	오슬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이행 방안
지속가능한 관광 국제 컨퍼런스	1995	란사로테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란사로테 선언
	1996		여행 및 관광산업을 위한 아젠다21 : 환경적인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추진
생태관광에 대한 환경부 장관 회담	1997	베를린	생물종 다양성 및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베를린 선언
UN 지속가능한 개발 위원회 회의	1999	뉴욕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협력
최빈국 대책을 위한 UN 컨퍼런스	2001	브뤼셀	브뤼셀 이행 계획
WSSD, Rio+10	2002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행 계획
마라케시 프로세스 미팅	2003	마라케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생물다양성 컨퍼런스	2004	쿠알라 룸푸르	생태관광 개발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CDB) 가이드라인
UN 군소 도서개발국 컨퍼런스	2005	마우리티우스	군소 도서개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이행 프로그램 개선
UNEP 회원국 회의	2006	두바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국제 TF 출범
기후변화 및 관광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2007	다보스	다보스 선언
UN지속가능 발전회의, Rio+20	2012	리우데자네이루	우리가 원하는 미래
	2013		10YFP 지속가능한 관광프로그램 제안

‘더욱 지속가능한 관광 만들기 : 정책 수립을 위한 지침서(UN환경프로그램 - 세계 관광기구 2005)’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12가지 목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 경제적 지속성 : 대상지역과 사업체가 경쟁력과 지속성을 갖추고 있어서, 사업에 따른 혜택이 장기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
2. 지역의 발전 : 관광객들 지출의 일정부분이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광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적 혜택을 최대화되도록 한다.
3. 고용의 질 : 관광 사업의 유치를 통해서 창출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주민들에게 보장한다(급여 수준, 서비스 조건, 성별, 인종, 신체장애 등에 대한 차별 금지 등).
4. 사회적 형평성 : 저소득층에게 고용 기회, 임금 및 고용 서비스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등, 관광 사업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적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한다.
5. 방문자 만족도 : 성별, 인종, 신체적 장애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방문자들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6. 지역주민들의 참여 : 관광 사업의 관리와 향후 개발을 위한 계획이나 의사결정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7. 지역주민들의 참살이(Well-being) :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 구조, 접근성, 편의 시설, 생활보장제도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 타락이나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8. 문화적 풍요 : 그 지역의 역사적 유산이나 근거가 입증된 지역의 문화와 전통 및 지역 사회의 특색을 존중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9. 물리적인 통일성 : 도시 및 전원의 경관을 보존, 향상시켜야 하고, 물리적, 시각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10. 생물 다양성 : 자연 지역,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를 보존해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11. 자원 효율성 : 관광 시설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의 희소성이 높은 자원이나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12. 환경 정화 :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뿐만 아니라, 관광 사업자나 방문객들에 의해 발생하는 쓰레기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2)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 국제 지속가능 관광지 기준

(1) 개요

국제지속가능관광기준은 지속 가능한 관광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관광관리기관이 도달하기 위해 지향해야 하는 최소한의 일들을 의미한다.

지속 가능한 관광의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표를 포함하는 학제적이며 거시적이고도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관광지 관리증명, 둘째, 관광지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셋째, 지역사회와 방문자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편익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넷째, 환경에 대한 편익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등이다. 이러한 기준은 모든 유형 및 규모의 관광지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기준은 유엔 새천년 개발목표의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관광부문의 부응책 중 일부분이다.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빈곤 퇴치, 성평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이 이 기준에서 다루지는 주요 교차 주제들이다.

이 기준과 지표는 UNWTO 관광지 수준 지표, 호텔 및 관광업체를 위한 GSTC 기준, 그 외 널리 채택되고 있는 원칙과 지침 그리고, 인증 기준 및 지표들과 같은 이미 인증된 기준들과 접근법들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 기준과 지표는 관광 및 관련된 다른 부문들에서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적 지정학적 상황에서 도출된 인증 표준, 지표, 기준, 그리고 모범사례들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의 잠재적 지표들은 광범위한 관광지 유형에 대한 적용가능성뿐만 아니라 타당성과 실현성의 측면에서도 검토되었다. 국제지속가능관광기준은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관광관리기관은 이 기준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목표가 성취되었는지가 아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역할은 국제지속가능관광 관광지 기준의 필수적인 보완이 되는, 공공부문, NGO, 그리고 민간부문 공급자들의 실행에 대한 성과지표, 관련 교육자료, 그리고 실행수단으로의 접근 등에 의해 실현 된다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더 지속가능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광지들을 위한 기본 지침
- 소비자들이 건전한 지속가능관광지를 확인하도록 지원
- 정보매체들이 관광지를 인식하고 대중에게 이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공통분 모로서 역할
- 인증 및 다른 자발적 관광지 레벨 프로그램들의 표준이 광범위하게 채택되는 기준선을 충족시키도 록 지원
- 정부, 비정부, 민간부문의 프로그램들에게 지속 가능한 관광의 요구사항들을 개발하기 위한 출발점 제공
- 호텔 학원이나 대학교 같은 교육훈련기관들을 위한 기본 지침으로 역할

국제지속가능관광 관광지 기준은 지속가능성이 모든 형태의 관광에 있어서 표준관 행이 되도록 하는 과정의 시작으로 구상되었다.

(2) 적용

국제지속가능관광 관광지 기준이 적용이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제공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준을 최대한 실용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지역의 규 제사항, 환경적·사회적·경제적 또는 문화적 상황에 따라 이 기준이 특정 관광지나 관 광지 관리기관에 적용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소규모의 관광지나 지역사 회의 경우에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모든 기준의 포괄적인 적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관광지는 서로 다른 많은 기업과 기관과 개인들로 구성되므로 이들 기준의 적용은 누적된 활동효과들을 철저하게 고려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관광지 수준 규모에서의 평가는 대개 개별적인 규모에서의 누적 효과들의 최종결과를 담아낸다. 그러나 영향모 니터링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닌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간 주되어야만 한다.

〈표 3-4〉 국제지속가능관광 관광지 기준

A. 지속 가능한 관광지 관리 증명	
A1 관광전략	관광지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유산과 품질, 건강, 안전 이슈를 고려하는,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며, 규모에 적합하며 대중의 참여로 개발된 다년간의 관광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A2 관광관리기관	관광지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에 협력적인 접근 방식에 책임을 지는 효과적인 관리 기관, 부서, 집단, 또는 위원회가 있다. 이들 조직들은 관광지의 규모나 등급에 적합하며,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이슈들의 관리에 대한 책임과 감독, 그리고 실행력을 규명하고 있다. 이들 조직의 활동은 적절하게 자금지원을 받는다.
A3 모니터링	관광지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광적, 그리고 인간권리 등과 관련된 이슈들을 모니터링하고 공개적으로 보고하며 대응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모니터링 체계는 주기적으로 재검토되고 평가된다.
A4 관광 계절성 관리	관광지는 지역의 경제, 공동체, 문화, 그리고 환경의 요구들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적절한 곳에 관광의 계절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또 연중 어떤 관광기회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재원을 쏟는다.
A5 기후변화적응	관광지는 기후변화에 관계된 도전과제들과 기회요소들을 규명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체계는 관광시설의 개발, 부지구획, 설계, 관리에 있어서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권장한다. 이 체계는 관광지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에 기여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에 대한 공교육에 기여한다.
A6 매력물 사이트 목록화	관광지는 자연지역 및 문화지역을 포함해, 관광 자산과 매력물에 대한 최신의 그리고 대중이 이용 가능한 목록과 평가결과를 가지고 있다.
A7 계획 규정	관광지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 평가를 요구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 설계, 건설, 그리고 철거 등을 통합하는, 계획 지침, 규정, 정책을 가지고 있다. 대중 참여와 철저한 검토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이들 지침과 규정 및 정책들은 자연 및 문화 자원을 보호하도록 설계되고 공개적으로 통지되며 강제된다.
A8 대중 접근성	적절한 곳에서는, 자연적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을 포함해 관광 사이트와 시설들은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요구사항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이들 사이트나 시설이 즉각 접근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는, 접근하기 위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해당 사이트를 통합하고 합리적인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두 가지를 고려한 설계 및 해결책의 실행을 통해 접근을 제공한다.
A9 자산 취득	현존 자산 취득과 관련한 법률과 규정이 강제되고, 대중과 원주민의 권리를 지키며, 통지된 합의 및(또는) 합리적인 보상 없이 이주가 강제되지 않는다.
A10 방문객 만족	관광지는 관광객 만족을 모니터링하고 공개적으로 보고하며, 필요하다면 개선책을 실행한다.
A11 지속가능성 표준	관광지는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의 기준과 일관성이 있는 지속가능성 기업 표준을 촉진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관광지는 지속가능성을 인증 받았거나 실증 받은 기업들의 목록을 대중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공개한다.

A. 지속 가능한 관광지 관리 증명

A12 안전과 보안	관광지는 관광 관련 범죄, 안전 및 건강 위험요소들을 모니터하고 방지하고 대중에게 알리고, 대응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A13 위기 및 응급상황 관리	관광지는 관광지에 적절한 위기 및 응급사항 대응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요 요소들은 주민, 관광객, 그리고 기업들에 전달된다. 이 계획은 절차를 수립하고, 직원과 방문객 그리고 주민을 위한 자원과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A14 홍보	홍보는 관광지와 관광지의 상품, 서비스, 지속가능성 주장 등과 관련하여 정확하다. 홍보메시지는 지역사회와 관광객을 진정으로 또 공손하게 다룬다.

B. 호스트 사회의 경제적 편익 극대화 및 부정적 영향 최소화

B1 경제적 모니터링	관광지 경제에 대한 관광의 직접적 간접적 경제적 기여는 최소한 일년에 한번 모니터 되고 공개적으로 보고된다. 실현 가능한 경우, 방문객 지출, 가용한 객실당 수익, 고용 및 투자 자료 등을 포함해야 한다
B2 지역주민 경력 기회	관광지의 기업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고용 및 훈련 기회, 직업적 안전성과 공정한 급여를 제공한다.
B3 대중 참여	관광지는 진행과정상에서 관광지 계획과 의사결정에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B4 지역사회 의견	관광지 관리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원, 관심, 만족 등이 정기적으로 모니터 되고, 기록되며 적절한 시기에 공개적으로 보고된다.
B5 지역사회 접근성	관광지는 자연적 문화적 사이트로의 지역주민 접근을 모니터하고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복원 또는 복구 한다.
B6 관광 인식 및 교육	관광지는 영향을 받은 지역주민들이 관광 관련 기회요소와 도전과제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B7 착취 방지	관광지는,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소수자 등에 대한, 상업적, 성적, 또는 어떤 형태로든지의 착취와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과 확고한 실행안을 가지고 있다. 법과 확고한 실행안은 공개적으로 전달된다.
B8 지역사회 지원	관광지는 기업, 방문객, 그리고 대중이 지역사회 및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또 기여하도록 장려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B9 지역기업 및 공정무역 지원	관광지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의 자연과 문화에 기반을 둔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상품과 공정무역원칙을 홍보하고 개발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는 음식과 음료, 수공예품, 행위 예술, 농산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C. 지역사회, 방문객, 문화에 대한 편의 극대화 및 부정적 영향 최소화

C1 매력물 보호	관광지는 튼튼한 구조의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유산이나 전원 또는 도시의 풍경을 포함해 자연적 문화적 사이트를 평가하고, 복원하며, 보존하는 정책과 체계를 가지고 있다.
C2 방문객 관리	관광지는 자연적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또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포함해 매력물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객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C3 방문객 행동	관광지는 민감한 사이트에서의 적절한 방문객 행동지침을 출판하여 제공한다. 그러한 지침들은 민감한 지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방문객 행동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다.
C4 문화유산 보호	관광지는 역사적 고고학적 유물의 적합한 판매, 거래, 전시 또는 선물증정 등을 감독하는 법이 있다.
C5 사이트 해설	정확한 해설 정보가 자연적 문화적 사이트에서 제공된다. 정보는 문화적으로 적절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개발되고, 방문객에게 적절한 언어로 전달된다.
C6 지적재산	관광지는 지역사회와 개인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D. 환경 편익 극대화 및 부정적 영향 최소화

D1 환경적 위험	관광지는 환경적 위험을 규명하고 이들을 현장에서 다룰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D2 민감한 환경의 보호	관광지는 환경에 대한 관광의 영향을 모니터하고 서식지와 종과 생태계를 보전하며, 외래종의 침입을 방지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D3 야생동식물 보호	관광지는 야생동식물의 수확 또는 포획, 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표준 준수를 보장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D4 온실가스 방출	관광지는 기업이 그들의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방출량(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온실가스 방출을 포함하여)을 측정하고 모니터하며 보고하고 저감하도록 장려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D5 에너지 보전	관광지는 기업이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고 모니터하며 저감하고 공개적으로 보고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도록 장려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D6 물 관리	관광지는 기업이 물 사용량을 측정하고 모니터하며 저감하고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장려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D7 물 보안	관광지는 기업의 물 사용이 관광지 지역사회의 용수량과 양립될 수 있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수자원을 모니터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D8 수질	관광지는 음용수 및 휴양목적으로 이용하는 물의 품질을 모니터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는 대중이 이용가능하며, 관광지는 수질 이슈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D9 폐수	관광지는 오수정화조 및 하수처리시스템의 배치, 유지, 그리고 이들의 배출물에 대한 실험 등에 있어서 명확하고 강제된 현장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지역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폐수가 적절히 처리 및 재사용되거나 안전하게 배출됨을 보증한다.
D10 고형쓰레기 감소	관광지는 기업이 고형쓰레기를 감소하고, 재사용하며, 재활용하도록 장려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재사용 또는 재활용되지 않은 여분의 고형쓰레기는 안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처리된다.
D11 불빛과 소음 공해	관광지는 불빛과 소음 공해를 최소화하는 지침과 규정을 가지고 있다. 관광지는 기업이 이들 지침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장한다.
D12 저영향교통수단	관광지는 대중교통수단과 능동적 운송수단(도보와 자전거타기 같은)을 포함해 저영향 교통수단의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3)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관광 국제 해(International Year of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

유엔은 2017년을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 국제적 해 (International Year of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로 선언하였다. 본 결정은 1967년에 “Passport to Peace” 라는 주제로 ‘관광에 대한 국제관광객 해 (International Tourist Year on Tourism)’ 와 2002년에 선언한 ‘생태관광 국제 해 (International Year of Ecotourism)’ 에 이은 15년만이다. 2017년은 전 세계 모두를 위한 번영과 웰빙 장소로 변환시키는 관광잠재력을 탐색하고 강조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게 된다.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과 사업 기회를 촉진하는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구촌 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빈곤을 퇴치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SDGs에서 관광 역할을 홍보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2017년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 국제 해’에는 4가지 주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공개적 지지와 인식 제고 (Advocacy and awareness-raising)** : 발전을 위한 도구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고, 국가, 지역 및 글로벌 발전 의제를 완전하게 통합해야하는 당위성을 장려하고,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촉매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관광분야가 2030 의제와 SDGs에 기여하는 세계적 논의를 활발하게 유도하고, 관광분야가 사회와 환경, 그리고 책임있는 관광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을 증대시킨다.

둘째, **지식 창출과 배포 (Knowledge Creation and dissemination)** : 지속가능한 관광이 어떻게 후진국이나 선진국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 “사회적 포용성, 고용과 빈곤 감소”, 자원 효율성,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 문화적 가치, 다양성과 문화유산”, 그리고 “상호 이해, 평화와 안보” 등의 5가지 분야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확대시키고, 관광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도구나 체제를 널리 알린다.

셋째, **정책 결정 (Policymaking)** :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관광 역할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나 사례 등을 개발하고 교환하며, 2030년 아젠다와 SDGs 목표에 기여하는 관광정책을 통하여 관광개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수립하고, 관광이 특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주요한 축으로서 사회적 책임(CSR)을 증진시키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

력을 촉진시킨다.

넷째, **역량 형성과 교육 (Capacity-building and education)** : 지속가능한 관광이 개발에 기여하는 교육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유도하며, 2030 아젠다와 SDGs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지식 형성과 스킬 개발을 통하여 여성과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아래 <표 3-6>는 4가지 중요 영역이다. 행동 강령으로 활동 내용, 참여 대상 그리고 달성이행도를 보고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관광기구는 2017년을 기점으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 역할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국제기구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인 타 분야 국제기구, 정부, 민간부문, 학계 등과 협력하여 2030 아젠다와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3-5〉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권고 활동 모음 내역

행동강령	활동(Activity)	대상	보고사항
1. 공개지지 및 인식 제고 (Advocacy and Awarenessraising)	국내외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위원회 구성 및 논의 의제 지정	정부, 국제기구, NGOs	추진 사항 내용 (위원회 구성 및 역할)
	전국 및 지역 차원의 행사 개최	정부	행사 내용, 참가자 수
	국제회의 등 개최	정부, 민간부분, 학계, 국제기구, NGOs	행사 내용, 행사 수, 참가자수, 결과 (보고서, 선언문 등)
	일반 미디어 및 소셜 미디어 계획 수립	정부, 민간부분, 학계, 국제기구, NGOs	미디어 활동내용, 활동수, 추정 파급효과
	지속가능관광, 개발 의제 및 창의적 연구에 대한 전국, 지역 단위의 상 (award) 제정 및 시행	정부, 민간부분, 학계, 국제기구, NGOs	award의 내용, 참가자 및 수상자 수, 효과 분석
	사진, 에세이 소셜 미디어 대상 UNWTO 전시 활동 개최 등	정부, 민간부분, 학계, 국제기구, NGOs	전시 및 competition의 수, 참가자 수 및 효과
	주제성 담은 우표 및 코인 제작 등	정부	내용 및 효과 분석
	‘2017년 국제의 해’ 로고 사용 (홍보 수단)	정부, 민간부분, 학계, 국제기구, NGOs	로고의 사용
	소비자/종사원/공급자의 인식제고 활동개발	민간부분	활동의 수 및 참가자 수
	관광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식제고 캠페인 전개 및 책임관광객이 되는 방안 등	정부, 민간부분, 학계, 국제기구, NGOs	활동 내역 및 효과
	IY2017 기금 조성에 기여하는 스폰서	정부, 민간부분, 학계, 국제기구, NGOs	기여 내역
2. 지식 창출 및 배포 (Knowledge Creation and dissemination)	지속가능관광과 발전과 17개 SDGs에 대한 연구 수행 및 관광 이해당사자들을 위하여 실제적인 가이드라인과 권고사항을 정교화	정부, 민간부분, 학계, 국제기구, NGOs	연구활동 내용, 리서치,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수, 효과 분석
	책자와 다른 표현수단을 통하여 best practice와 사례를 확인하고 배포함	정부, 민간부분, 학계, 국제기구, NGOs	활동 내용, 책자 수, 효과 분석
	지속가능한 관광의 이용 및 측정 툴 개발 (예 Sustainable Tourism Observatories, TSA, 환경지수, 평화지수 등)	정부, 민간부분, 학계, 국제기구, NGOs	추진 내용, 툴, 방법론의 수, 추정 영향 범위
	관광과 타분야 (예, 농업, 환경, 문화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간학문적 플랫폼 수립 및 공동활동 분야 확인	정부, 민간부분, 학계, 국제기구, NGOs	제안 내용, 활동의 수

〈표 3-6〉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권고 활동 모음 내역(계속)

행동강령	활동(Activity)	대상	보고사항
3. 정책 결정 (Policymaking)	관광을 위한 정부 부처간의 플랫폼과 국제기구내 조직간의 플랫폼의 구축함 (세계은행, UN 등)	정부 국제기구	제안 내용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과 관련한 정책, 전략, 계획, 법, 특별 프로그램을 정의함	정부	예상 결과 및 영향을 포함한 제안 내용
	여성, 청년 그리고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정책, 전략과 프로그램을 정의함	정부, 민간부문, 학계, 국제기구, NGOs	추진 내용, 수혜자의 수
	새롭고 혁신적인 민관협력 체계 구축	정부, 민간부문, 학계, 국제기구, NGOs	파트너십 내용
	국가 안보계획에 관광을 포함함	정부	추진 내용
	소비자 신뢰를 목표로 하는 제안 (연구, 케이스 연구, 인식제고 활동 등)	정부, 민간부문	추진 내용
	안전하고 장애없는 여행을 촉진 (개선된 비자정책, 협력 프로그램 등)	정부, 국제기구	추진 내용
	관광윤리 강령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충성도 증진	정부, 민간부문, 국제기구, NGOs	추진내용과 윤리강령 준수 기업의 수
	인정받은 지속가능성 인증 체계에 대한 관광 운영자의 충성도 장려	정부, 민간부문	인증받은 여행사의 수 증가
4. 전문역량 형성과 교육 (Capacitybuilding and Education)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역량 형성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부, 민간부문, 학계, 국제기구, NGOs	예상 결과를 포함한 교육 내역
	지역과 국제 교환 프로그램 구축 및 장학금 체계 구축	정부, 민간부문, 학계, 국제기구, NGOs	장학금/교환 프로그램 내역, 수혜자 수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고 관광윤리강령에 기여하는 교과과정 개편	정부, 학계	코스의 내역, 학생 수
	지속가능 관광에 대한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킴	정부, 학계	학생의 수
	여성, 청년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부, 민간부문, 학계, 국제기구, NGOs	프로그램 내역, 학생의 수

자료: 세계관광기구 “A roadmap for celebrating together” 2017 INTERNATIONAL OF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

3.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관련 국내 정책추진 동향

1) 중앙정부의 정책동향

‘지속가능발전’이 비단 SDGs에서 새롭게 제기된 것이 아닌 만큼 국내에서 또한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 확산과 실효적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의제21’을 채택한 계기로 1996년에는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이행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하였다.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과 이행계획 개발을 의무화함에 따라 2006년에는 ‘제1차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이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 2010)으로 ‘지속가능발전계획’¹⁷⁾은 국가 법정계획으로 승격되어 2011년에는 2차 계획(2011-2015), 2015년 3차 기본계획(2016~2035)이 수립하였다.

2010년 출범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법」 제정 및 5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더불어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이행계획을 수립·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평가하여 2년 단위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됨과 동시에 심의·확정된 계획(2016년 1월)으로, SDGs의 가치와 목표 이행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계획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2차 지속가능발전계획(2011~2015)까지는 환경 측면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주로 환경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설정된데 비해¹⁸⁾, 3차 계획은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서 경제와 사회 측면의 지표들도 비중 있게 포함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목표와 13개 전략, 50대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다(임소영·김성규·김지혜, 2016:34). 제3차 지속가능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국내 여건에

17) 지속가능발전계획은 당초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제4조에 명시된 법정계획이었으나,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 계획수립·추진 근거 조항이 이관되었다. 이와 동시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었다

18) 제2차 지속가능발전계획(2011-2015)의 25개 이행과제 중 非환경분야 과제는 5개에 불과하다

맞게 반영하였고, 양극화·에너지·지역불균형·일자리·취약한 거버넌스·저출산·고령화·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등을 국가적 위협요인으로 선정하여 환경-사회-경제 각 부문 간 통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목표, 세부 과제 및 지표를 설정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6).

〈표 3-7〉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 주요 추진 경과

연도	국내	비고(국외)
1992년		UN환경개발회의(UNCED) - 리우선언, 의제 21 채택
1996년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수립·시행	
2000년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선언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2002년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요하네스버그 선언 채택
2005년	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2006년	제1차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2006-2010) 지속가능발전지표(77개) 선정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2010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 - 환경부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개편	
2011년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1-2015) 수립	
2012년		UN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개최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 합의
2014년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유엔사무총장보고서 발간
2015년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2016년 1월 국무회의 심의·확정)	제70차 UN 총회- 2030 발전의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표 3-8〉 지속가능발전 제도 및 추진체계

구 분	주 요 내 용
법률	▶ 「지속가능발전법」
관련 계획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하여 확정하고, 2년마다 이행 실적을 평가
위원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소속 : 환경부장관 - 구성 : 위원장(1명, 민간) 등 50명 이내 ※ '17.8월 제8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 종료, 현재 제9기 구성 중
위원회 기능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 ▶ 이행계획의 협의·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 ▶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및 통보 등 ▶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
위원회 소속	▶ '00년 대통령 소속으로 출범 ▶ '10년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전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 방안 연구 (2015)” 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서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성이 순환을 이루면서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원칙에서는 사회·문화적 지속성으로 사회적 형평성, 지역사회 참여와 경제적 지속성으로 지역사회·관광산업 경제적 편익 창출, 환경적 지속성으로 자연자원 보전, 현명한 이용, 훼손 관리, 에너지 및 자원 순환을 제시하였다.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계획(2016~2035), p.30

〈그림 3-1〉 제3차 지속가능발전계획(2016~2035) 비전체계도

이러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성의 원칙이 자원, 관광재, 지역사회, 관광산업 등 각 요소에 분절적으로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 추진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9〉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원칙

원칙	주요 키워드	세부 내용
사회·문화적 지속성	· 커뮤니티(community) · 지역다움(지역성) · 창의성, 융복합	-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의미 있는 연계 -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유지·발전 - 지역주민의 요구 수렴 -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 창의적 아이디어 활용
경제적 지속성	·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 지역경제 편익 창출(현지인 숙소, 음식점, 가이드 등) - 관광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 관광기업의 관광대상지역과 주민에 대한 경제적 편익 제공 - 투자 확대 -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환경적 지속성	· 보전(conservation) · 친환경 (environment-friendly) · 에너지 및 자원 순환 (recycle, reduce, reuse)	- 자연자원 보전, 생물다양성 추구 - 자원의 현명한 이용, 친환경적 개발, 지역자산의 활용(Re+) - 소비자 환경 인식 제고 - 에너지 및 자원 순환 -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활성화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8대 핵심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전략 1] 지역자산 재창조형 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 지역은 관광활동의 터전인 동시에 지속적인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기반임. 전통 문화유산, 지역생태자원 등 지역 고유의 자산을 다양화·세분화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시장성 있는 관광자원 및 상품을 개발함
- 지역 관광특성을 부각하고 지역 자원의 차별성과 매력성 극대화로 관광상품 및 서비스의 고품질화, 관광만족도를 제고함

[전략 2] 문화재생형 신(新)관광공간 창조

- 기존 자원의 재발견·재활용·복합 활용, 유희시설 및 자원의 재생·재활용을 기본으로 하는 "Re+" 전략을 추구하되, 디자인적 요소가 필수적으로 가미될 수 있도록 추진함
- ※ "Re+" (시설, 자원 등의 재이용, 재활용(Reutilization, Recycling), 새로운 활력 부여(Revitalization), 기존 건물 및 성능의 개선(Remodeling), 재창조(Recreation) 으
로 전환
- 동일 공간 내에서 지역의 문화를 향유하고 숙박, 체험, 교육 등이 가능한 종합
적이고 다기능적인 관광공간을 조성함

[전략 3] 수요 만족형 관광 서비스 강화

-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광객 체류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선진화된 관광기반을 조성함
-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등을 활용한 관광 서비스 수용태세를 개선하여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 및 국민 행복 증진

[전략 4] 수요 맞춤형 관광 인프라 조성

- 관광객 이동패턴의 광역화 및 다양화에 대응하여 지자체 및 관광자원 간의 네트워크화와 연계 관광코스를 활성화함
-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객 이동 동선에서 적절한 체류형 거점을 조성하고 기능적 연계방안을 마련함

[전략 5] 지역기반형 지역역량 창출

- 관광개발 패러다임이 관주도에서 민간, 주민주도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주민(청장년층, 노령층 등)이 지역관광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성 시스템을 구축함

[전략 6] 성장 촉진형 관광사업 모델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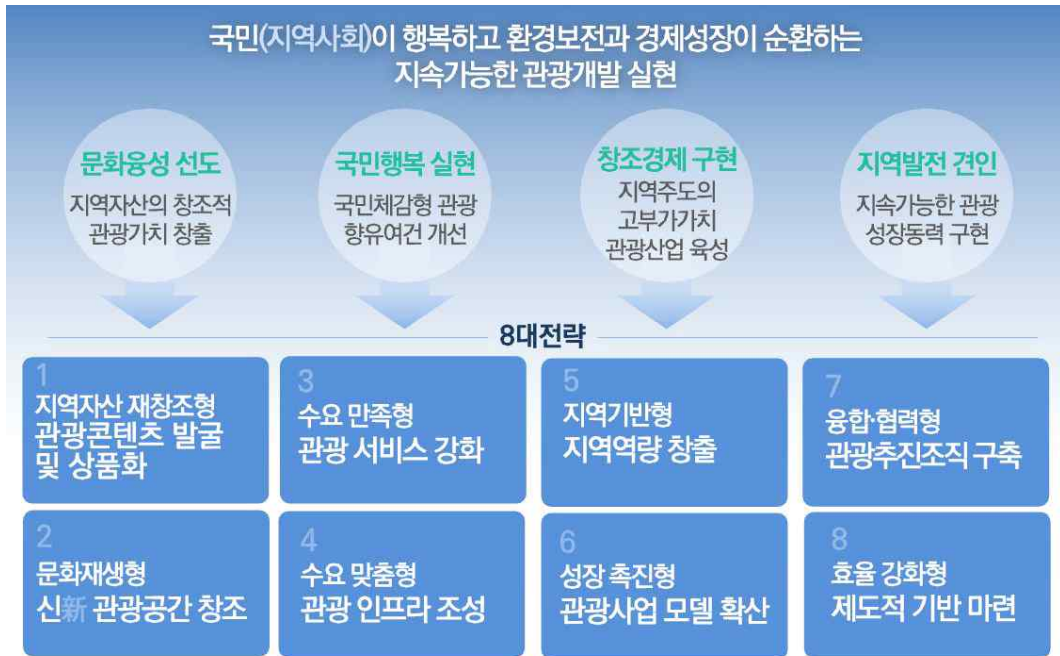
- 대규모 하드웨어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자원·지역주민·지역경제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관광 모델을 구축함
- 지역의 콘텐츠 발굴부터 상품의 개발 및 제조, 유통과정을 갖춘 지역 비즈니스 구조를 개발하고 확산함

[전략 7] 융합·협력형 관광 추진조직 구축

- 지역 관점에서 통합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지자체 간, 사업 간 연계 가능한 체계 마련

[전략 8] 효율 강화형 제도적 기반 마련

- 관광 개발 사업을 관리하는데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반 체계를 마련함



〈그림 3-2〉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8대 핵심 전략

2) 학술연구에 의한 관광지표의 동향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연구는 생태관광 분야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른 평가지표는 WTO(1996), 한국관광연구원(2001),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2006), 지속관광발전위원회(2008) 등에서 개발한 지속가능 관광지표를 기초로 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형 생태관광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한 평가지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가치와 특성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성과평가측정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지속가능한 관광지표를 광범위하게 제시한 WTO(1996)의 지표를 먼저 살펴보면 의사결정자들이 인식해야 하는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계에서는 1990년 중반부터 에코투어리즘과 녹색관광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해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주로 농어촌 자원의 일반 보편화된 관광의 실현에 관심이 맞추어져 있었다.

2000년 이후 한국관광연구원(2001)에서 본격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지표개발을 시도하였지만 관광개발 지표에 치우쳐진 한계점이 발견되었

다. 또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2006)에 의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계획모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관광지표개발보다는 제도의 문제점 쪽에 집중되어 현실 적용성이 낮았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8)에서 조차도 지역개발에 대한 표준화된 지속가능 에코투어리즘의 평가지표변수를 측정하지 못하고 기존연구들의 지표 변수들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장양례(2012)는 “지속가능한 에코투어리즘 평가 지표 개발 연구”에서 지역별 관광지 여건의 평가지표로 환경지속가능성 부문, 사회문화 지속가능성 부문, 경제편익 지속가능성 부문, 제도 지속가능성 부문, 환경교육 지속가능성 부문, 주민참여 지속가능성 부문 등 6개 부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에코투어리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에서는 첫째, 환경 지속가능성 지표를 나타내는 ① 생태적 환경변화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와 ② 생태계 보존관리 정도, ③ 자연생태보존 지역비율 유지, ④ 환경적 가치, ⑤지 속가능성 가치, ⑥ 생물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사회문화 지속가능성 지표로는 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②생 태관광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③ 관광객 집중을 분산시키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 지역주민에 대한 관광객 수 비율, ⑤ 관광객 만족수준 지속성 확보, ⑥ 이용시설의 생태적 설계를 포함하고 있다.

셋째, 경제편익 지속가능성 지표로는 ① 소득증대, ② 지역주민 고용기회 증진, ③ 지역 관광업체수 증가이다.

넷째, 제도 지속가능성 부문 지표로는 ① 생태환경 관광상품 인증제도 마련, ② 관광객 수용력 제도운영, ③ 지속가능한 개발수행을 위한 기준과 행동지침 마련, ④책임관광 인센티브 부여, ⑤ 지역주민-NGO-지역 정부 간 협력기구 마련과 운영 등이다.

다섯째, 환경교육 지속가능성 부문은 ① 환경생태교육 사전학습 기회제공, ② 전문성 확보, ③ 관광대상지 운영, ④ 교육, ⑤ 관리에 대한 지침과 매뉴얼 마련을 포함하였다.

여섯째, 주민참여 지속가능성 부문에서는 ① 지역주민의 자연보전 의식, ② 관광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최종 6개의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자 중에서 관광사업자에서는 지역사회 수익환원과 종사원들의 지속가능한 교육훈련, 관광상품의 증가율과 추진의지를 평가지표로 하였다.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경제적 만족도, 환경적 만족도, 사회문화적 만족도 등 3개 평가지

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관광객이 평가하는 에코투어리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평가지표는 신기한 매력성, 독특함, 환경에 대한 관광객의 태도, 자원보전상태, 관광자원보전에 대한 관광객 인식, 교육성, 인프라 정도, 해설 수준, 체험프로그램 수준, 연계관광, 접근성, 숙박시설, 지역주민 환대서비스 태도 등 총 13개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관광목적지가 갖는 경쟁력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200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주로 빈곤퇴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제공되고 있으며, 작은 섬이나 국가의 관광개발, 주요 경관에 대한 도로 및 관광객 혼잡관리, 자연복원형 관광개발 사례와 정책적 지침을 주로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관광간의 관계를 밝혀내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되는 등 세계적인 연구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기존 관광개발 방식에 비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관광객 만족에 개발 목표가 있으며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둘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 방식이 중시되며 가능한 지역내 자본으로 개발한다. 셋째, 지역성을 나타내는 모든 자원, 자연적, 역사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한다.

넷째, 생산 및 생활시설을 확충하고 특산품을 개발하며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산업, 자연경관을 연계 개발한다.

다섯째, 소규모 투자를 장기간 지속하여 환경친화적 개발로 단기성과 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표 3-10〉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표 관련 연구

연구	연구목적	주요연구내용
김동렬 (2000)	· 체계적인 지속가능한 관광지표 개발방법을 제시	· 8개 부문의 지속가능한 관광기준에 기초하여 총 54개의 지표항목 제시함
한국관광 연구원 (2001)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방향과 과정을 검토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정책적 운영방안 지표개발	· 처음 지속가능 관광개발지표 개발 의의 · 환경, 사회·문화, 경제 등 3개 분야, 9개 항목, 20개의 대분류, 38개의 가중지표, 46개의 세부지표를 개념적 지표로 개발
이희연 · 차승훈 (2004)	· 생태·환경적 변화에 매우 민감한 동굴 관광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관광지표 설정 및 측정, 평가 적용방안 모색	·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지표 방안을 규범적, 분석적, 실천적 차원 규명 · 환경부문 지속성, 사회·문화 지속성, 경제부문 지속성, 제도부문 지속성 각각 5개 항목 지표 제시
송영민 (2005)	· 생태관광지 보호를 위해 제시된 생태관광가이드 라인이 관련 갯벌체험에 참가한 청소년의 환경보호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	· 에코투어리즘 가이드라인을 갯벌 체험활동 참가 청소년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 ·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됨 · 지각된 행동조절이 의도와 실제행동에 강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
지속가능 발전위원 회 (2008)	· 지속가능 지역관광개발의 평가지표 개발과 개발 및 운영단계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관광자유형별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 관광지 유형별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안에 생태관광지에 대한 평가지표를 10개 항목지표를 이용함
고한익 (2010)	· 지속가능한관광개발을재무적 관점, 고객관점, 주민관점, 학습성장관점의 균형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함	· 관광객만족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균형성과 평가지표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역고유체험, 자연경관보호, 관광객 증가, 관광객 확대, 체험행사, 주민소득증대, 접근성개선, 고용증대의 순으로 나타남
장양례 (2012)	· 지속가능한 에코투어리즘의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향후 실천적 관리수단에 활용	· 환경 지속가능성 지표 6개, 사회문화 지속가능성 지표 6개, 경제편익 지속가능성 지표 3개, 제도 지속가능성 지표 5개, 환경교육 지속가능성 지표 5개, 주민참여 지속가능성 지표 2개 제시 · 이해관계자 중 관광사업자 4개, 지역주민 3개, 관광객 13개 평가지표 설정

자료 :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3) 국내외 지속가능한 관광지표 비교분석

(1) 국내·외 사례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지표

국내·외 사례를 통해 SDGs 17개 목표 중 지속가능한 관광지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목표 8, 목표 11, 목표 12, 목표 14의 세부목표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8과 관련해서는 고유문화 특산물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 관광진흥정책 개발 이행과 연계해서는 지역특산물의 관광상품화 수와 관광자원 콘텐츠 프로그램 수가 있다. 그리고 목표 11과 관련하여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과 연계해서는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수가 있다.

목표 12와 관련 있는 부분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으로 지표는 지역축제 참여도 및 만족도, 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나타났다.

〈표 3-11〉 국내·외 사례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지표

SDGs 목표		과제	지표
1	빈곤		
2	식량/농업		
3	건강/웰빙		
4	교육		
5	양성평등		
6	물		
7	에너지		
8	경제성장/일자리	고유문화의 특산물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 관광진흥정책 개발이행	지역특산물 관광상품화수 관광자원 콘텐츠프로그램수
9	산업화/혁신		
10	불평등		
11	도시/공간	세계문화·자연유산 지정	세계문화유산 지정수
12	지속가능 생산·소비	다함께 흥겨운 풍물도시 대표축제를 통한 공동체 강화	지역축제 참여도 및 만족도 문화·스포츠 행사, 체험 프로그램 참여, 문화환경 만족도
13	기후변화		
14	해양생태/ 자원	클린 비치 캠페인 아름다운 섬과 되살아나는 갯벌	수자원 보호 및 생태계 보존 습지보호지역 지정
15	육상생태/ 자원		
16	제도		
17	글로벌 파트너십		

목표 14와 관련 있는 부분은 관광업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통해 해양자원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클린 비치 캠페인, 아름다운 섬과 되살아나는 갯벌 등의 과제를 통해 실행하고 지표로는 수자원 보호 및 생태계 보존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국제규범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지표

국제규범을 통해 SDGs 17개 목표 중 지속가능한 관광지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목표 4, 목표 8, 목표 10, 목표 11, 목표 12, 목표 14의 등 대부분의 목표들의 세부목표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4에 해당하는 지표는 관광 관련 교육프로그램 제공 횟수, 관광 관련 교육프로그램 수, 참가 학생 수 등으로 나타났고, 목표 8에 해당하는 지표는 지역주민 관광사업 참여와 관련 있는 지표로 지역주민 일자리 비율, 지역주민 의견 참여율, 관광지 지역기업 비율 등으로 나타났다.

목표 10에 해당하는 지표는 관광 사업 혜택의 공평한 분배에 대한 관광 소득 분배율이 있으며, 목표 11에 해당하는 지표는 관광지 관리 예산율로 나타났다.

목표 12에 해당하는 지표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을 위한 지역주민 지역 관광참여율, 물 사용 저감율, 관광지 기업 에너지 저감 시설율, 저영향 교통수단 이용률, 쓰레기 저감율이 있으며, 목표 14에 해당하는 지표는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는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존을 위한 보존율 등이 있다.

국제규범 검토에 따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지표는 지역주민의 관광 참여를 통한 지역 관광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많았다. 관광지 자원 보존과 에너지 사용 저감을 위한 부분과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는 자연 및 문화 자원에 대한 보존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다.

〈표 3-12〉 국제규범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지표

SDGs 목표		과제	지표
1	빈곤		
2	식량/농업		
3	건강/웰빙		
4	교육	관광 인식 및 교육, 여성, 청년, 소외계층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광 관련 프로그램 제공횟수 관광 관련 교육프로그램 수, 학생의 수
5	양성평등		
6	물		
7	에너지		
8	경제성장/일자리	관광 사업 지역주민 일자리, 지역의 문화와 전통, 의사결정에 대중 참여, 지역의견 수렴, 관광지 지역기업 지원	지역주민 일자리 비율, 지역주민 의견 참여율, 관광지 지역기업 비율
9	산업화/혁신		
10	불평등	관광 사업 혜택의 공평한 배분	관광 소득 외부유출율
11	도시/공간	관광지 복원 및 보전 정책	관광지 관리예산율
12	지속가능 생산·소비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관광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광적 모니터링 관광지 기업 물 사용 모니터링 관광지 기업 에너지 저감 시설 도입 저영향 교통수단 이용 확대 관광객 쓰레기 발생 감소	지역주민 지역관광 참가율 물 사용 저감율 관광지 기업 에너지 저감 시설율 저영향 교통수단 이용률 쓰레기 저감율
13	기후변화		
14	해양생태/자원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존 지역의 희소성 높은 자원의 사용 최소화	서식지 보존율, 자원 사용율
15	육상생태/자원		
16	제도		
17	글로벌 파트너십		

(3) 국내 정책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지표

국내 정책추진을 통해 SDGs 17개 목표 중 지속가능한 관광지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목표 8, 목표 12, 목표 14 등의 목표들의 세부목표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8에 해당하는 지표는 지역주민 관광사업 참여와 관련 있는 지표로 지역주민 일자리 비율, 지역주민 의견 참여율, 관광지 지역기업 비율 등으로 나타났다.

목표 12에 해당하는 지표는 지역경제 편익 창출(현지인 숙소, 음식점, 가이드 등),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유지·발전,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자원의 현명한 이용, 친환경 경적 개발, 지역자산의 활용(Re+), 에너지 및 자원 순환,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활성화, 머물면서 참여하는 관광기반을 구축을 위한 과제로 지표는 지역주민 관광 수익률, 물 사용 저감율, 관광지 기업 에너지 저감 시설율, 저영향 교통수단 이용률, 쓰레기 저감율, 지역문화 보전발굴 육성 수 등이 있으며, 목표 15에 해당하는 자연자원 보전, 생물다양성 추구를 위한 과제의 지표는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는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존을 위한 보존율, 자원 사용율 등이 있다.

국내 정책 검토에 따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지표는 지역주민의 관광 참여를 통한 지역 관광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많았으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관광의 지속가능성 부분과 지역자원의 재생산을 통한 관광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국내 정책검토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지표

SDGs 목표		과제	지표
1	빈곤		
2	식량/농업		
3	건강/웰빙		
4	교육		
5	양성평등		
6	물		
7	에너지		
8	경제성장/일자리	지역주민의 요구 수렴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 창의적 아이디어 활용 관광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지역주민 참여율 관광지 지역기업 비율 지역주민 관광 일자리 비율
9	산업화/혁신		
10	불평등		
11	도시/공간		
12	지속가능 생산·소비	지역경제 편익 창출(현지인 숙소, 음식점, 가이드 등)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유지·발전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자원의 현명한 이용, 친환경적 개발, 지역자산의 활용(Re+) 에너지 및 자원 순환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활성화 머물면서 참여하는 관광기반을 구축	지역주민 관광 수익율 물 사용 저감율 관광지 기업 에너지 저감 시설율 저영향 교통수단 이용률 쓰레기 저감율 지역문화 보전발굴 육성 수
13	기후변화		
14	해양생태/ 자원		
15	육상생태/ 자원	자연자원 보전, 생물다양성 추구	서식지 보존율, 자원 사용율
16	제도		
17	글로벌 파트너십		

(4) 학술 연구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지표

학술 연구를 통해 SDGs 17개 목표 중 지속가능한 관광지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목표 4, 목표 8, 목표 12, 목표 15 등의 목표들의 세부목표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4에 해당하는 것은 환경교육에 대한 과제의 중요성으로 지표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수, 환경전문가 육성 수, 관련 지침과 매뉴얼 여부로 나타났다.

목표 8에 해당하는 지표는 지역주민 관광사업 참여와 관련 있는 지표로 관광객수, 관광지 개발 지역주민 참여율, 지역주민 일자리 비율, 관광지 지역기업 비율 등으로 나타났다.

목표 12에 해당하는 지표는 이용시설의 생태적 설계, 인프라 정도, 해설 수준, 체험 프로그램 수준, 연계관광, 접근성, 숙박시설, 지역주민 환대서비스 태도에 대한 생태적 설계 여부, 생태시설 비율, 방문객 만족도 등이 있으며, 목표 15에 해당하는 생태적 환경변화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 생태계 보존관리, 자연생태보존 지역비율 유지, 생물의 다양성 과제의 지표는 모니터링 시스템 여부, 생태보존 지역 유지 비율, 생물 다양성 조사 여부 등이 있다.

학술 연구 검토에 따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지표는 생태관광 중심의 환경 교육 부분과 지역주민 소득 증대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학술 연구 검토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지표

SDGs 목표		과제	지표
1	빈곤		
2	식량/농업		
3	건강/웰빙		
4	교육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환경생태교육 사전학습 기회제공 전문성 확보 관리에 대한 지침과 매뉴얼 마련	환경교육 프로그램 수 전문가 육성 수 지침과 매뉴얼 여부
5	양성평등		
6	물		
7	에너지		
8	경제성장/일자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생태관광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소득증대 지역주민 고용기회 증진 지역 관광업체수 증가	지역주민에 대한 관광객 수 비율 관광지 개발 지역주민 참여율 지역주민 일자리 비율 관광지 지역업체 비율
9	산업화/혁신		
10	불평등		
11	도시/공간		
12	지속가능 생산·소비	이용시설의 생태적 설계 인프라 정도, 해설 수준, 체험프로그램 수준, 연계관광, 접근성, 숙박시설, 지역주민 한대서비스 태도	생태적 설계 여부 생태시설 비율 방문객 만족도
13	기후변화		
14	해양생태/ 자원		
15	육상생태/ 자원	생태적 환경변화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 생태계 보존관리 정도 자연생태보존 지역비율 유지 생물의 다양성	모니터링 시스템 여부 생태보존 지역 유지 비율 생물 다양성 조사 여부
16	제도		
17	글로벌 파트너십		

〈표 3-15〉 부문별 검토를 통합 지속가능한 관광지표

SDGs 목표		과제	지표
1	빈곤		
2	식량/농업		
3	건강/웰빙		
4	교육	관광 인식 및 교육 여성, 청년, 소외계층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환경생태교육 사전학습 기회제공 전문성 확보 관리에 대한 지침과 매뉴얼 마련	관광 관련 교육프로그램 수, 학생의 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수, 전문가 육성 수, 지침과 매뉴얼 여부
5	양성평등		
6	물		
7	에너지		
8	경제성장/일자리	지역의 문화와 전통, 관광지 지역기업 지원 생태관광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소득증대 지역주민 고용기회 증진 지역 관광업체수 증가 지역주민의 요구 수렴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 창의적 아이디어 활용 관광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지역주민 의견 참여율, 지역주민에 대한 관광객 수 비율 관광지 개발 지역주민 참여율 관광지 지역업체 비율 관광지 지역기업 비율 지역주민 관광 일자리 비율
9	산업화/혁신		
10	불평등	관광 사업 혜택의 공평한 배분	관광 소득 외부유출율
11	도시/공간	관광지 복원 및 보전 정책	관광지 관리예산율
12	지속가능 생산·소비	대표축제를 통한 공동체 강화 이용시설의 생태적 설계 인프라 정도, 해설 수준, 체험프로그램 수준, 연계관광, 접근성, 숙박시설, 지역주민 환대서비스 태도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관광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광적 모니터링 관광지 기업 물 사용 모니터링 관광지 기업 에너지 저감 시설 도입 저영향 교통수단 이용 확대 관광객 쓰레기 발생 감소 지역경제 편익 창출(현지인 숙소, 음식점, 가이드 등)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유지·발전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자원의 현명한 이용, 친환경적 개발, 지역자산의 활용(Re+) 에너지 및 자원 순환 머물면서 참여하는 관광기반을 구축	생태적 설계 여부 생태시설 비율 방문객 만족도 지역주민 지역관광 참가율 물 사용 저감율 관광지 기업 에너지 저감 시설율 저영향 교통수단 이용률 쓰레기 저감율 지역주민 관광 수익율 지역문화 보전발굴 육성 수
13	기후변화		
14	해양생태/ 자원	클린 비치 캠페인 아름다운 섬과 되살아나는 갯벌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존 지역의 희소성 높은 자원의 사용 최소화	수자원 보호 및 생태계 보존 습지보호지역 지정 서식지 보존율, 자원 사용율
15	육상생태/ 자원	생태적 환경변화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 생태계 보존관리 정도 자연생태보존 지역비율 유지 생물의 다양성	모니터링 시스템 여부 생태보존 지역 유지 비율 생물 다양성 조사 여부 서식지 보존율, 자원 사용율
16	제도		
17	글로벌 파트너십		

4.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정책동향

1) 추진체계와 성과

(1) 추진체계

충청남도에서는 2013년부터 선도적으로 전담조직(지속가능정책팀)을 신설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주요정책 및 지표 개발·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또한 2015년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특위를 설치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자문 및 평가 기능을 담당하는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충남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구성인원 : 20명 이내, 위촉직(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등 각 분야전문가)
- 기능 : 지속가능발전 관련 자문·평가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도정(중장기계획 등)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관협력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각종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실천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촉직과, 충청남도의 실과장을 중심으로 한 당연직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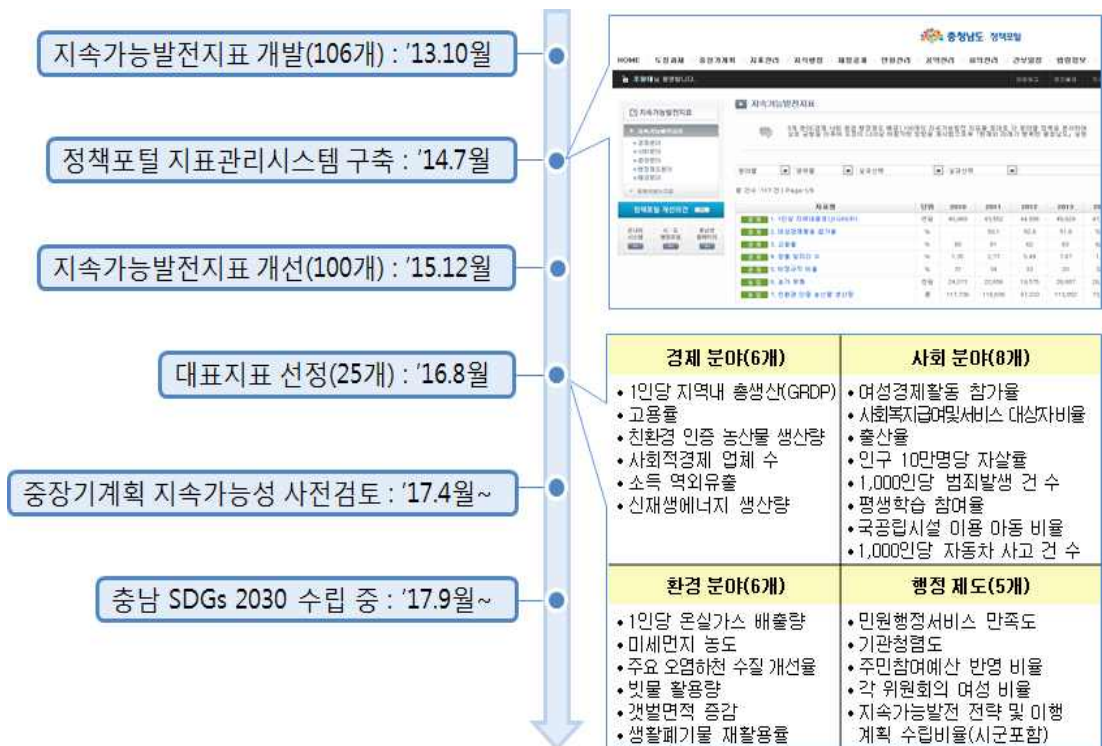
- 설치근거 : 「지가능발전법」 제21조,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 제23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 구성인원 : 위촉직(주민,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당연직(도 경제·사회·환경 등 관련 실·과장) 등 100여 명

또한 충청남도는 도정지표연구회를 통해 기본, 정책, 행복, 사회, 지속가능발전 등과 같은 다양한 지표를 연구하고 있고, 지속가능발전지표와 관련하여 도에서 지속가능발전팀을 운영하고 있다.

(2) 주요 추진성과

○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관리

충남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한 체제의 여러 분야에 대해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해주는 수단이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2013년 지속가능발전지표 106개를 개발했으며, 2015년 보완을 거쳐 100개(경제23, 사회24, 환경25, 행정제도21, 배경7)로 확정하였다. 100개 지표 중 중요한 지표 25개 대표지표로 선정하게 특별관리 하였으며, 관광과 관련된 지표는 여가생활 만족도 1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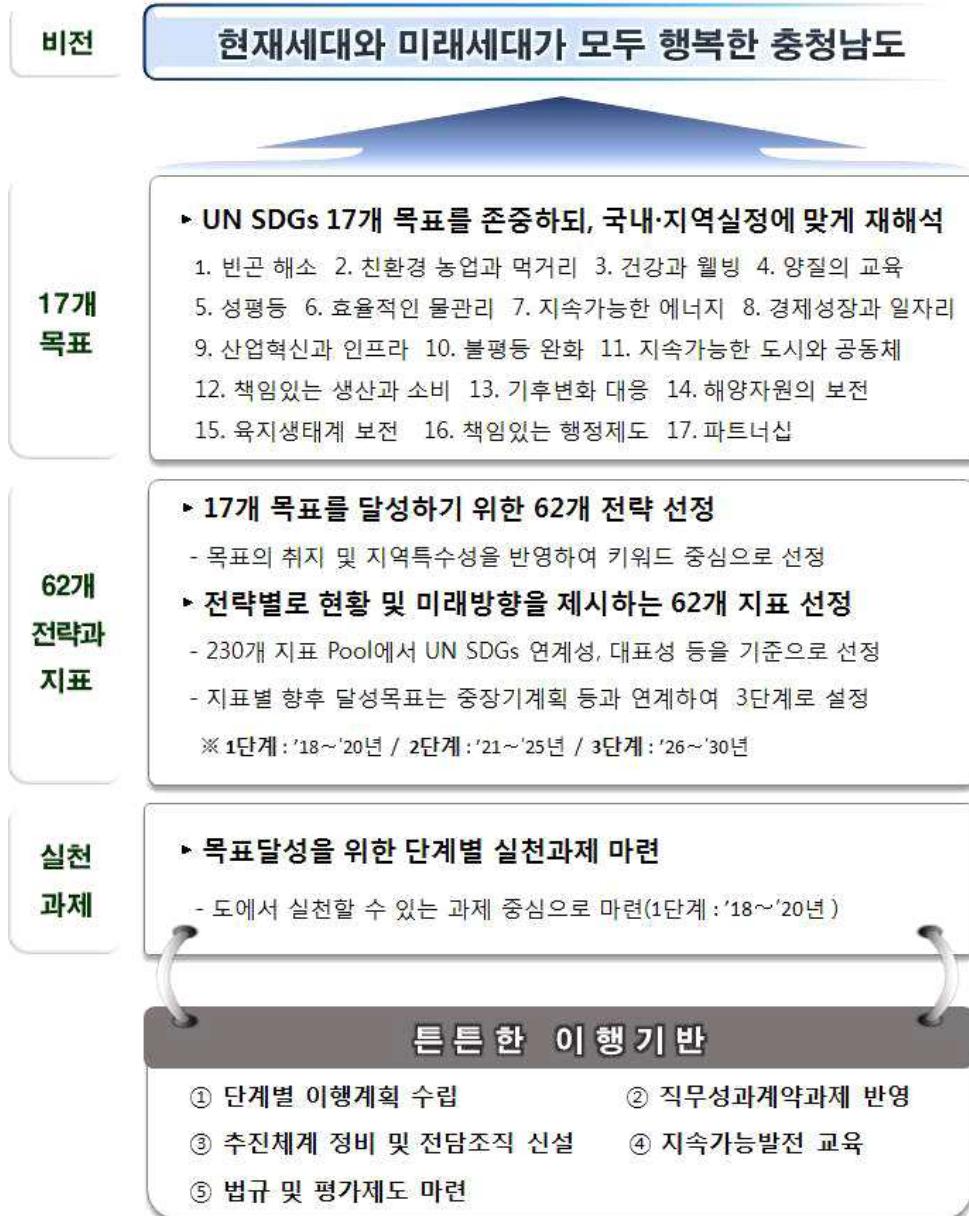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충청남도 내부자료

〈그림 3-3〉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경과

○ 지속가능발전목표

충청남도는 2015년에 제시한 모든 국가와 지방정부 단위에서 실천해야 할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따라 「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를 위해 실천과제별 세부사업을 도출하여 이행계획 마련, 체계적인 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3-4〉 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체계도

○ 관광관련 실천과제 및 세부사업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에서 관광과 관련된 사업은 목표 3의 건강과 웰빙부문에서 3-5-3 수요자 맞춤형 관광 활성화를 과제 및 사업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는 도민의 다양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여건(인프라) 조성으로 SDGs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3의 건강과 웰빙의 부합하는 사업이다.

목표달성을 위한 관광사업은 풍부한 문화자원의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도민의 여가 환경 제고를 목적으로 충청유교, 서해내륙권, 서해안~금강, 해양갯벌 등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자원 개발과 도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스마트한 정보제공으로 충남여행의 수요창출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은 유교문화관 개발 및 지원,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서해안~금강 L자형 생태휴양 관광벨트 조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스마트한 충남관광 정보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3-16〉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1단계 이행계획 관광관련 추진계획

구분	사업대상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도내 15개 시군 18개 사업	2019-2028 (10년간)	3300억원 (국비 1556, 지방비 1744)	충청유교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 등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천안시 등 7개 시군	2017~2026 (10년간)	1880억원 (국비 839, 지방비 1041)	대한독립만세길 조성, 노산근대역 사문화촌, 백제역사너울옛길, 매운고추체험나라,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서해안~금강 L자형 생태휴양 관광벨트 조성	당진시 등 4개 시군	2016-2021	1388억원 (국비 416, 지방비 124, 민자 848)	마리나 항만개발사업,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 탐정호 아쿠아 아일랜드 조성사업, 백마강 레저파크 활성화 사업
충남 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	1회 40여명	2018	40백만원	도내 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지 개발 및 탐방, 레저스포츠 체험
충남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육성	도내 중소규모 해수욕장 5개소	2017-2022		성장잠재력이 있는 해수욕장을 발굴하여 고유의 특색을 살리면서 힐링, 가족중심, 해양스포츠 등 차별화된 테마 중심의 휴양 및 체험형 해수욕장으로 조성
스마트한 충남관광정보 제공	충남관광 SNS운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스토리 관광콘텐츠 게시
	충남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월별 테마여행 콘텐츠 제작 및 웹진에 게시 홍보

관광부문 추진계획 및 사업의 평가와 관련한 성과지표는 실시설계 진행 시군 수,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개소수, 사업완료지구 개소수, SNS운영 팬 명수, 테마여행코스수, 역사문화탐방 수, 명품해수욕장 개소 수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3-17〉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1단계 이행계획 관광관련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추진실적		추진계획			합계 (~2020)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1년	
1 실시설계 진행 시군수	개소				3	4	7
2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총 11건 중 사업완료지구)	개소				2	1	3
3 사업완료지구	개소			1	2	1	4
4 충남관광 SNS 운영 팬 빌딩	명	2,896	23,942	15,000	10,000	10,000	61,838
충남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테마여행 코스 수	개	12	50	12	12	12	98
5 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	명	-	41	40	40	40	161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	식	-	2	-	-	3	5

2) 관련 정책동향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 푸른충남의제 21을 수립하였다. 푸른충남의제 21은 폐기물, 대기, 수질, 소음, 도시계획, 교통, 환경자치, 관광, 의료복지, 문화, 여성, NGO, 교육청소년, 농업, 해양, 에너지, 자연생태보전, 금강분야 실천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UN SDGs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표 3-19〉 참조).

〈표 3-18〉 UN SDGs와 푸른충남의제21 연계

UN SDGs	분야	의제명	주요지표
2. 식량/농업	농업	지속가능한 유기농업을 확대한다.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량
		농업용수의 수질을 개선한다.	- 1인당 1일 물 소비량
3. 건강/웰빙	의료복지	지역사회복지관과 보건소를 통한 건강 교육과 상담 기능을 활성화 한다.	- 1,000명당 의사 수 - 만성질환 유병률(고혈압, 당뇨병) - 중고생 비만율 - 중고생 아토피피부염 유병률
4. 교육	교육/청소년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시설을 확대한다.	- 평생학습 참여율
5. 양성평등	여성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을 증진한다.	-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여성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한다.	- 각위원회 여성 비율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6. 물	수질	하천과 호소를 맑고 깨끗하게 한다.	- 하천오염도(BOD) - 2급수 이상 하천 비율
	수질	물의 사용량을 줄이고 절약한다.	- 1인당 1일 물 소비량
	금강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물놀이 할 수 있는 금강만들기	- 2급수 이상 하천 비율
7. 에너지	에너지	전기에너지 소비절약을 통한 지역환경 개선	- 1인당 에너지 소비량 - 전력 자립도
8. 경제성장/일자리	관광	머물면서 참여하는 관광기반을 구축한다.	- 지역문화 보전발굴 육성 수
	관광	백제문화에 대한 내·외국인의 인식을 개선한다.	- 지역문화 보전발굴 육성 수
	문화	문예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 수요 창출	- 문화, 스포츠, 예술활동 참여율

UN SDGs	분야	의제명	주요지표
11. 도시/공간	소음	교통소음을 줄인다.	- 소음도
	소음	공장, 공사장 소음을 줄인다.	- 소음도
	도시계획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한다.	- ha당 입목축적량
	도시계획	생태농촌 문화마을을 조성한다.	- 문화, 스포츠, 예술활동 참여율
	교통	교통사고 최대지역에서 최소지역으로 변화시킨다.	- 1,000인당 자동차사고 건수
	교통	보행권 회복운동을 광범위하게 실행한다.	- 보도율
	의료복지	근린공원과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한다.	- 문화, 스포츠, 예술활동 참여율
12.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폐기물	버려지는 음식물 발생을 최소화 한다.	- 1인당 1일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줄여 푸른충남을 만든다.	-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
13. 기후변화	대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인다.	- 미세먼지 농도
14. 해양 생태/자원	해양	풍요롭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한다.	- 연안 오염도
15. 육상생태 /자원	도시계획	녹지생태계 및 녹지축을 보전, 복원한다.	- ha당 입목축적량
	자연생태 보전분야	미래세대에게 보전된 자연환경을 물려준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비율
16. 정의	환경자치	환경행정 관리 인력과 예산을 확대한다.	-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 고용률
	NGO	NGO의 역량을 강화한다.	- 주민참여예산 참여자 수 -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건수
	교육/ 청소년	이웃사랑 지역사랑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 자원봉사 활동율

자료: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지표 이행계획」

또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자 관련기관과 협력하기도 하고 권역별 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 실시, 지속가능발전 이해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지표 분석 및 피드백, 지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지표 개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미세먼지, 로컬 파트너십, 국제협력, 인권, 성(gender) 문제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고, 내포신도시와 같은 새로운 계획도시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 검토, 천안 200인 원탁토론회를 통한 도시의 미래 계획 수립, 공주시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시범사업 참여를 통한 구도심 재생 및 도시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문화 활동 증진 사례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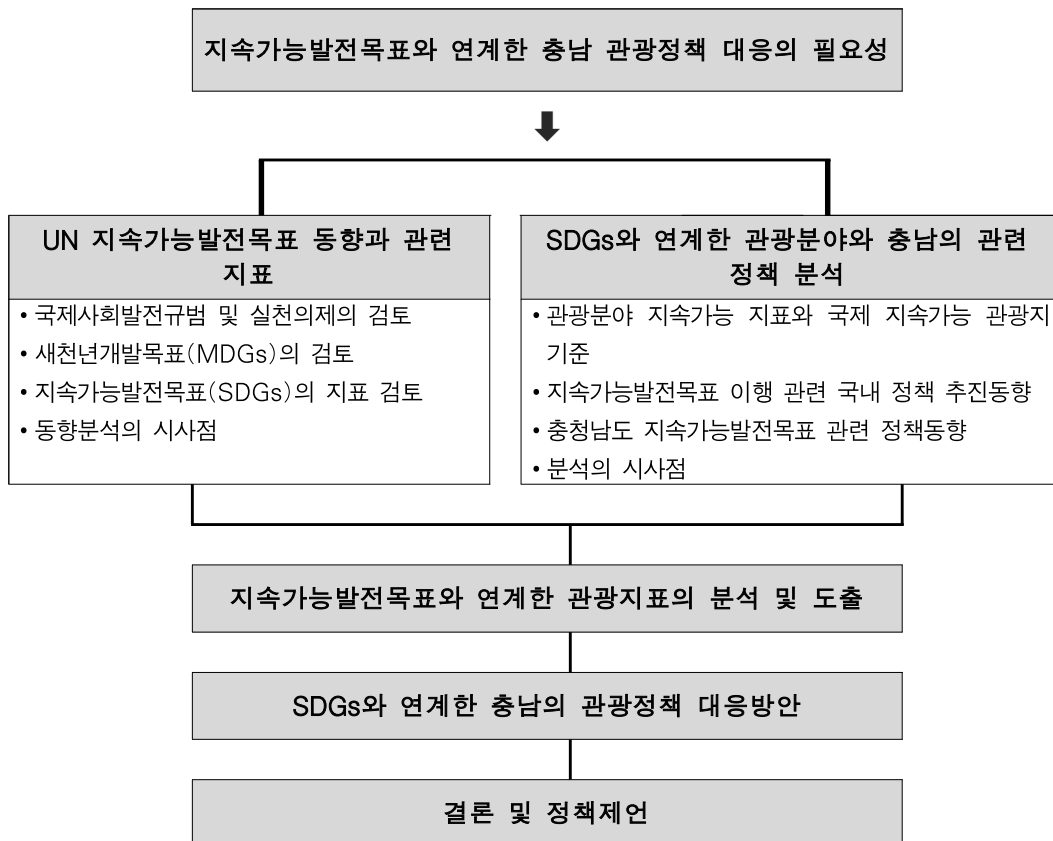
천안에서는 ‘베리어프리(Barrier Free) 활동을 통한 무장애도시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고, 아산에서는 ‘실질적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지표 정립과 실천사업 추진’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1위원 1지표 책임지표제 활동 전개를 계획하기도 하였다.

제4장 SDGs과 연계한 충남의 관광정책 대응방안

1. 접근 틀과 기본방향

(1) 접근 틀

본 연구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충남의 관광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접근 틀은 다음의 [그림 4-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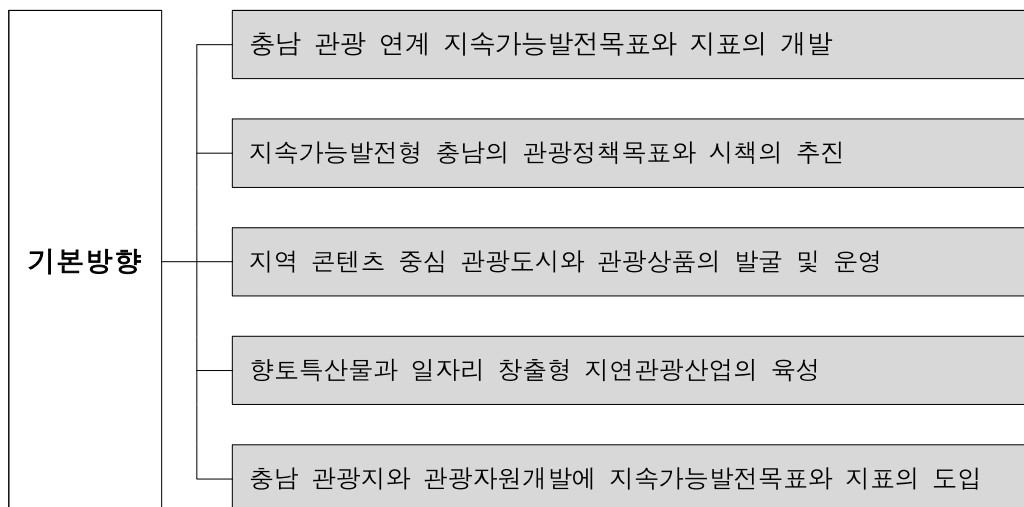


〈그림 4-1〉 접근 틀

(2) 기본방향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충남의 관광정책 대응방안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동향과 관련 지표와 SDGs와 연계한 관광분야와 충남의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관광지표의 분석 및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충남의 관광정책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1) 충남 관광 연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개발
- (2) 지속가능발전형 충남의 관광정책목표와 시책의 추진
- (3) 지역 콘텐츠 중심 관광도시와 관광상품의 발굴 및 운영
- (4) 향토특산물과 일자리 창출형 지연관광산업의 육성
- (5) 충남 관광지과 관광자원개발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도입



〈표 4-1〉 기본방향

2. SDGs과 연계한 충남 관광정책 대응방안

1) 충남 관광 연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개발

(1) 정책동향과 과제

국내 정책추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 중 지속가능한 관광지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지역주민 관광사업 참여와 관련 있는 지표로 지역주민 일자리 비율, 지역주민 의견 참여율, 관광지 지역기업 비율 등이었다.

지속가능 생산소비에 해당하는 지표는 지역경제 편익 창출(현지인 숙소, 음식점, 가이드 등),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유지·발전,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자원의 현명한 이용, 친환경적 개발, 지역자산의 활용(Re+), 에너지 및 자원 순환,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활성화 등이었다. 그리고 머물면서 참여하는 관광기반을 구축을 위한 과제로 지표는 지역주민 관광 수익률, 물 사용 저감율, 관광지 기업 에너지 저감 시설율, 저영향 교통수단 이용률, 쓰레기 저감율, 지역문화 보전발굴 육성수 등이 있었다.

육상생태와 자원에 해당하는 자연자원 보전, 생물다양성 추구를 위한 과제의 지표는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는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전을 위한 보존율, 자원 사용율 등이 있다.

국내 정책 검토에 따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지표는 지역주민의 관광 참여를 통한 지역 관광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많았으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관광의 지속가능성 부분과 지역자원의 재생산을 통한 관광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 연구를 통한 SDGs 17개 목표 중 지속가능한 관광지표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교육에 해당하는 것은 환경교육에 대한 과제의 중요성으로 지표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수, 환경전문가 육성 수, 관련 지침과 매뉴얼 여부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일자리에 해당하는 지표는 지역주민 관광사업 참여와 관련 있는 지표로 관광객수, 관광지 개발 지역주민 참여율, 지역주민 일자리 비율, 관광지 지역기업 비율 등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 생산소비에 해당하는 지표는 이용시설의 생태적 설계, 인프라 정도, 해설

수준, 체험프로그램 수준, 연계관광, 접근성, 숙박시설, 지역주민 환대서비스 태도에 대한 생태적 설계 여부, 생태시설 비율, 방문객 만족도 등이 있다.

육상생태와 자원에 해당하는 생태적 환경변화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 생태계 보존관리, 자연생태보존 지역비율 유지, 생물의 다양성 과제의 지표는 모니터링 시스템 여부, 생태보존 지역 유지 비율, 생물 다양성 조사 여부 등이 있다.

학술 연구 검토에 따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지표는 생태관광 중심의 환경교육 부분과 지역주민 소득 증대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2013년 지속가능발전지표 106개를 개발했으며, 2015년 보완을 거쳐 100개(경제23, 사회24, 환경25, 행정제도21, 배경7)로 확정하였다. 100개 지표 중 중요한 지표 25개 대표지표로 선정하게 특별관리 하였으며, 관광과 관련된 지표는 여가생활 만족도 1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에서 관광과 관련된 사업은 건강과 웰빙부문에서 수요자 맞춤형 관광 활성화를 과제 및 사업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국내 동향과 학술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SDGs 지표에 의하여 다양한 지표를 검토는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유형이 분류되거나 선정된 지표는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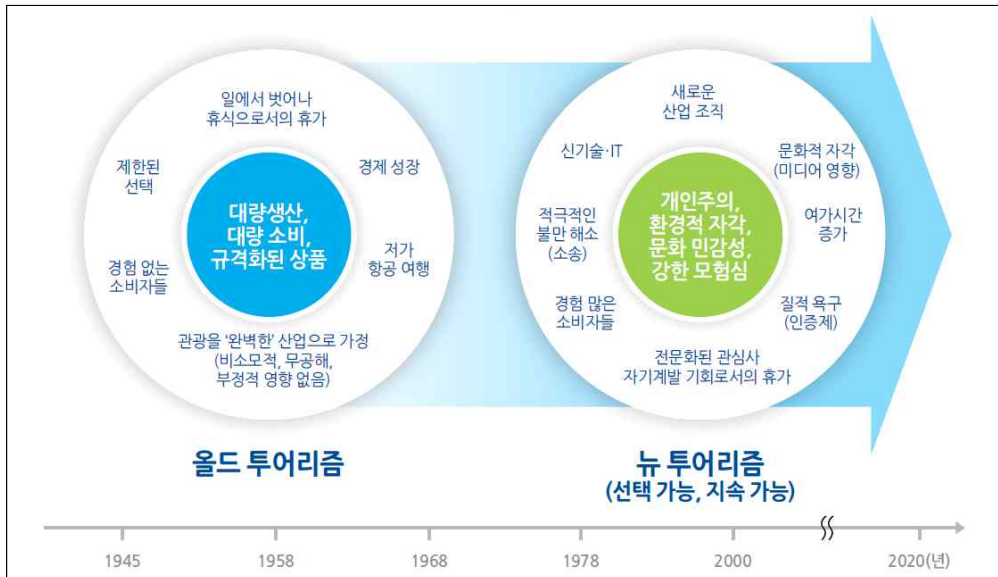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도 도정에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관리를 위해 비전과 17개 목표, 62개 전략과 지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관광관련 목표와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외 동향과 기존의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관광분야의 목표와 지표의 개발과 실행이 필요하다.

(2) 대응방안

세계적 차원에서의 관광트렌드 및 전망에 의하면, 환경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증가, 관광산업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 확대, 국내 관광수요 증대를 위한 국가들의 노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미래 관광 트렌드의 패러다임 및 형태는 문화, 예술, 의료, 생태, 어드벤처, 엔터테인먼트 등이 다각화 되고 각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뉴 투어리즘(New Tourism)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충청남도(2017), 제6차 충청남도 관광개발

계획).



자료: Deloitte Anjin Review(2015 No.5), 미래 관광 산업의 새로운 핵심 가치

〈그림 4-2〉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

국내동향에서는 관광의 기본 가치(Safe, Sustainable, Social)를 존중하는 여행이 확산 된다는 것이다. 관광분야에서 관광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 환경적 가치 존중의 지속적 확산, 사회적 가치 추구의 스펙트럼 다양화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안전이라는 관광 분야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으며, 관광안전이 관광객과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다.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자연친화적 관광활동과 환경친화적 관광자원 개발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더불어 복지관광,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 공정 여행(fair travel) 등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관광분야 안전사고 및 위기 대응 강화, 친환경적 또는 친자연적 관광 방안 모색, ‘모두를 위한 관광’ 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충청남도(2017), 제6차 충청남도 관광개발 계획).

이에 따라 앞의 정책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 및 국내동향에서도 지속 가능발전목표와 지표들이 국가 및 지역관광과 연계하여 개발되고 있고, 실제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으므로 충남에서도 관광과 연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의 충청남도(2017), 제6차 충청남도 관광개발계획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법정계획으로 수립되어 시행될 제7차 충청남도 관광개발계획에도 관광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지속가능발전형 충남의 관광정책목표와 시책의 추진

(1) 정책현황과 과제

충남에서는 다양한 광역권 계획에서 부터 충청남도의 지역개발계획 및 관광개발계획에 이르기까지 많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존의 계획은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2008~2017),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2016~2020), 금강비전 시행계획(2016~2030), 충남경제비전2030(2016~2030),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 (2017~2026), 제6차 충청남도 관광개발계획(2017~2021) 등이 수립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들 계획 중 제6차 충청남도 관광개발계획(2017~2021)에서는 비전과 목표에 따라 전략을 수립하여, 전략별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전	설렘가득 행복중심 충남관광		
정량 목표	2015년		2021년
국민국내관광수요	11.4% (공동 2위)	→	13% (단독 2위)
외국인 방문비율	1.3%	→	2.0%
문화관광예산 비중	4.6%	→	5.0%

자료 : 충청남도(2017), 제6차 충청남도 관광개발계획(2017~2021).

〈그림 4-3〉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표 4-2〉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전략과 추진과제

전 략	추진과제	
관광자원 절대가치화	1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중심
	2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생태관광 중심
	3	서해안시대 해양관광의 메카
트렌드 선도형 관광상품 개발	4	지역밀착형 문화관광상품 개발
	5	테마형 특화관광 콘텐츠 개발
	6	명품 축제/이벤트 육성
지역관광 역량강화	7	관광수용태세 혁신
	8	창조관광 생태계 조성
	9	협력형 관광거버넌스 구축
통합형 관광마케팅	10	요우커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
	11	충청남도 관광 브랜딩 관리 체계 구축
	12	통합 관광안내체계 개발 및 고도화

자료 : 충청남도(2017), 제6차 충청남도 관광개발계획(2017~2021).

이상과 같이 살펴본 제6차 충청남도 관광개발계획(2017~2021)의 비전과 목표, 과제 및 전략별 세부사업 등을 살펴보았다. 이들 계획을 살펴보면 전략과 추진과제 세부사업 등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용어와 사업명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으로 충남의 관광정책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 등이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관광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지속가능발전형 충남의 관광정책목표와 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단계까지 비전부터 사업시행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4-3〉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세부사업

추진과제		세부사업
1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중심	1) 백제 천년의 도시 조성
		2) 근대역사문화 거점 조성
		3)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2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생태관광 중심	4) 서해안 생태관광거점 조성
		5) 산림생태관광 거점 조성
		6) 내수면 생태관광 거점 조성
3	서해안시대 해양관광의 메카	7) 요트관광 활성화
		8) 크루즈 활성화
		9) 섬관광 활성화
4	지역밀착형 문화관광상품 개발	10) 충청남도 음식관광 투어상품 정보 제공
		11) 충남형 숙박상품 활성화
		12) 충남형 대중교통 활성화
5	테마형 특화관광 콘텐츠 개발	13) 전통시장 연계 관광진흥 사업
		14) '낯은 가치' 재발견 사업
6	명품 축제/이벤트 육성	15) 국제적인 메가이벤트 육성
		16) 지역주도형 축제 활성화
7	관광수용태세 혁신	17) 관광수용태세 품질인증제
		18) 충청남도 관광실태조사 실시
		19) 관광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20) 백제의 미소 캠페인 전개
8	창조관광 생태계 조성	21) 지역 관광기업 토탈 서비스 체계 구축
		22) 지식서비스형 관광기업 실태조사 실시
		23) 대학연계 청년 관광창업 활성화 지원
9	협력형 관광거버넌스 구축	24) 충청남도 관광포럼 운영
		25) 관광산업진흥기구 설립 및 운영
		26)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10	요우커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	27) 푸드&뷰티 투어상품 개발
		28) 대중국관계 관광안내정보 제공
		29) 대중국 관광 휴먼웨어 체계 구축
		30) 중국 현지마케팅 활성화
11	충청남도 관광 브랜딩 관리 체계 구축	31) 통합 관광브랜드 개발
		32) 콘텐츠 개발 및 스토리텔링 활용
		33) 공동 관광브랜드 마케팅 전개
12	통합 관광안내체계 개발 및 고도화	34) 빅데이터 기반 관광객 관리체계 구축
		35) 관광안내소 명소화
		36)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37) 표준형 관광안내지도 개발

자료 : 충청남도(2017), 제6차 충청남도 관광개발계획(2017~2021).

(2) 대응방안

지속가능발전형 충남의 관광정책목표와 시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지표와 연계한 관광정책의 관련 목표와 지표를 개발하여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단계로 충남의 관광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목표와 지표를 개발하여 법정계획 수립 및 개별 관광자원 개발사업 수립시 적용토록 해야 한다.

2단계는 충남의 관광정책목표와 시책의 추진을 위한 관광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적용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한다.

3단계는 각각의 매뉴얼에 의하여 충청남도과 각 시·군의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개별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진흥, 관광상품, 관광특산물의 개발 및 판매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활용한다.

3) 지역 콘텐츠 중심 관광도시와 관광상품의 발굴 및 운영

(1) 현황과 과제

충남의 관광사업은 풍부한 문화자원의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도민의 여가 환경 제고를 목적으로 충청유교, 서해내륙권, 서해안-금강, 해양갯벌 등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자원 개발과 도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스마트한 정보제공으로 충남여행의 수요창출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은 유교문화관 개발 및 지원,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서해안~금강 L자형 생태휴양 관광벨트 조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스마트한 충남관광 정보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관광부문 추진계획 및 사업의 평가와 관련한 성과지표는 실시설계 진행 시군 수,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개소수, 사업완료지구 개소수, SNS운영 팬 명수, 테마여행코스수, 역사문화탐방 수, 명품해수욕장 개소 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충남에서 지금까지 기존에 추진되어 온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관광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지

역 콘텐츠 중심 관광도시와 관광상품의 발굴 및 운영은 이들 사업과 연계하여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표 4-4〉 충남의 기존관광자원개발사업 현황

관광자원명		추진 주체	사업비 (백만원)	면적(㎡)	도입시설
15개소					
문화 관광 자원	서산마애삼존불 및 개심사 정비사업	서산시	6,834	2,908	관광편의시설 구축(주차장 및 진입도로)
	탐정호관광지	논산시	25,853	985,313	광장지구, 숙박지구, 역사/문화 체험지구 등
	백제호저수지	부여군	471,555	2,848,513	향토펜션, 전통호텔, 카누연습장, 체험공방, 과수체험단지, 곤충나라
	태양광에너지단지	태안군	285,473	1,031,043	갯벌체험공원, 골프장, 리조트, 콘도, 푸드코트 등
	홍양저수지	홍성군	7,030	473,323	체육공원, 공연장, 초화류공원, 골프장, 수영장, 캠핑장 등
	온천의료관광개발	아산시	5,700	-	메디컬센터/온천의료관광지 /온천의료관광축제
	휴먼투어랜드	당진시	-	-	슬로우 관광로드, 관광터미널, 역사/문화 관광거점 조성
	천빛사	천안시	2,500	1,800	애국열사 조형물, 호국충절 벨트의 거점지
	공주고도육성사업	공주시	322,900	2,033,460	공주고도육성기반 구축
	향적산권테마파크	계룡시	8,090	368,265	풍수테마파크, 수변생태공원, 인라인 X-GAME장, 전통약용식물원
생태 녹색 문화 자원	유부도 동아시아 철새생태지구	서천군	70,000	770,000	국제철새밴딩센터 설립, 철새주제 트레킹코스 개발, 철새탐조대
	개삼터인삼약초체험 단지	금산군	75,633	238,414	인삼약초박물관, 인삼체험 스파월드, 허브가든 헬스푸드 타운
	세브아일랜드창조관광 활성화사업	보령시	7,500	-	주민교육사업, 경관개선사업,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사업
	황새마을 조성사업	예산군	19,000	136,958	황새 사육장·번식장, 야외교육장 등
	까치내 관광휴양지	청양군	7,400	37,267	야영장, 테마공원, 캐빈하우스, 캠핑카, 취사장 등

자료 : 충남(2012), 제5차 충청남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2) 대응방안

중앙정부에서는 관광자원의 유형에 따라 추진해 왔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성과 콘텐츠에 맞는 국가자

원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다른 국가지원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어서 도출된 사업의 분류는 다음의 4개 유형, 17개 정책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충남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관광사업으로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표 4-5〉 국가지원 관광자원개발으로 계획 구상중인 사업

유형	정책 사업명	사업 내용
공간 재생형 (5)	(1) 지역관광 스토리텔링 거점 육성	· 지역 특성을 활용한 킬러콘텐츠 발굴·집중 지원, 아카이빙,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운영, 관광매개자 양성 등
	(2) 지역관광명소 포스트 플러스(+) 활성화	· 발굴~기획~접목~운영까지 논스톱으로 지원하고 노후관광시설내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실행까지 지원 등
	(3) 민간공공 유희시설 활용 관광 시설 재창조	· 민간·공공유희시설의 관광숙박시설 리모델링 조성 사업 시행 등
	(4) 관광디자인 기반 관광업사이클링	· 공간 및 시설의 디자인 요소와 콘텐츠를 구성함으로써 재활성화
	(5) 1시도 2글로벌 명품 관광명소화	· 시·도별 관광개발사업 중 2개 사업을 선별하여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재정 투자 및 지원
연계 협력형 (5)	(6) 지역관광자원개발 일괄계약공모	· 지역에서 필요 정책사업에 대한 총괄계획 수립후 일괄 공모 등
	(7) 연계협력형 관광클러스터	· 테마패키지관광 및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역특화 클러스터 등
	(8) 제2종 통합웨어 테마관광자원 개발	· 지자체 주도 및 정부 지원(2종 융합 지원)의 패키지형 관광자원 개발 사업 발굴 등
	(9) 스토리연계형 2기 협력형 관광자원 개발	· 연계 가능한 스토리 콘텐츠를 발굴·선정 사업화 등
	(10) 지역관광플러스원 개발·지원	· 지역 특화 투어패스의 개발 및 운영 등
역량 육성형 (3)	(11) 지역관광자원콘텐츠랩 운영·지원	· 지역관광콘텐츠랩(지역관광창고) 운영 기관 선정 지원 등
	(12) 지역관광혁신센터 운영·지원	· 지역관광혁신센터(지역관광정책지원단) 운영 기관 선정 지원 등
	(13) 지역관광자원개발지원단 운영·지원	· 정책평가팀 기능을 지방관광자원개발지원단 기능으로 확대 개편 등
융복합 접목형 (4)	(14) 융복합 관광서비스단지 조성·지원	· 도심내 관광상권을 형성한 거점에 각종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웨어 등 정비
	(15) 전통지식자원의 관광상품화 지원	· 대한민국 대표 전통지식 100선 발굴 및 교육콘텐츠화 등
	(16) 관광도시 국제관광브랜드 구축 지원	· 관광도시로서 차별화 된 관광브랜드 설정 등
	(17) 첨단기술 융복합 관광자원개발	·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관광 생태계 및 스마트경험 기반형 관광자원 개발 등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설문지.

4) 향토특산물과 일자리 창출형 지연관광산업의 육성

(1) 현황과 과제

충남에 있는 관광기념품과 지역특산물, 토속음식은 다종다양하다. 이는 상품으로 개발되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상품으로 개발되지 못한 것도 있다. 이들 중에는 관광기념품과 공예품보다는 지역특산물, 농수산물특산물, 토속음식 등이 많으며, 가공이 된 것과 가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표 4-6〉 충남의 지역특산물 현황

구 분	관광기념품	민예품 /공예품	지역특산물	농수산물	토속음식
천 안			호두과자	입장거봉포도	
공 주			계룡백일주	산수박, 밤, 통천포배, 표고버섯, 우성오이	따로국밥, 장어구이, 참깨매운탕, 밤막걸리
보 령	남포벼루		남포오석, 대천맛감,	청리양송이, 만세보령청결미, 꽃게, 오징어, 방울토마토	꽃게매운탕, 천북석굴구이,
아 산			엽연주, 선장김치	탕정포도, 오이, 아산청결미, 배, 도고쪽파, 사과	콩나물비빔밥
서 산			간월도어리굴절	육쪽마늘, 생강, 서산간척지쌀, 꽃게	
논 산			가야곡왕주, 참기름, 계룡산엿, 강경새우젓, 양추, 감식초, 맛가미된장, 간장	연산대추, 노성참게, 논산딸기, 양촌꽃감, 은진복숭아, 연산오골계	위어회, 오골계백숙, 황복탕, 장어구이
금 산			금산인삼, 인삼주, 경옥고	추부깻잎, 금산땅두릅, 금산배, 진산마늘	인삼어죽
연 기			전통메주, 약선으뜸김치	조치원배, 연기복숭아	평만두
부 여	백제토기		홍삼	백마강수박, 양송이버섯, 방울토마토, 백마강장어	장어구이
서 천		부채	하산모시, 한산소곡주, 삼선갈꽃비, 서천자하초	서천단감	
청 양			구기자주, 구기자농축액, 구기자한과	청양구기자, 고추, 화성느타리버섯, 맥문동	표고버섯전골, 구기갈비전골
홍 성		지승공예	광천토굴새우젓 (서해수산젓갈), 조선김	영지버섯, 은하방울토마토	홍동한우갈비, 대하구이
예 산		표주박		예산사과, 삽교쌀	더덕구이정식
태 안		태안해옥	정산포돌김, 까나리액젓	대하, 육쪽마늘, 화훼, 안면도건고추	낙지와 낙지탕
당 진			면천두견주	짜리고추, 당진쌀	

충남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념품 및 특산물은 농수산물과 토속음식 등 상품의 포장과 운송이 불편한 것들은 생산지와 생산지의 시내일원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가공과 운송이 가능한 것들은 생산지와 시내일원, 전국적인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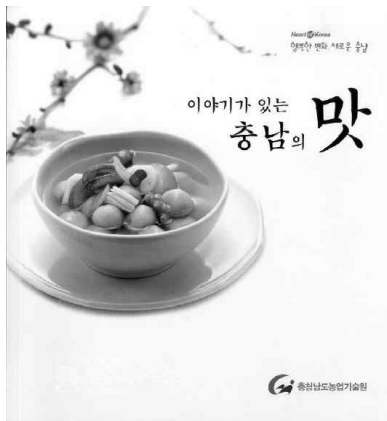
충청남도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큰잔치에 16개 시·군 50브랜드 150여 품목이 전시 판매 되고 있다. 홍성 내포천애, 논산 예그린, 부여 굿뜨래, 서산 뜰부기 쌀, 보령 머드 금산 인삼 등과 대표 브랜드농산물들이다. 공주 밤과 당진 쌀, 예산 사과, 태안 마늘, 청양 구기자, 서천 모시와 소곡주 모두 해외시장으로 나가는 우수 농산물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그 상품의 특화방법과 판매방법 등을 모색하는 한편 특히, 상품화를 통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형 지연관광산업의 육성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2) 대응방안

충남의 향토특산물과 일자리 창출형 지연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관광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화해 개발하고, 지역관광객을 위하여 지역특산물 상품판매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충남을 대표하는 우수한 특산물은 지역의 전통 특산물로 품질면에서의 명품 상품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남의 전통 특산물과 명품 관광상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관광상품 전문가와 쇼핑관광 등의 자문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충남의 관광기념품, 특산물, 향토음식물 등에 대한 전략 상품의 개발과 홍보마케팅 실시 및 다각적인 유통 및 판매촉진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전통산업의 관광특산물과 명품 관광상품의 개발은 공공에서 주도로 하고, 홍보마케팅과 유통 및 판촉은 민간기업체와 주민, 관련단체의 주도로 실시토록 한다.



5) 충남 관광지와 관광자원개발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도입

(1) 현황과 과제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의 개발사업은 덕산온천관광지, 아산온천관광지, 삼교호관광지, 금강하구둑관광지,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등이 있다.

그리고,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는 보령머드기반시설 조성, 성주산 남포오석 테마거리 조성, 수리치골 둘레길 조성, 중장천변 산책로 조성, 백제고도 르네상스 프로젝트, 백제문화공간(공원) 조성, 몽산포해수욕장 국민휴양서비

스공간 조성사업, 당진 우강 솔피권 명소화 사업, 구드래 관광자원화사업, 구드래 관광 자원화사업, 보령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 고대도 해양문화관광 개발사업, 고대도 해양문화관광 개발사업, 무성산 탐방로 조성, 한산모시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사업, 봉수산 주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 탑정호 노을물빛 관광자원화 사업, 창조지역마 을만들기(지붕없는 해미읍성), 호반의 도시 휴양·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칠갑산 휴양 랜드 보완사업,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콘텐츠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대응방안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

①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덕산온천관광지내 온천힐링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관광지 활성화 및 내포신도시 배후도시 역할 수행
- 사 업 내 용 : 온천폭포 설치 3개소, 예술의 정원 1식, 사색의 정원 1식
- 규 모 : 덕산온천관광지 A=42,000, 공원정비 1식
- 시행 및 주체 : 시군시행 (예산군)
- 지 원 근 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② 개선 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첫째, 시설조성 측면에서 온천폭포 설치에 있어 물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생태적 설계가 요구되며, 둘째, 시설 계획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통해 전체적인 계획 수립 후 진행이 요구되며, 셋째, 운영 및 관리측면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요구됨

② 아산온천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①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아산온천관광지 내 보도블럭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관광객의 통행불편해소 및 관광지 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지 활성화
- 사업 내용 : 아산온천 관광지 내 보도블럭정비 1식
- 규모 : 보도블럭정비 L=2.5km, B=2.0m
- 시행 및 주체 : 아산시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②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보도블럭 재료에 있어 친환경적 재료 사용을 통해 생태적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차량 중심의 이동 수단 고려에서 저탄소 저영향 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친환경적 지구 조성 방안도 요구됨

③ 삽교호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①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삽교호 관광기반시설(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해소 및 관광편의 증진
- 사업 내용 : 주차장조성(12,268㎡), 주차타워신축(2층 규모), 진입도로 정비(B=7, L=50m), 조경공사(사면보호공, 조경수 식재), 전기공사 1식, 기계공사 1식
- 규모 : A=12,268㎡(주차타워 신축)
- 시행 및 주체 : 시군시행 (당진시)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②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첫째, 주차장은 친환경 주차장 조성이 요구되며, 주차타워의 경우 에너지 절약형 설계를 통한 시설 조성과 삽교호 관광지 전체에 저영향 교통수단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시설 계획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통해 전체적인 계획 수립 후 진행이 요구되며, 셋째, 운영 및 관리측면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주민 소득 증대 방안 마련이 요구됨

4 금강하구둑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①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후화된 금강하구둑 관광지 기반시설 등 정비를 통한 연계 관광 자원(국립생태원, 해양자원박물관, 조류생태전시관, 장항스카이워크 등)과 연계를 통한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
- 사업 내용 : 기반시설 정비(가로등, 보도블럭, 공원 및 광장 정비 등)
- 규모 : 금강하구둑관광지 정비 A=6,400㎡
- 시행 및 주체 : 시군시행 (서천군)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②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첫째, 시설조성 측면에서 기반시설 정비에 있어 가로등의 경우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시설 조성으로 전기에너지를 대체하고 보도블럭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여 설치하고 주차장은 친환경 주차장 조성이 요구되며, 둘째, 시설 계획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통해 전체적인 계획 수립 후 진행이 요구되며, 셋째, 운영 및 관리측면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주민 소득 증대 방안 마련이 요구됨

⑤ 보령머드기반시설 조성

①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에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조성하여 보령~안면도간 연육교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에 선제적 대응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
- 사업 내용 : 경관조명 3개소, 경관녹지정비 A=8,900㎡, 노후관광시설물정비 1식
- 규모 : A=184,448㎡
- 시행 및 주체 : 시군시행 (보령시)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②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시설조성 측면에서 기반시설 정비에 있어 경관조명의 경우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시설 조성하고 대천해수욕장 전체의 개발 확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등을 고려한 녹지 비율 등의 유지를 위한 노력 필요

⑥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①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만리포 해수욕장은 서해안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유류유출 피해 극복 이후에 많은 관광객이 다시 지역을 찾고 있어 체계적인 관광지 조성(해수욕장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이 필요
- 사업 내용 : 만리포해수욕장 내 관광인프라 확충 및 조성
- 규모 : 관광지 A=321,561.8㎡
- 시행 및 주체 : 시군시행 (태안군)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②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첫째, 시설조성 측면에서 기반시설 정비에 있어 유류유출피해지역이라는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친환경 시설 위주

의 시설조성이 필요하며, 특히 현수교는 생태적 설계를 통해 진행하고 다목적광장 및 전망대, 운동시설, 화장실, 주차장 등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시설과 에너지 절감형 시설로 조성하며, 둘째, 만리포 해수욕장 전체에 대한 친환경 계획 수립과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특히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과 만리포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지역주민 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함

[7] 성주산 남포오석 테마거리 조성

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이 보유한 자연자원과 특산물인 오석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객을 내륙으로 유입시켜 체류시간 연장을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사업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옥마산 일원 (명천동 ~ 성주면)
- 사업량 : 오석테마거리 및 경관시설 조성 1식
 - 진입로 주차장정비 1식, 편백나무 힐링숲 조성 1식, 테마형전망대 설치 1식, 상징조형물 및 안내판 설치 1식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 사업내용 : 내륙지역인 성주산 일원에 지역특산물인 오석을 활용한 테마거리 조성
- 지원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②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첫째, 시설조성 측면에서 테마형 전망대, 주차장 등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시설과 에너지 절감형 시설로 조성하며, 둘째, 편백나무 힐링숲 조성 시 주변 식생과 생물 다양성 조사 등을 통해 자연환경이 보존 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과 남포오석테마거리 조성에 지역주민 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함

[8] 수리치골 둘레길 조성

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주 수리치성지는 1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천주교의 기도공간과 생활공간으로 둘레길 조성사업을 통하여 수리치성지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

리고 관광객에게 힐링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사업 내용 : 천주교 성지 둘레길 조성
- 규모 : 둘레길 조성 L=3.0km, 주차장 1식, 화장실 설치 1식, 광장2개소 등
- 시행 및 주체 : 시군시행 (공주시)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②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첫째, 시설조성 측면에서 둘레길 조성과 주차장은 생태적 설계를 통해 진행하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시설로 조성하며, 둘째, 화장실과 광장 등의 시설 조성에 있어서 에너지 절감형 시설 조성이 필요함

9] 중장전변 산책로 조성

①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계룡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계룡저수지의 입지특성을 살린 중장전변 산책로 조성 및 데크 길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의 휴식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 내용 : 계룡저수지 산책로 조성
- 규모 : 산책로 조성 L=3.3km, 주차장 등
- 시행 및 주체 : 시군시행 (공주시)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②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시설조성 측면에서 산책로 조성 및 주차장은 생태적 설계를 통해 진행하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시설로 조성하여 주변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성

10 백제고도 르네상스 프로젝트

①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관광명소 2개소에 대한 야간경관 조명 설치로 생동감 넘치는 도시 이미지 구현
- 사업 내용 : 경관조명 설치 1식
- 규모 : $A = 351,492\text{m}^2$
- 시행 및 주체 : 시군시행 (부여군)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 2항

②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궁남지 야간 경관 조명 설치와 구드래 야간 경관조명 설치 시 태양광 에너지 이용 등을 통한 에너지 사용 최소화하고 특히 궁남지 야간 경관조명 설치 시에는 주변 연꽃과 수목의 식생을 고려한 최소한의 경관 조명 설치가 필요함

11 강경 문화공간(공원) 조성사업

①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강경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공간 조성
- 사업 내용 : 강경 문화관, 체험공방, 야외무대, 문화마당 등
- 규모 : 부지면적 $2,948\text{m}^2$ /연면적 956m^2
- 시행 및 주체 : 시군시행 (논산시)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②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첫째, 시설조성 측면에서 강경 문화관, 체험공방, 야외무대, 문화마당 등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시설과 에너지 절감형 시설로 조성하며, 둘째, 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업체의 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함

12 몽산포해수욕장 국민휴양서비스공간 조성사업

①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몽산포 해수욕장은 서해안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유류유출 피해 극복 이후에 많은 관광객이 다시 지역을 찾고 있어 체계적인 관광지 조성(해수욕장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이 필요
- 사업 내용 : 몽산포해수욕장 내 관광인프라 확충 및 조성
- 규모 : 해수욕장 기반시설 설치(전망대, 관광안내소, 화장실, 샤워장 등)
- 시행 및 주체 : 시군시행 (태안군)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②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첫째, 시설조성 측면에서 기반시설 정비에 있어 몽산포해수욕장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생태적 설계를 통해 친환경 시설 위주의 시설조성이 필요하며, 특히 전망대, 관광안내소, 화장실, 샤워장 등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시설과 에너지 절감형 시설로 조성하며, 둘째, 몽산포 해수욕장 전체에 대한 친환경 계획 수립과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특히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과 몽산포 해수욕장 조성에 지역주민 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함

13 당진우강 솔뫼권 명소화

①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가사적 제529호와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가치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세계적 명소화·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추진
- 사업 내용 : 광장조성 A=38,434㎡, 기념탑설치
- 규모 : 광장조성 A=38,434㎡
- 시행 및 주체 : 시군시행 (당진시)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②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시설조성 측면에서 광장조성 시 친환경 소재의 사용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절감형 시설 조성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녹지 비율에 대한 확보를 통해 지구 전체에 대한 생태적 설계와 친환경 시설 조성

14 구드래 관광자원화사업

①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부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구드래 조각공원 내에 백제금동대향로의 컨셉을 담은 바닥분수를 설치하여 여름철 방문객 유치 및 이용객에게 청량감을 제공함
- 사 업 내 용 : 구드래 조각공원 주변 관광인프라 확충 및 조성
- 규 모 : 바닥분수(지름 34m), 조형물(H=3.0m) 설치
- 시행 및 주체 : 시군시행 (부여군)
- 지 원 근 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 2항

②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첫째, 시설조성 측면에서 바닥분수 조성 시 친환경 소재의 사용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절감형 시설을 조성하고 둘째, 구드래 관광지 조성에 있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한 시설 마련과 지역 업체들의 참여 유도 방안 마련이 필요

15 보령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

① 사업개요

- 사업목적: 보령8경 중 하나인 보령댐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 부족한 관광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내륙 관광활성화 도모
- 사업위치: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보령댐 주변
- 사 업 량: 데크로드 조성(L=1.3km, B=1.5m), 주차장 조성(A=3,000㎡), 포토존 및 휴게쉼터 조성(A=5,000㎡), 경관조명 개선 1식

- 사업시행주체: 보령시
- 사업내용: 내륙지역인 보령댐 일원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 지원근거: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②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시설조성 측면에서 산책로 조성과 주차장은 생태적 설계를 통해 진행하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시설로 조성하여 주변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성

16 고대도 해양문화관광 개발사업

①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고대도 일대를 해양문화·관광 등의 종합관광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보령~안면도간 연육교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에 선제적 대응
- 사업 내용 : 테마산책로 조성(포토존 2개소, 경관조명 30개소, 바다전망대 1개소, 갯벌탐방로 L=500m), 관광편의시설(화장실 2개소, 관광종합안내판 2개소 등)
- 규모 : A=8,954㎡
- 시행 및 주체 : 시군시행 (보령시)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②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시설조성 측면에서 태양광가로등 등 경관조명 사용 등을 계획하고 있어 일부 시설은 에너지 절감형 시설을 도입하고 있으나, 화장실, 전망대 등에도 에너지 절감 시설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갯벌탐방로 조성 시 친환경적 조성을 통해 갯벌 자원의 보호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필요

17 무성산 탐방로 조성

①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무성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홍길동전의 배경 지역이라는 테마를 연계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주민, 관광객을 위한 휴양·체험공간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 도모
- 사업 내용 : 무성산 탐방로 조성
- 규모 : 탐방로 조성 L=6.5km, 쉼터 2개소 등
- 시행 및 주체 : 시군시행 (공주시)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②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시설조성 측면에서 산책로 조성 및 쉼터는 생태적 설계를 통해 진행하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시설로 조성하여 주변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성

18 한산모시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사업

①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한산모시짜기의 브랜드 가치를 연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 체험공간조성으로 관광객의 오감을 감동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창출 및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 도모
- 사업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1089 한산모시관 일원
- 사업량 : 다목적광장 조성 6,600㎡, 주차장 조성 3,000㎡, 편의시설 설치 등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내용 : 1,500년 역사의 한산모시짜기, 한산모시관 주변 관광자원 개발
- 지원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②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시설조성 측면에서 다목적광장, 주차장 조성 시 생태적 설계를 통해 진행하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시설로 조성하여 주변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성

19 봉수산 주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

①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대흥봉수산주변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여 연계관광 활성화
- 사업 위치 : 충남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274번지, 278번지 주변
- 사업량
 - 규모 : 부지면적 2,000㎡(부지조성 면적 1,900㎡), 건축연면적 100㎡
 - 시설 : 장터(저잣거리) 1,500㎡, 참수터 400㎡, 감옥 100㎡, 안내표지판, 월아트 등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예산군
- 사업 내용 : 장터(저잣거리) 1,500㎡/조형물 20개, 참수터 400㎡/조형물 5개, 감옥 100㎡/건물 1식, 안내표지판 10개소, 기타 월아트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②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지역민의 수익 창출을 위해 수익시설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지역민 대상 교육을 통해 지역민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조성

20 탐정호 노을물빛 관광자원화 사업

①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탐정호의 노을물빛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 조성과 논산천 탐정지구 하천정비 지역(하천생태공원)을 연계하는 「밤에 빛나는 탐정호」를 테마로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
- 사업 내용 : 탐정호 인근 쉼터 및 경관 조명 등 관광인프라 확충 및 조성
- 규모 : 탐정호 인근 쉼터 및 경관 조명 등 관광인프라 1식
- 시행 및 주체 : 시군시행 (논산시)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②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하천생태공원의 생태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조성하고 경관 조명 등은 태양광 시설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형 시설로 조성하고 화장실 등의 시설 조성에 있어 물 사용 저감 시설 조성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21 이상재선생 나라사랑 체험공간 조성사업

①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이상재선생의 나라사랑 체험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관람객 만족도 향상 및 지역관광 활성화
- 사 업 내 용 : 체험관 400㎡ 및 외부 휴게공간 조성
- 규 모 : 체험관 400㎡ 및 외부 휴게공간 조성
- 시행 및 주체 : 시군시행 (서천군)
- 지 원 근 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②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체험 및 휴게공간 조성에 있어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시설 조성 및 에너지 절감형 시설 조성을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지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작부터 지역민의 참여유도를 통해 지역 문화를 활용한 지역 소득 창출 방안 마련 필요

22 창조지역마을만들기(지붕없는 해미읍성)

①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의한 보조금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으로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 증대
- 사 업 내 용 : 성곽다목적체험장, 성곽스테이체험장(야영장), 홍보안내판 설치 구) 해미초등학교(폐교) 활용사업

- 시행 및 주체 : 서산시
- 지원 근거 :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②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체험 및 휴게공간 조성에 있어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시설 구성과 에너지 절감형 시설 구성을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지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작부터 지역민의 참여 유도를 통해 지역 문화를 활용한 상품개발과 지역 업체의 참여 유도 및 실질적인 지역주민 소득 창출 방안 마련 필요

23 호반의 도시 휴양·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①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탐정호 수변데크,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아쿠아 아일랜드 등 논산시 역점사업인 탐정호 수변개발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탐정호의 랜드마크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사업 내용 : 출렁다리 조성 L=600m, B=2.0m, 경관조명 조성 등
- 규모 : 출렁다리 조성 L=600m, B=2.0m
- 시행 및 주체 : 시군시행 (논산시)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2)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출렁다리 구성에 있어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구성과 경관조명 구성에 있어서는 태양광 시설 등의 천연에너지 사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형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24 칠갑산 휴양랜드 보완사업

①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현 시설 보완과 주변관광 시설과 연계거점으로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극대화 개인, 직장, 가족단위 힐링·치유에 맞는 휴양시설과 다양체

험거리 제공

- 사 업 내 용 : 다기능 휴양관(연면적 1,198㎡ 내외, 지상 3층), 물놀이장(연면적 300㎡ 샤워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펜션동 신축(펜션동 5개동(2층) 증축(연면적 250㎡))
- 규 모 : 칠갑산 휴양랜드 조성 1식
- 시행 및 주체 : 시군시행 (청양군)
- 지 원 근 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②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다기능 휴양관, 펜션동의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시설과 에너지 절감형 시설 사용으로 시설을 조성하고 물놀이장은 물 사용 절감형 시설 사용을 위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시설 계획이 필요하며, 지역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상품 개발과 시설 마련이 요구됨

25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콘텐츠 강화사업

①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백제촌 조성 및 백리산과의 횡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기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의 활성화 및 주변 자연환경을 연계하여 새로운 가족 단위의 문화체험의 관광벨트 기반 조성
- 사 업 내 용 : 백제촌 조성(한옥마을,저잣거리), 주차장 조성
- 규 모 : 백제촌 조성(한옥마을,저잣거리), 주차장 조성 1식
- 시행 및 주체 : 시군시행 (청양군)
- 지 원 근 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② 개선방안

-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시설조성에 있어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시설 조성계획과 에너지 사용에 있어 태양열, 지열 등을 활용한 에너지 시설 마련으로 에너지 절감형 시설을 조성하여 친환경 시설로 조성이 필요하며, 지역 업체의 참여를 통해 수익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유치 노력이 요구됨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종합정리

(1) 연구의 배경

2015년 10월 국제연합(United Nation, UN) 총회에서는 2015년 말 종료된 유엔의 새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 이어 새로운 국제사회 실천의제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다.

SDGs는 관련 분야의 전 세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working group)이 다년간에 걸쳐 연구·토의한 초안을 토대로 주요 이해당사자(국가, 지역, 시민단체 등)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190여 개 이행당사국들은 SDGs의 주요 의제를 이행함과 동시에 국가경영의 핵심가치와 전략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를 비롯한 한국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관광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관리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특히, 유엔은 SDGs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을 “International Year of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로 정하고 관광분야에서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지속가능한 개념에 대해 대한 이해부족과 함께 관련 지식이 창출되고 전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할 거버넌스 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단위에서의 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실천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충청남도에서도 지속가능 관광목표 설정으로 모범적 역할과 함께 충남지역을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으로 유도할 수 있는 관광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시가 필요한 시

점이다.

이에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와 실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대응방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2) 이론적 고찰

① 국제사회 발전규범 및 실천의제의 출현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제사회에 의제로 떠오른 「인류 환경에 관한 최초의 UN 총회」가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지 46년이 되었다. 하지만, 세계는 아직도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2012년에는 Rio+20 정상회의를 통하여 UN 지속가능한 발전 회의를 개최하여, 새천년 개발의제 (MDGs)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SDGs)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하였다.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인간안보의 결정적 위협요인인 빈곤감소가 더 이상 추상적 논의와 담론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이의 해결을 위한 국제규범 및 목표 설정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2000년에 새천년개발목표(MDGs), 15년이 지난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총 17개 목표 169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SDGs의 17개 목표는 사회발전, 경제개발, 환경의 영역에 걸쳐있으며 SDG 16과 SDG 17은 이행기제에 해당하는 목표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는 부문별로는 17가지의 목표(goal)속에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다.

② 관광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와 의미

그 동안 관광산업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와 다양화를 경험하며, 기타 산업에 비해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또한 관광은 관광산업 자체는 물론 농업 및 건설, 더 나아가 수공업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산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후방 산업으로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은 일반적으로 타 분야에 비해 물, 에너지, 토지와 해양 및 해안개발 등 환경적 요인에 의존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는 온실가스 증대에 따른

기후변화는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광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유형으로써 생태관광 및 녹색관광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표방하면서 생태 및 녹색 관광정책과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3) SDGs과 연계한 관광 분야의 지표분석과 충남의 관련 정책분석

① 관광분야 지표 및 정책과제 선정방법

SDGs에 대응하는 관광 분야 정책 지표와 관련 정책과제 제안 목적은 SDGs의 목표에 비추어 관광 관련 정책적 행위를 유도·평가·관리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방차원의 구체적인 지침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지표 및 정책과정 선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SDGs와 관광 분야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SDGs의 17개 목표 범주에 입각해 관광정책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하고 세부 분야를 설정한다. 둘째, 지표와 과제는 문화·관광과 같은 문화체육관광의 소관 정책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관광 관련 정책 행위까지 포괄한다. 셋째, 체계적·객관적 방법을 통해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관광분야 지표와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따라서 관광과 지속가능에 관한 국제규범과 우리나라 관광정책 관련 연구보고서를 종합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지표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안하였다.

② 관광분야 지속가능 지표와 국제 지속가능 관광지 기준

국제지속가능관광기준은 지속 가능한 관광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관광관리기관이 도달하기 위해 지향해야 하는 최소한의 일들을 의미한다.

지속 가능한 관광의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표를 포함하는 학제적이고도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관광지 관리증명, 둘째, 관광지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셋째, 지역사회와 방문자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편익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넷째, 환경에 대한 편익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등이다. 이러한 기준은 모든 유형 및 규모의 관광지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국제지속가능관광 관광지 기준이 적용이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제공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준을 최대한 실용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지역의 규제사항, 환경적·사회적·경제적 또는 문화적 상황에 따라 이 기준이 특정 관광지나 관광지 관리기관에 적용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관광지는 서로 다른 많은 기업과 기관과 개인들로 구성되므로 이들 기준의 적용은 누적된 활동효과들을 철저하게 고려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관광지 수준 규모에서의 평가는 대개 개별적인 규모에서의 누적 효과들의 최종결과를 담아낸다. 그러나 영향모니터링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닌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③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관련 국내 정책추진 동향

지속가능발전' 이 비단 SDGs에서 새롭게 제기된 것이 아닌 만큼 국내에서 또한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 확산과 실효적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의제21'을 채택한 계기로 1996년에는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이행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 방안 연구(2015)”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서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성이 순환을 이루면서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국내 정책 검토에 따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지표는 지역주민의 관광 참여를 통한 지역 관광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많았으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관광의 지속가능성 부분과 지역자원의 재생산을 통한 관광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정책동향

충남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한 체제의 여러 분야에 대해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해주는 수단이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2013년 지속가능발전지표 106개를 개발했으며, 2015년 보완을 거쳐 100개(경제23, 사회 24, 환경25, 행정제도21, 배경7)로 확정하였다. 100개 지표 중 중요한 지표 25개 대표지표로 선정하게 특별관리 하였으며, 관광과 관련된 지표는 여가생활 만족도 1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자 관련기관과 협력하기도 하고 권역별 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 실시, 지속가능발전 이해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지표 분석 및 피드백, 지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지표 개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미세먼지, 로컬 파트너십, 국제협력, 인권, 성(gender) 문제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고, 내포신도시와 같은 새로운 계획도시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 검토, 천안 200인 원탁토론회를 통한 도시의 미래 계획 수립, 공주시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시범사업 참여를 통한 구도심 재생 및 도시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문화 활동 증진 사례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2) 정책제언

(1) 기본방향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충남의 관광정책 대응방안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동향과 관련 지표와 SDGs와 연계한 관광분야와 충남의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관광지표의 분석 및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2) SDGs와 연계한 충남 관광정책 대응방안

① 충남 관광 연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개발

세계적 차원에서의 관광트렌드 및 전망에 의하면, 환경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증가, 관광산업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 확대, 국내 관광수요 증대를 위한 국가들의 노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미래 관광 트렌드의 패러다임 및 형태는 문화, 예술, 의료, 생태, 어드벤처, 엔터테인먼트 등이 다각화 되고 각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뉴 투어리즘(New

Tourism)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및 국내동향에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들이 국가 및 지역관광과 연계하여 개발되고 있고, 실제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으므로 충남에서도 관광과 연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의 충청남도(2017), 제6차 충청남도 관광개발계획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법정계획으로 수립되어 시행될 제7차 충청남도 관광개발계획에도 관광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형 충남의 관광정책목표와 시책의 추진

지속가능발전형 충남의 관광정책목표와 시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지표와 연계한 관광정책의 관련 목표와 지표를 개발하여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단계로 충남의 관광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목표와 지표를 개발하여 법정계획 수립 및 개별 관광자원 개발사업 수립시 적용토록 해야 한다. 2단계는 충남의 관광정책목표와 시책의 추진을 위한 관광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적용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한다. 3단계는 각각의 매뉴얼에 의하여 충청남도 및 각 시군의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개별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진흥, 관광상품, 관광특산물의 개발 및 판매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활용한다.

③ 지역 콘텐츠 중심 관광도시와 관광상품의 발굴 및 운영

중앙정부에서는 관광자원의 유형에 따라 추진해 왔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성과 콘텐츠에 맞는 국가자원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다른 국가지원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어서 도출된 사업의 분류는 다음의 4개 유형, 17개 정책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충남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관광사업으로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④ 향토특산물과 일자리 창출형 지연관광산업의 육성

충남의 향토특산물과 일자리 창출형 지연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관광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화해 개발하고, 지역관광객을 위하여 지역특산물 상품판매를 추

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충남을 대표하는 우수한 특산물은 지역의 전통 특산물로 품질면에서의 명품 상품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남의 전통 특산물과 명품 관광상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관광상품 전문가와 쇼핑관광 등의 자문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충남의 관광기념품, 특산물, 향토음식물 등에 대한 전략 상품의 개발과 홍보마케팅 실시 및 다각적인 유통 및 판매촉진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전통산업의 관광 특산물과 명품 관광상품의 개발은 공공에서 주도로 하고, 홍보마케팅과 유통 및 판촉은 민간기업체와 주민, 관련단체의 주도로 실시토록 한다.

⑤ 충남 관광지와 관광자원개발에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도입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의 개발사업은 덕산온천관광지, 아산온천관광지, 삼교호관광지, 금강하구둑관광지,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등이 있다.

그리고,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는 보령머드기반시설 조성, 보령머드기반시설 조성, 성주산 남포오석 테마거리 조성, 수리치골 둘레길 조성, 등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SDGs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충남 관광정책 대응방안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의 학술연구와 정책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정책 등을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을 추진하는 충남도와 시·군의 현장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수렴과 충남 전 시·군에 대한 깊이 있는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및 자료

- 강신겸(2004), 지속가능한 관광실태 및 성공조건, 국토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6-14-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부처 합동(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계획(2016~2035),
광주광역시(2018),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2030
구형수 외(2016),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월)
권상철·박경환(2017),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의 이행
- 그 기회와 한계.
김대관(200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표연구, 한국관광연구원
김성일, 박석희(200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일신사
김태완·이주민(2016),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추진 전략과 주요 내용: 빈곤
및 불평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6.10, pp.72-85
김호석 외(2016), Post-2015 개발의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
노영순 외(2017),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문화정책의 대응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도운 외(2016). 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박한규(2008), 인간안보와 글로벌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MDGs)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pp.222-238
변혜원(2015),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표 연구 : 수용력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
교 문화대학원
손혁상외(2014), 국제개발 규범형성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 : 새천년개발목표
(MDGs)와 Post-2015 프레임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4(1),
pp.231-265
이성태(2015), 10YFP 지속가능한 관광프로그램 관련 국제적 동향분석 및 아젠다 개
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임소영·김성규·김지혜(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산업 부문의 효과적인 국내이행을 위한 기초연구, 산업연구원

전웅(2004)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44(1)

조을생 외(201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환경부
(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속가능발전포털(ncsd.go.kr/app/sub02/20_tab3.do)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지표 이행계획」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충청남도(2018), 충남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1단계(2018~2020) 이행계획 수립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Global Environmental Policy」제98호

환경부(2017),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국내 이행현황 및 추진과제 분석연구

황세영 외(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국외 문헌 및 자료

OECD(2016), An OECD Action Plan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MUN(2016), 2016-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지속가능한발전 목표
SDGs 종합 보고서

WTO(1993),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Guide for Local Planners

WTO(2017), “A roadmap for celebrating together” 2017 INTERNATIONAL OF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

부 록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Goal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1. 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인다.

1.3. 국가별로 최저 생계 보장 등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적절한 사회보장시스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기초 공공 서비스,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 · 유산 · 천연자원 · 적정신기술,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에 대한 접근에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1.5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복원력을 구축하고 기후 관련 재해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경감한다.

1.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이 모든 형태의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재원의 실제적 동원을 보장한다.

1.b 빈곤퇴치활동에 대한 투자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性)인지적 개발전략을 기반으로, 국가별·대륙별·국제적 차원에서의 견고한 정책프레임워크를 형성한다.

Goal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2.1 2030년까지 기아를 근절하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취약

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년 내내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애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 필요에 대응한다.

2.3 2030년까지 토지, 기타 생산자원 및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부문 고용의 기회 등에 대한 접근을 안정적이고 동등하게 보장함으로써,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선주민, 가족농, 목축민, 어민의 생산력과 소득을 두 배로 늘린다.

2.4 2030년까지 식량 생산성과 생산을 향상시키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 변화·기상이변·가뭄·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양과 토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을 보장하고 복원력 있는 농산물 관리를 실행한다.

2.5 2020년까지 국가별, 대륙별,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씨앗, 농작물, 가축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대로, 유전자 자원과 전통 지식 활용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보장한다.

2.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의 농업 분야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을 통해 농촌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서비스, 기술개발, 식물 · 가축 유전자 은행 설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2.b 도하개발라운드(DDR)의 의무조항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업수출보조금 및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모든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하여, 세계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와 왜곡현상을 바로잡고 방지한다

2.c 식료품 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고, 과도한 식량가격의 변동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식량 저장과 같은 시장 정보에의 적시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Goal 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3.1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모사망률을 100,000명 당 70명 미만 수준으로 낮춘다.

3.2 2030년까지 모든 국가들이 출생 인구 1,000명 당 적어도 신생아 사망률을 12명, 5세 미만 사망률을 25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신생아, 영유아,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근절한다.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열대질환(NTD)과 같은 전염병을 근절하며, 간염, 수인성 질환, 기타 감염성 질환을 퇴치한다.

3.4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산으로 인한 사망을 1/3 수준으로 줄이고, 정신 건강과 웰빙을 증진한다.

3.5 마약류,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3.6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를 절반으로 줄인다.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와 교육, 생식보건을 국가 전략 및 계획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 및 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3.8 재무위험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한다.

3.9 2030년까지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공기, 수질, 토지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을 대폭 줄인다.

3.a 모든 국가에서 적절하게 세계건강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이행을 강화한다.

3.b 개발도상국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특히 모든 사람에게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모든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선언(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에 따라,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3.c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의 보건 자원과 보건 인력의 채용, 개발, 훈련, 확보를 대폭 확대한다.

3.d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국내 및 국제적 건강 위협에 대한 조기 경보, 위험 경감과 관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Goal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초등 및 중등교육을 무료로 동등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 달성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양질의 영유아 발달과 보호, 취학 전 교육에의 접근을 보장한다.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양질의 지불 가능한 기술훈련, 직업 훈련,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한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

4.5 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한 사람들이 모든 수준에서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4.6 2030년까지 남녀불문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4.a 모두를 위해 아동, 장애, 성별을 배려한 교육시설을 건축하고 개선하며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4.b 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 기술 · 공학 · 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 아프리카 국가에 전달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늘린다.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의 교원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Goal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5.1 모든 곳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5.2 인신매매와 성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인 영역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

5.3 조혼, 강제 결혼, 여성할례 등 모든 유해한 관행을 없앤다.

5.4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을 통하여 무급 돌봄노동 및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

5.5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

5.6 세계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과 베이징 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및 검토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 및 생식보건,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5.a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 · 금융서비스 · 유산 · 천연자원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 접근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따라 개혁을 시행한다.

5.b 여성의 자력화를 증진시키는 구현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확대한다.

5.c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과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가 이루어지도록 견고한 정책과 시행 가능한 법안을 채택하고 강화한다.

Goal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설비에 대해 가용성과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안전한 식수への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달성한다.

6.2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여아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필요에 주목하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위생설비에의 접근을 달성하고 야외 배변을 근절한다.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 미처리 하수비율 절반으로 감축, 전 세계적인 재활용과 안전한 재사용 대폭 확대를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의 용수 효율을 대폭 증대하고,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담수의 추출과 공급이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하며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인구의 수를 대폭 감소시킨다.

6.5 2030년까지 적절한 초국경 협력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이행한다.

6.6 2020년까지 산, 숲, 습지, 강, 지하수층, 호수를 포함한 물과 관련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6.a 2030년까지 집수, 담수화, 용수효율, 폐수 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물 및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협력과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6.b 물과 위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Goal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7.1 2030년까지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7.2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믹스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늘린다.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을 두 배로 늘린다.

7.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선진화되고 보다 청정한 화석연료기술 등을 포함하여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한다.

7.b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서 모두를 위해 각국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기반시설을 확대한다.

Goal 8. 모두를 위한 지속적 · 포용적 ·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8.1 국가 상황에 따라 1인당 소득 증가를 유지하며 특히 최빈국의 경우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소7%로 유지한다.

8.2 고부가가치 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에 중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산업다각

화, 기술 발전, 혁신을 통해 경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한다.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포함하여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지향 정책을 증진시킨다.

8.4 2030년 내 전 세계 소비와 생산에서의 자원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선진국이 주도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10년 계획 프레임워크(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에 따라 경제성장이 환경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8.5 2030년까지 장애인 및 청년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 남성을 위한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달성한다.

8.6 2020년까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청년의 비율을 대폭 줄인다.

8.7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소년병 징집 및 동원을 포함해 가장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의 금지 및 종식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앤다.

8.8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자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확대한다.

8.9 2030년까지 지역의 고유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진흥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8.10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금융서비스 접근을 장려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별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8.a 최빈국 무역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프레임워크(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지원을 확대한다.

8.b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개발하고 운용하며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세계고용협약(Global Jobs Pact)을 이행한다.

Goal 9.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9.1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공평한 접근에 중점을 두고, 경제발전과 인류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대륙차원 및 초국경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양질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한다.

9.2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증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 상황에 맞게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산업 비중을 대폭 늘리되, 특히 최빈국에서 두 배 증대한다.

9.3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신용우대 및 가치사슬과 시장과의 통합을 포함하여, 소규모 산업체와 기타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향상한다.

9.4 2030년까지 높은 자원사용 효율과 청정기술 및 환경친화적 공정을 산업에 적용하며 국가별 역량에 따라 각국별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존의 사회기반시설과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개선한다.

9.5 2030년까지 인구 100만명 당 연구개발(R&D) 인력의 비율 및 공공 ·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과학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산업부문의 기술적 역량을 향상한다.

9.a 아프리카국가, 최빈국, 내륙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에 대한 재정, 기술,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촉진한다.

9.b 최적의 정책 환경, 특히 산업 다양화와 상품의 가치부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에서의 국내기술 개발, 연구, 혁신 확대를 지원한다.

9.c 최빈국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에 대한 접근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적정가격의 보편적인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Goal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0.1 2030년까지 전체 인구의 소득 수준 하위 40%의 소득 증가율을 국가 전체평균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10.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례를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한다.

10.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10.5 전세계 금융시장과 기구들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그러한 규제들의 이행을 강화한다.

10.6 경제 및 금융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과성, 신뢰성, 책무성 및 적법성이 보장되는 제도가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대의권과 발언권 확보를 보장한다.

10.7 계획적이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의 이행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정규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의 이주와 이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10.a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에 대한 규정을 이행한다.

10.b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와 기타 재원이 필요가 가장 많은 국가, 즉 최빈국, 아프리카 국가, 군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러한 재원의 흐름이 이들 국가의 국가 계획과 프로그램에 부합하도록 한다.

10.c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 수수료를 3% 미만으로 줄이며 5%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송금 경로를 제거한다.

Goal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11.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정가격의 주택과 기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의 환경을 개선한다.

11.2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한다.

11.3 2030년까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지속 가능한 계획과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1.4 세계의 문화 ·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물로 인한 재난을 포함, 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고,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한다.

11.6 2030년까지 공기의 질과 도시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도시 인구 1인당 부정적 환경 영향을 감축한다.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11.a 국가 및 대륙별 발전 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및 도시 근교, 외곽지역 간 균형적인 경제·사회·환경적 연계성을 지원한다.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을 위해 통합된 정책과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도시와 주거지의 수를 대폭 늘리고,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2015-2030(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의 통

합재난위험관리를 개발하고 이행한다.

11.c 최빈국이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이 뛰어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한다.

Goal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12.1 개발도상국의 발전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면서, 선진국 주도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에 대한 10년 계획 프레임워크 프로그램(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을 모든 국가가 이행한다.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효율적 사용을 달성한다.

12.3 2030년까지 유통 및 소비자 수준에서의 전 세계 인구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출하 후 손실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한다.

12.4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을 모든 주기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 물, 토양으로의 유출을 현저하게 줄인다.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대폭 줄인다.

12.6 기업,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이 지속 가능한 실천계획을 그들의 보고 체계에 채택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도록 장려한다.

12.7 2030년까지 국가의 정책과 전략에 따라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확대한다.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에 대해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12.a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구축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12.b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12.c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빈곤층과 영향을 받는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해로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른 환경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Goal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와 관련한 위험 및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과 적응능력을 강화한다.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계획에 통합한다.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13.a 기후변화 완화 조치와 이행의 투명성에 관한 개도국의 요구에 따라 유엔 기후 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선진 당사국이 공동으로 매년 1,000억 달러를 동원하겠다는 목표를 2020년까지 완전히 이행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출자를 통해 녹색기후기금

(GCF)의 완전한 운용을 시작한다.

13.b 여성, 청년, 지역 공동체 및 소외된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포함해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효과적인 계획과 관리 역량 개발을 위한 메커니즘을 증진한다.

Goal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

14.1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해양오염, 특히 해양폐기물, 영양분 오염 등 육상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현저히 감소한다.

14.2 2020년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복원력 강화를 포함하여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만들기 위해 복원 조치를 취한다.

14.3 모든 수준에서의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다루고 최소화한다.

14.4 2020년까지 효과적으로 어류 포획을 규제하고, 남획, 불법 · 미신고 · 비규제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및 파괴적 어업관행을 근절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어류자원이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라 지속 가능한 최대 산출량 수준으로 복원되도록 과학에 기반한 관리계획을 이행한다.

14.5 2020년까지 최신 과학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최소 10%의 해안 및 해양 영역을 보존한다.

14.6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에 영향을 주는 특정 형태의 어업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 · 미신고 · 비규제 어업을 조장하는 보조금을 제거하며, 그러한 형태의 보조금의 신설을 제한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우대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14.7 2030년까지 어업, 양식업, 관광업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통해 해양자원을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사용함으로써 군소도서개도국 및 최빈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한다.

14.a 군소도서개도국 및 최빈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해양 생물다양성이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고 해양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과학적 지식 수준을 높이고 연구 역량을 개발하며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의 기준과 해양기술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양기술을 이전한다.

14.b 소규모 영세 어업 종사자가 해양자원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 158항에서 환기한 바와 같이, 해양과 그 자원에 대한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의 법률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과 같은 국제법을 이행함으로써 해양과 그 자원에 대한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강화한다.

Goal 15. 지속 가능한 육상생태계 이용을 보호 · 복원 · 증진, 삼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 및 복구,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5.1 2020년까지 국제협약상 의무에 따라 숲, 습지, 산악지역, 건조지 등을 포함한 육지와 내수면 생태계 서비스의 보존, 복원, 지속 가능한 사용을 보장한다.

15.2 202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모든 유형의 숲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를 이행하고, 삼림 파괴를 중지하며 황폐화된 숲을 복원하고 조림과 재식림을 대폭 확대한다.

15.3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나 가뭄, 홍수로 영향을 받는 토지를 포함한 모든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며, 토지황폐화가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15.4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이익을 주는 산림 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 보존을 보장한다.

15.5 자연 서식지 황폐화를 줄일 수 있도록 긴급하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며, 2020년까지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한다.

15.6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하며,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확대한다.

15.7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종식하기 위해 조속한 행동을 취하고, 불법 야생동물 상품의 수요 및 공급 측면의 문제를 동시에 다룬다.

15.8 2020년까지 육상 및 수중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며, 우선대응 대상종을 통제 및 박멸한다.

15.9 2020년까지 국가 및 지역별 계획, 발전과정, 빈곤감소전략, 회계에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통합하고 반영한다.

15.a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해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대폭 확대한다.

15.b 지속 가능한 삼림 관리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주요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개발도상국이 보존 및 재식림 등을 위한 삼림 관리를 증진할 수 있

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5.c 지역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생계 유지 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16.2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을 종식한다.

16.3 국내 · 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대폭 감소시킨다.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를 개발한다.

16.7 모든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16.9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16.10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한다.

16.a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한 모든 수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관련 국내 제도를 강화한다.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을 증진하고 강화한다.

Goal 17. 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Finance 재원

17.1 세금 및 기타 공공 수익 징수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재원 동원을 강화한다.

17.2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확대하고,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국민총소득 대비 0.15-0.20%까지 제공할겠다는 공약 달성을 포함하여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ODA 공여국에게는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

를 국민총소득 대비 최소 0.2%를 목표로 설정하도록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17.3 개발도상국을 위해 다양한 자료로부터 재원을 추가적으로 동원한다.

17.4 적절한 경우 부채조달, 부채탕감,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 조율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이 장기적인 부채상환능력(debt sustainability)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채무 빈곤국(HIPC)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채문제에 대응한다.

17.5 최빈국을 위한 투자증진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한다.

Technology 기술

17.6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남북 · 남남 · 삼각협력 등의 대륙 및 국가간 협력과 접근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촉진 메커니즘 활용 및 특히 UN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개선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 지식공유를 확대한다.

17.7 상호 합의에 의한 양허 및 특혜 조건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청정기술 및 친환경기술의 개발, 이전, 보급, 활용을 증진한다.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과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강화 메커니즘을 완전히 운영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구현기술의 활용을 강화한다.

Capacity-building 역량강화

17.9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수립된 개발도상국의 국가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역량강화를 이행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 지원(남북 · 남남 · 삼각 협력 포함)을 강화한다.

Trade 무역

17.10 도하개발의제의 최종협상 결과를 포함하여,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하며,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공평한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다자무역체제를 증진한다.

17.11 2020년까지 특히 전 세계 수출량에서 최빈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대폭 늘린다.

17.12 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원산지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접근 촉진에 기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모든 최빈국에 대해 영구적인 무관세 · 무쿼터 시장접근을 적시에 이행하도록 한다.

Systemic issues 시스템 이슈 / Policy and institutional coherence 정책 및 제도 일관성

17.13 정책 조정과 정책 일관성 등을 통해 글로벌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을 존중한다.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

17.16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보완한다.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자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 · 공공-민간 ·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Data, monitoring and accountability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

17.18 2020년까지 최빈국, 군소도서개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양질의, 시의적절하고, 신뢰가능하며, 세분화된(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여부, 지리적 위치 및 기타 국별 맥락에 따라) 데이터의 가용성을 대폭 향상하기 위해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17.19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보완해 지속가능발전 정도 측정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하며,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비록 UNESCO 등 다자기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SDGs의 17개 세부목표에 ‘관광’ 부분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17개 목표 중에서 목표 8, 목표 12, 그리고 목표 14는 관광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 목표 8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문화와 상품을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고안하고 실행하여, 2030년까지 달성토록하고 있다. 목표 12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양식을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영향을 감시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목표이며, 목표 14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 관광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하여 경제적 혜택을 증가시키는 내용이다. 목표 8, 12와 14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목표이외에도 14개 목표들이 관광과 불가분한 관계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유엔은 2017년을 지속가능한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해로 선포하였다.